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 737 8881 구독문의 02 737 000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7월 25일 수요일(주간) 제 328 호



금주법구

도가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어지면 지혜가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법구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퇴임 교수들 값진 회향

"포교는 퇴임 불자 교수의 몫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노후의 삶이 무척 보람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륜불자교수회보〉 제18호에 '인연 따라'를 기고한 곽종현 전 경상대 교수의 이 말은, 곽 교수가 불교학이 아닌 축산을 전공했고 퇴임 후에 더욱 신행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잡고자 하는 대표적 지식인 불자라는 점에서 신행이 부족한 지식인 불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퇴임과 함께 신행 활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회향에만 매달리기 십상인데 곽 교수는 이보다는 '신해행증'을 다지는 일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곽 교수는 99년 정년 퇴임과 함께 26개월째 송광사에 머물며 포교에 나서고 있다. 조계총림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불일회의 사무총장도 맡아, 기금 관리에서부터 법회나 수련회 등에 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까지, 불일회와 송광사의 모든 대소사에 관여하니 몸은 학교에 있을 때 못잖게 바쁘지만 전적으로 부처님 일에 매달리는 것이 행복하다고 토로한다. 곽 교수는 송광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송광사의 역사와 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곽 교수는 "사람들이 절에 올 때는 무엇인가 알려고 왔을 것이니, 이를 돕는 게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냐"며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일이 즐겁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구 및 경남북 지역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법륜불자교수회'에서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박종욱, 예종숙, 김주곤 교수 등 퇴임 교수들이 불자교수회에서 갈고 닦은 신행의 고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영학을 전공한 박종욱 전 영진대 교수는 98년 정년퇴임과 함께 개소한 '생명의 실상연구소'를 운영하며 도심 속 아픈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불교를 통해 현대인의 마음 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박 교수는 이 일을 위해 퇴임을 3년이나 앞당겼다. 또한 국문학을 전공한 예종숙 전 영남대 교수와 김주곤 전 경상대 교수도 수필과 강연으로 불교의 생활화를 이끌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불자들일수록 '불교지식'은 많은데 불법의 실천이나 신행 활동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 불자로서 살아온 삶을 포교로 회향하는 불자 교수들의 신행이 돋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신행단체 고령화 심화

불일회 · 삼보회 · 구도회 등 회원 대부분 50~60대

"청소년 캠프-직장인 참선프로 활용 등 대책 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대표적인 신행단체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져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일회, 삼보회, 보림회, 구도회, 달마회 등 20~30년 이상 재가불자의 법회와 공부를 이끌어 온 대표적 신행단체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50~60대 후반 연령층.

지난 64년 창립돼 60, 70년대 경전 강독과 법회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사)삼보회(이사장 윤정기)는 현재 주로 활동하는 회원 100여 명 중 50, 60대 회원이 80%를 차지할 정도다. 74년 창립돼 초기만 해도 대학생 불자들이 적극 참여했던 구도회(회장 정병조)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 구도회 서울지부의 경우 200여 회원 중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다. 65년 발족한 불일회(회장 조달공)와 70년대초 발족한 보림회 역시 기존 회원들은 나이를 먹고 청년들의 수급이 잘 되지 않다보니 현재 활동 회원 70%가 중 장년층이다.

물론 이들 신행단체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는 있다. 삼보회와 구도회는 어린이 법회에 관심을 쏟고, 보림회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참선 프로그램을 강화해 단체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대응일 뿐 청년들이 적극 영입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못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경전 강독이나 단조로운 정기 법회 등은 첨단시대 신세대 청년들에게 전혀 흡인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와 19년이 되는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등의 활동이 주목된다. 청년 불자들에게 개별 사업을 주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로 청년들의 영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를 바로 청년 불자들이 주도하게 하는 등 단체에서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젊은 신행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입 회원들의 연령층에 맞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결속만 강조할 경우 자칫 젊은 불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a.com



옛모습 되찾은 거조암 5백 나한

27일 개채불사 회향법회

영천 은해사 산내암자인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에 모셔진 석조 5백나한이 채색을 다시 올리는 개채(改彩)불사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되찾았다. 고려시대 조성된 거조암 5백나한은 원래 자연그대로의 석조불상이었으나 55년전 누군가에 의해 하안석회가 입혀지면서 원형을 잃었었다. 거조암 주지 돈명스님은 "27일 개채불사 회향법회와 고려불상 재현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태고종 분종 위기

총무원-반대파 9명 중징계
준비위-이달내 승려대회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이 창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일 발족한 '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 연합 승려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승려대회 준비위)가 현 총무원장 혜초스님 체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자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인곡, 혜화스님 등 승려대회 준비위측의 핵심인물 9명을 전격 정직(停職, 일정기간 동안 승려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징계) 시키는 중징계를 했다. 이에대해 승려대회 준비위측은 "징계는 무효이며, 전국승려대회를 이달안으로 열어 초법적인 차원에서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맞서고 있다.

혜초스님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집행부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여 종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실리를 추구해 왔던 세칭 '7인방'은 모든 종단 공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승려대회 준비위'도 19일 창신동 원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정원장 등 종단의 중진 스님 징계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종단을 분화로 몰고간 장본인들은 신성한 중앙불교회관 총무원사에서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前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보건공제회, 신협 등 본인과 관계되었다고 총무원이 발표한 '비리'는 전부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경숙 기자

'비폭력문화 정착 대책위' 구성

50여 불교단체 합의

조계종 내외의 폭력성을 뿌리 뽑자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50여개 불교단체들이 가칭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불교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의 대표들은 18일 모임을 갖고 24일 오전 7시 서울호텔에서 불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50여 단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선원 수좌들의 하안거가 끝나는 8월 4일까지 해암 종정스님을 비롯 원로회의, 중앙종회, 총무원, 선원, 율원, 강원의 대표자 등 원로-중진 스님들을 면담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종단적 대책을 청원키로 했다. 이들은 또 8월 16일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단의 비폭력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 종단폭력근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지광)는 16일 해인사와 실상사를 방문해 해인사 선원 수좌들의 실상사 난입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신흥사와 백담사를 방문해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소위는 동국대 비구교수의 폭행사건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폭력근절소위 위원장 지광스님은 "각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8월말 종회개원이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종단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등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 김재경 기자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 · 안면암 · 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 30일(월)~8월 1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그림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30일 오전 9시 조계사 / 도착 : 8월 1일 오후 5시 조계사

◇문 의 : 전화 02-722-4162, 016-292-1967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불교 신수회,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장 군 죽 비

◇중앙승가대의 앞날에 먹구름 가득. 재정난에 총장 스님까지 사의 표명.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한국불교 고질적 병폐의 축소판. (2면)

◇ '배워서 남 줄 수도 없는' 한국 여성들의 권한 척도 후진국 수준. 아직 한국에서의 남녀평등은 '말로만'. (8면)

◇생태계의 보고이자 천혜의 수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지자체의 관광지화에 눌려 암살 위기. (9면)

◇불자들의 사후 화장 비율이 기독교계보다 낮다. 일체가 공(空)임을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는 아득히 멀다. (23면)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분야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의 기원과 역사, 본질을 논하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철관선수」와 「법륜공」, 「사찰과 조선의 왕릉 풍수학설」을,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음달의 산소이장법」을,
6월호에는 「조선의 무격」을,
7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의 풍수지리 해설」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그러나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실험 후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미 국내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중인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 · 양(+)의 전하(electric charge)가 발생된다. 음 · 양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으로 특별한 지기인 생기가 발산되는 곳이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 중에서 부분발췌-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명혈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합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혈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번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번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에게는 「월간역학」 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명당 탐지기 - 관룡자

진산실업(주)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전국 어디에서도 통화)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딩 101호

사 설

'日帝의 불교정책' 발간 의미

자료의 중요성은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상과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과 불교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일제 강점기이다.

민족적으로도 이 시대를 이끈 사상과 인물의 행적이 이 시대의 지도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불교적으로도 한국불교의 법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3년간의 작업 끝에 펴낸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은 발간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만 35년동안 공휴일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 매일 발행한 조선총독부(통감부) 관보 1만4백50호의 내용 중에서 불교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불교관련 법령 및 지시사항, 30본산 연합사무소, 주지 이동, 사찰 창립 및 변경, 포교, 사찰재산, 일본불교의 활동 등 일곱 주제로 나누어 편찬한 이번 자료는 한국불교의 근대사를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불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를 기초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만공스님이 금강산 마하연의 주지로 있으면서 53선지식 또는 유점사 53불을 뜻할 수 있는 53명의 선승들과 함께 참선 수행을 한 기록 등 근대불교의 중요한 사실들 그리고 일제의 불교정책과 관련한 일거수 일투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큰 수확이다.

일제의 치밀한 통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빠짐없는 자료비치는 거꾸로 우리의 자료에 대한 가치 인식의 부족을 반성하는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밝힌 대로 범죄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노출될 것을 염려해 이번에는 제외한 문화재 관련 자료도 정부 등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아래 보존대책을 마련한 다음 빠른 시일내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각사지 발굴중단 안된다

한 민족의 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뿌리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민족 생명의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국보 2호인 원각사 탑이 있는 탑골공원은 민족혼을 되살린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상징한다.

서울시가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각사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혼으로부터 보호받고, 7천만 한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찬사 받을만한 거룩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공원녹지과가 "성역화 사업의 장기간 공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성역화 사업을 전면 취소하게 됐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미 착공하여 발굴 중이었던 사업을 돌연 중단, 성역화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서울시의 단편적인 졸속 행정의 극치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만약 탑골공원이 불교의 사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면 한반도의 5천년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의 뿌리를 말살하려는 처사일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인으로부터 규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1897년 영국인 브라운 씨의 건의에 따라 국내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7천만 민족문화인의 부끄러움인데, 모처럼 원력을 세워 서울시립박물관 발굴 팀이 투입되어 발굴작업을 하여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조차 포기를 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적극 재검토하고 계속 추진돼 국가적 문화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탑골공원은 불교 유적지로 성역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원각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무리하여 민족혼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민족문화를 자랑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 원각사 터의 발굴 작업 성공으로 원각사 탑과 보신각종을 연결하는 문화유산의 현장이 드러나게 되면 인사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종로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세계인에게 더욱 돋보일 것이다.

미궁에 빠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사의표명 · 재정난 겹쳐

불전국역硏 등 폐쇄…동국대 합병설도

이사회 올 예산 확정

극심한 재정난과 함께 총장 종범스님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중앙승가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종단과 중앙승가대 양쪽 모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1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 5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0년도 예산 결산 및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중앙승가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정대스님은 학교 측의 자구노력 부족에 불만을 나타내며 '승가대학 특별운영팀'을 구성해서라도 학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국대와 합병을 하는 것이 중앙승가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일부 이사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중앙승가대는 그동안 밀렸던 직원들의 월급과 단수·단전 위기까지 몰렸던 각종 공과금 체납을 가까스로 해결했으나 이같은 일이 되풀이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게다가 불전국역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는 재정부족으로 지난 5월 이미 문을 닫은 상태고, 8월 이후에는 다른 부속기관들의 폐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대학 본래의 기능을 잃을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 18억9천만원보다 35% 증가한 25억6천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재정위기를 돌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앙승가대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앙승가대가 안고 있는 부채만 해도 김포학사 공사대금 등 127억2천만원이나 되는데다, 당장 올해 10월 갚아야 할 공사대금 5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종범스님이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앙승가대는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학교 예산 25억6천만원 외에 승가학원 전체 예산을 71억4천여만원으로 확정하고, 기존 교학처, 총무처, 기획실 3개 부서 체제에서 기획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안암학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익용 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며, 잔여임기를 채워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 종범스님에게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흥사 중앙종회의원 도후스님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중앙종회의원에 도후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신흥사는 23일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개최하고, 단독입후보한 도후스님(철원 심원사 주지)을 신임 종회의원으로 선출했다.

도후스님은 1968년 신흥사에서 성준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1974년 법주사에서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90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불교방송 이사장, 철원 심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해외파견예정인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주최로 13일부터 16일까지 경주 석굴암과 통도사 등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조계, 태고, 진각, 총지종, 원불교 소속의 국제포교사 52명은 경주 불국사, 안동 하회마을, 경기도 이천 도예원과 충주 문화재 단지, 횡성 김치공장, 수원 삼성전자 등을 방문하고, 도자기 만들기, 김치만들기 불국사 다보탑 탑돌이, 새벽예불 등의 체험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해외에 나가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게 된다.

김원우 기자

"승랍 10년내 4안거 의무화"

조계종 교육관련 법안 의결…고시 · 법계위 구성

조계종 교육원은 18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51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 제도 및 승가고시법, 법계법 등 관계 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오는 8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승가교육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승려는 승랍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최소 4안거 이상을 성만하고, 종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이수해야 하며, 법계품수 년한을 기준으로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임하도록 했다.

주요 관계종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교육법의 경우 일반승려 교육을 '일반교육'과 '직무·직능교육'으로 분류하고 '일반교육'은 10년 단위 이내로 승가고시 및 법계체계를 기준으로 실시토록 했다.

종무원법 및 승려법의 경우는 임용기준 중 결격사유에 규정된 교육과 법계를 품수치 않은 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주지임용과 관련해 임기 내 필수 교육연수를 이수치 않은 경우 연임되지 않도록 했으며,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고 법계를 품수한 자에 한해 도제(상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문화된 고시위원회법을 승계해 본 법 내에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로급 스님들로 구성되는 '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의 승가고시법과 법계법을 개정했다. 한명우 기자

'직지와 문화' 법인 발족

충북 각계 150명 구성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천된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우수성과 정체성 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직지찾기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단법인 '직지와 문화'가 다음달 중순 출범한다.

(사)직지와문화 준비위원회는 지난 97년 출범한 청주시민회(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직지찾기운동본부를 해체하고, 충북도내 학계와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은자 기자

갱신기한 넘긴 포교사 복권

조계종 포교원

갱신기한을 넘겨 자격이 상실된 포교사들에게 복권 기회가 주어진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종무회의를 열어 징계에 의한 사유가 아닌 갱신기한을 초과한 포교사 중에서 향후 포교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포교사들에 한해 복권시켜주기로 결정하고,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해 8월18일까지 복권신청서류를 접수키로 했다.

복권을 신청한 포교사는 신청접수 후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활동을 충실히 하여 해당 교구본사 포교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포교원은 각 본사 포교국의 추천을 받아 복권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포교원 회의에서 의결 자격을 복권시켜줄 방침이다.

자격이 정지된 포교사들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활동부족으로 자격갱신에서 탈락하거나, 3년마다 해야 하는 자격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명우 기자

통도사 현문스님 주지 직인 '인수'

통도사가 18일 총무원에서 임명장을 받은 현문스님이 주지 직인을 포함한 인수인계를 마쳐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 (본지 제327호 3면 기사참조)

현문스님은 임명당시 총무원의 중재에 따라 교환했던 합의서 이행과 관련 원산스님과 의견차를 보여 임명장을 받고도 주지직인을 넘겨 받지 못했으나 이날 인수인계를 마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천미희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인터넷에 광고라도 내야…

담 화 문

지금 종단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종통을 계승하고 있는 정통종단을 해칠 목적으로 지난 7월 10일 소위 전국승려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헌종법에도 없는 불법적인 전국승려대회까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지난 14일 그 주동자들에 대하여 승적 정적(停籍)처분을 내렸는 바 이들은 이미 태고종 승려로써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들은 앞으로 종단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추호도 참회하는 빛이 없이 종권탈취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 한 채 선량한 종도들을 현혹시키고 불순세력을 규합하여 오직 그 성취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려로써의 양식과 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국승려대회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불법집회 이오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절대 현혹되거나 그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법집회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 집회에 휩쓸려 동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종 중앙종회의원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는 종회법 제62조 제63조에 의거 중앙종회의원의 위신을 실추시킨해종행위이므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불법집회에 동참하거나 그 명단에 오른 자는 종헌종법에 의하여 해종 행위자로 간주하고 의법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명단에 오르는 일이 있을 시에는 즉시 총무원에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종단화합과 종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5년 7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최혜초 ·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박운곡

公 告

지난 7월 10일 서울 남산타워호텔에서 일부 불순세력들이 정통종단의 종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위 한국불교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연합 발기인대회라는 것을 개최했던 바 그 위원회의 조직기구표에 의하면 덕암종정예하께서 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도들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정예하께서는 오래전부터 와병중이어서 전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을 허락하 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본인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일부 불순자들의 엄연한 날조이며 사기임이 분명하오니 이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5년 7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최혜초

목어

좋은 소식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산사를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소탈하게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이 마음을 끌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기 때문일 게다.

불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너그럽고 심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불교를 만난 인연을 자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뽐내지는 않지만 긍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이 긍지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입방아를 찧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절 집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 불자들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만들곤 한다.

종권과 주지 자리를 놓고 싸운다느니, 속인들도 꺼려해야 할 일을 스님이 저질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좋은 소식은 적고 안 좋은 소식은 너무 자주 들린다.

불자들이 부처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다니….

사람들은 불교나 스님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불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에는 어느 종단에선가 또 종권다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흔한 질문이지만 무엇을 위해 출가를 했는지 거듭 묻고 싶을 뿐이다. 자정과 제 역할을 외면하는 불교계라면 불교가 아무리 심오하고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한들 누가 문을 두드리겠는가.

다행히 이번에 해인사대불로 빚어진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스님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참회법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불행중 다행이나 애초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상을 사노라면 안 좋은 소식도 더러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요즘엔 우리 불교계의 좋은 소식이 참 많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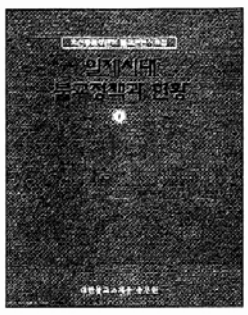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일제 30본산 지정 통치수단화"

조계종 '일제시대 불교정책 …' 자료집

1910~1945년 총독부 관보 정리
3년 작업 … 7개 주제별 재편집
"사찰-주지-신도수까지 철저관리"



일제가 행정기구에 의한 종교단체의 통제를 통해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려 했음이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일제 35년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렸던 불교 관련 기록을 3년 작업끝에 정리하여 20일 발간한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자료집에 수록된 사찰령'(1911년) '포교 규칙'(1915년)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제는 종교단체를 식민통치의 보좌기구로 설정하고, 불교의 포교활동이 식민지 국민으로써 갖추어야할 자세와 덕목을 교화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과 '포교규칙'에 따르면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묶고 사찰주지의 임면권과 사찰재산목록서 작성의 의무화 등을 통해 재정권을 장악한 것은 물론 각 사찰과 주지, 신도 수까지 총독부에서 관리하면서 한국불교계가 일제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제는 30본산을 지정하면서 전통적인 사격과 법류(문중)관계를 고려치 않고 본산을 정하고 지역적 인접성만으로 법류가 다른 사찰의 말사로 소속시킨 것을 보면 단지 통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승려수가 1912년 7900명에 이르던 것이 1941년 6천2백여명으로 줄어든 것과 일본불교 포교소는 1915년 190여개 이던 것이 1918년 259개로 매년 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불교를 산속 깊은 암자까지 관리하며, 한국불교 말살정책을 펴왔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일제의 불교정책과 개개사찰의 멸실된 근현대사, 북한소재 사찰의 현황 그리고 오늘날 불교 조계종의 교구 본사 체제가 밝아 온 과정이 수록돼 일제시대 불교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일제 강점기 금강산의 대표적 선원이었던 마하연선원의 역대주지 이동관계와 만공스님이 1933년부터 1935년까지 금강산 유점사 주지로 주석하며 '유점사 53불'을 뜻하는 효봉스님 등 53명의 선지식이 수행했던 기록은 중요자료로 평가된다.

이처럼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역대주지 이동관계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생생한 거울이 된다는 점에서 자료집 발간은 의미가 크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조계종사 편찬과 각 사찰의 사지발간에 결정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이 자료들을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올려 일제기 불교사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집에 실린 불교기록은 5000여건에 이른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발행된 10450호의 총독부 관보에서 불교 관련내용을 크게 불교정책, 30본산 연합사무소, 주지이동, 사찰창립, 포교, 사찰재산, 일본불교 등 7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인명과 사찰명, 포교소명은 색인으로 붙였다. 김원우 기자



◇18일 열린 승가학원 이사회에서는 종단과 학교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앙승가대' 놓고 두 생각

종단 "자구노력 안한다"
학교 "수익기관 아니다"

중앙승가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종단과 중앙승가대의 진단은 서로 다르다. 종단은 학교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 측은 종단이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8일 열린 승가학원 이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종단의 불만은 명확히 표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정대스님은 "마치 종단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학교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학교 측을 질타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나, 수행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록금 인상,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등 종단이 제시한 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단의 한 관계자도 "안암학사 문제만 해도 한달에 500여만원의 각종 공과금이 사용하지도 않고 낭비되는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35억으로 편성하면서 이중 식당운영비를 7억원으로 잡은 것이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할 기숙사 사감을 채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다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려는 것은 중앙승가대가 종단 기본교육기관인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직원 6명을 줄였으며, 수익사업 요구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용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학교를 수익기관으로 여기는 종단의 발상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정묵스님은 "종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세워 마치 학교 측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중앙승가대는 엄연히 대학이며, 대학으로서의 품위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범스님의 총장직 사퇴도 이같은 갈등구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앙승가대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억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25억6천만원으로는 대학 기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앙승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시점에서 동국대와의 합병문제가 제기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중앙승가대는 학교와 종단, 동문 3자간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명우 기자

양측 초강수 대립…수습기대 '난망'

'태고종 내분' 해결책없나

해결열쇠 '7인방 스님'
"충돌땐 불교위신 추락"
경찰에 청사보호 요청

또다시 태고종 분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초법적 성격의 승려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새 판을 짜겠다'는 '태고종 바로세우기 종단연합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에 맞서 총무원도 상대측의 중진스님 9명에게 '정적 이라는 초 강수를 내렸다. 총무원은 또 14일 경찰에 청사보호요청을 해놓았다.

총무원은 승려대회준비위측이 월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 총무원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나 됐다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느니 말았느니 하느냐는 것이다. 현 집행부를 핑계삼아 전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재직시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한 '재집권'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19일 "죽어서 나가면 나갔지, 종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원장인 만큼 결코 누구에게도 종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혜초스님은 특히 이번 종단사태가 '세칭 7인방'이라 불리는 중진스님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종단을 위해 뜻있는 종도들과 7인방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까지 천명했다.

승려대회 준비위측은 혜초원장이 종단수습대책위의 합의에 따라 원장으로 추대됐지만 양쪽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접수가 되기 보다는 운산, 대운 스님 등의 영향력 아래 있어 '허수아비 원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승려대회측은 파행적 인사의 정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종단을 운영해 간다면 태고종의 종지종풍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승려대회를 열어 이를 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고종의 이번 분규재연에 대해 교계에서는 종단 자체가 종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악순환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지난 해 11월 지난 79회 종회에서 당선된 종연 총무원장의 후보 자격이 미비함에도 종회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또 당선된 후 1달도 못돼 상대방 후보측에 의해 흔들기를 시작해 결국 중도하차시킨 일이며, 80회 종회 개회도 종헌종법에 따라 여법하게 열지 못하고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계속 악순환을 몰고 와, 누가 누구를 탓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태고종의 분규는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재격돌한 7인방이 이해 관계에 따라 운산-대운 -인공 스님, 인곡- 운경- 백우 스님 등 양쪽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가 이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7인방 스님들에게 해결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이다.

승려대회에 과연 얼마마한 스님들이 참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섣불리 승려대회가 열리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98년 99년 조계종 분규가 워낙 세인의 지탄을 받은데다가 최근 해인사 선방 일부 수좌들의 폭력행위로 승단의 폭력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만일 대회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태고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계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태고종이 물리적인 폭력상황이나 분종으로 가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중정예하 법납 61수 및 원각경 출판기념대법회

모시는 글

거룩한 三寶前에 歸依합니다.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敎界 大德큰스님과 四部大衆 十方諸位께 늘 함께하시기를 祈願합니다.
今番 本 宗에서는 靈山一空 宗正猊下의 法納 61壽를 맞이하여 교계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法納 61壽 및 圓覺經 出版記念 大法會를 봉행 코져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불기 2545년 7월

* 일 시 : 불기 2545년 8월 5일(음력 6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캐피탈 대 연회장
* 전 화 :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02) 853-0531

봉행위원

위 원 장 : 법륜
부위원장 : 대월 평신 정관 선진
위 원 : 보광 체인 체도 보월 체승
도광 체의 호연 은혜 혜림
일공 문도회 회원 일동

추진위원

위 원 장 : 성관
부위원장 : 성견 벽봉 천호 인관
위 원 : 정광 석천 혜민 혜광 선덕 진연
성욱 체명 체정 보선 체혜 체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봉행위원회 위원장 최법륜 합장

일주문



여름사찰 수련회

도영 금산사 주지는 26일부터 8월14일까지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름 사찰 수련회' 를 실시한다.



불교수화 강좌 열어

덕신 조계사 장애인 포교 원심회장은 '8월 6일 저녁7시 원심회 사무실에서 '불교수화 강좌' 개강식을 봉행한다.



단기 출가 수련회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26일부터 3박4일간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여름 단기 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포교' 법문

현각 현정사 주지는 8월 6일 수덕사에서 전국불교연합회 회원들에게 '올바른 포교에 대하여' 란 주제로 법문한다.



우수 위탁기관 선정

경륜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은 '2001년 민간위탁운영 분야 개선 노력도 부문' 우수기관 운영자로 선정됐다.



나눔의 집 그림전 참석

능광 나눔의 집 원장은 미국 캔사스시에서 열리는 '나눔의 집 할머니 그림 전시회' 에 참석차 13일 출국했다.



심인중고 정교실장

일학 대구 시복심인당 주교는 진각종립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으로 임명돼 1일 임명장을 받았다.



동산불교대 입학식 봉행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은 8월 4일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에서 제19기 동산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한다.



요가수련원 개원식

이태영 한국요가연수원장은 28일 정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2리에서 요가수련원 개원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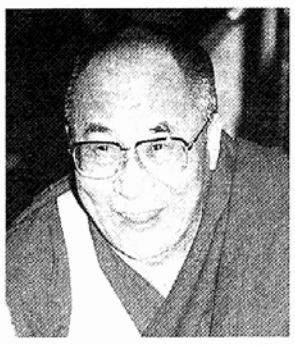
'불교사진 촬영' 강의

김우영 불교사진연합회장은 28~29일 여주 신륵사에서 여름세미나를 개최하고 '불교사진 촬영' 강의를 연다.

방한무산 아쉬운 한국인에 달라이 라마 특별 법문

본지는 16일 락도르(Lhakdor) 달라이라마 비서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자우편을 받았다. 이 편지는 본지가 6월 25일, 달라이라마의 방한 무산에 상심한 한국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는가를 묻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장이다. 락도르 비서관은 이 편지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내면을 개발해, 물질적 발전에 균형을 맞추자(Balancing Material Progress with Inner Development)' 라는 제목의 특별 법문을 보내와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대신했다. 법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사랑과 자비 키울때 평화 온다"



오늘날 우리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의 특성을 수용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은 고립되어 있지만, 각 고립된 존재들은 서로 내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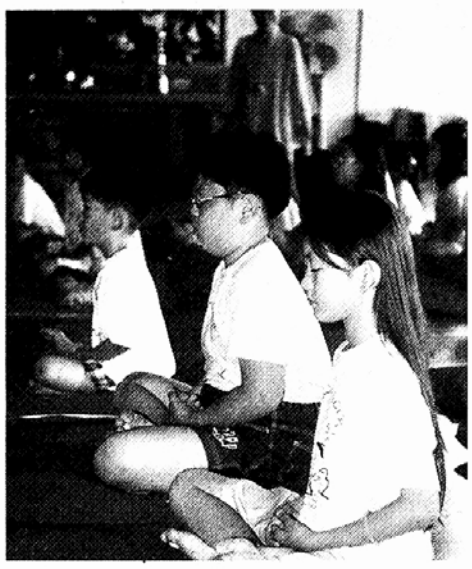
현대의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어야 합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친 탓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성에 쉽게 함몰되고,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는 다른 세계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앎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쓰는 만큼 우리 자신의 삶 역시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번째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사랑과 자비를 찾아내고 키워나가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평화롭고 온건한 것이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경제적 부와 안락함만을 위해 선한 덕목, 즉 신념과 같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타주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기질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나 철학, 수행법 등이 공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리나 철학 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존재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충실히 따른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고 또 과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폭력과 대화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끼리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갈등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애로써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 사이에 놓인 폭력을 가치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논쟁과 싸움은 우리 모두를 약화시키고 움츠러들게 할 뿐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참선 공부하는 문수동자들

Focus

"눈을 감으면 졸리니까 눈을 감지 말고 앞을 응시하세요." 20일 금강정사 대웅전에 모인 50명의 문수동자들이 정수 스님(금강정사 어린이 지도법사)의 지도를 받으며 참선 공부를 하고 있다.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스님)는 19일부터 2박3일간 '제21차 여름불교학교' 를 열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교내 어디서나 사이버 접속

동국대, 도서관 등 121곳 인터넷망 구축



◇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무선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다.

동국대생들이 캠퍼스 전역에서 자유롭게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최근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 교정 전역에 무선 인터넷망 시설공사를 마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무선 랜카드를 장착한 노트북이 있으면 교정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 웹서핑을 할 수 있게 됐다. 11Mbps 속도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망은 옥외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12곳), 상록원(6곳),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18곳) 등에 모두 121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개설해 각종 회의, 학습, 멀티미디어형 수업 등도 가능하게 됐다. 20일 개최된 전자불전연구소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시연회에서도 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했다.

정보관리실 이종욱(정보관리학과 교수) 실장은 "무선인터넷망의 이용도 추이를 검토하여 실내 학습공간에도 계속 무선 인터넷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용 노트북을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정보관리실은 무선랜 카드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동국대 역경원 개원 37돌 법회

동국대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은 20일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동국역경원 개원 37주년 기념법회 및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식 발족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 역경원 후원회장을 비롯해 월운 역경원장 스님, 혜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일면 봉선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NGO 여름명상

재가연대 NGO활동가 명상캠프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부석사에서 'NGO활동가를 위한 여름 명상 캠프' 를 열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경스님(부석사 주지)의 '참선과 수행이야기' 특강을 비롯해 초펠스님의 '티벳의 지혜와 명상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각종 서울교구 한마음대동제

진각종 총금강회 서울지부는 탑주심인당 금강회 주관으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빛은행 도농운동장에서 제6회 서울교구 한마음 대동제를 갖고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족구, 장기자랑 등 다양한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대동제에는 진각종 각해 총인,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 서울교구 스승, 신교도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여불련 '여성 경제활동'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켄빈스홀에서 '제12회 여성의 경제활동' 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요식 한일여성친선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 하영애 한중여성협의회 회장 등 여성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대학 개강 (2년제)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불교」,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쉬운불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교과과정

- 불교입문과정 : 실천적 불교사상
- 부처님의 일생 : 인간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근본불교 : 불교사상의 뿌리
- 변천사 : 한국불교 및 인도불교, 세계불교변천사
- 불교교학 : 대승불교의 꽃
- 수행론 : 참 나를 찾아서
- 불교와 사회 I : 불교와인류문명
- 불교와 사회 II : 불교와 환경 생명사상
- 불교와 사회 III : 불교와 평화
- 불교와 사회IV : 불교와 복지
- 기타 : 특강 및 수행수련

	교육기간	요 일	법회시간
서 울	9/4-12/11	매주 화	주/야
부 산	9/3-12/10	매주 월	주/야
대 구	9/5-12/12	매주 수	주/야
대 전	9/7-12/14	매주 금	주
청 주	9/7-12/14	매주 금	야
마 산	9/4-12/11	매주 화	주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정토불교대학	02) 587-8993
부산정토불교대학	051) 557-2746
대구정토불교대학	053) 744-3025
대전정토불교대학	042) 253-8990
청주정토불교대학	043) 284-5951
마산정토불교대학	055) 247-8991
	011) 9000-9529

모집대상 및 입학금

- 대 상 : 만 19세이상 누구나 다
- 참가비 : 6만원(한 학기)
- 접수기간 : 7월 16일 ~ 9월 24일
-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대학 사무국

※ 본과정은 중간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통신대학 개강 (2년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들을 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기본 교과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적 실천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신 법륜스님께서 정토불교통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는 법륜스님의 통신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입학대상 : 성인 남녀 누구나 (연령, 학력 제한 없음)
2. 교육기간 : 2년(4학기)
3. 특전사항 : 2년 전과정을 마친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접수기간 : 7월16일 ~ 9월 24일 (월요일)
5. 접수 및 문의 : 정토불교대학 사무국
   전화 : 02-587-8994 / 전송 : 02-587-8998
6. 입학식 · 소집일 : 2001년 9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 정토회관
7. 교육방법 :
   · 법륜스님께서 강의하신 녹음테이프와 교재가 우송됩니다.
   · 과목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 철저한 학사관리를 합니다.
8.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9. 등 록 비 : 입학금 10만원, 한학기 20만원 (분할 가능)

* 국민은행 823-01-0148-855<이지현>

10. 교과내용

실천적 불교사상	인 간 붓 다	근 본 불 교	불교의 변천사
법 성 게	신 심 명	반 야 심 경	육 조 단 경
환경과 불교	복지와 불교	평화와 불교	통일과 불교
일 수행의 수행	일 수행의 일	마음 다스리는 길	민족의 역사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1년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제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불교미술학과		· 불교미술사 · 불교회화 · 불교건축 · 한국불교미술 · 불화(1) · 불화(2) · 단청 · 선화(달마도)	
우리춤학과		· 우리춤기본 · 승무기본 · 승무연구 · 북과장단기본	[이애주(서울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우리춤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2시 (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 (우리춤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심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국무총리실 불자회 창립

회원 24명…전충렬씨 회장

국무총리실 불자회(이하 총불회)가 7일 창립됐다.

전충렬 씨 등 국무총리실 불자들이 한 달간 다른 임직원 200여 명에게 메일을 보내 불자회 창립을 알리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무위원 식당에서 정오에 열린 총불회 발족식에는 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초발심의 자세로 불법을 배우고 신행을 펴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날 회장으로 선임된 전충렬 씨는 "한 달간의 준비작업 끝에 총불회를 조직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24명 모두 불자라곤 하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부처 불자회와 보조를 맞추며 신행의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회원들은 서울 법련사에 지도법사를 요청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정오에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오종욱 기자



◇환경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500여명은 18일 여의도에서 댐 중심 물정책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환경 해치는 댐건설 반대"

환경단체 500여명 여의도서 시위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범영남권댐반대투쟁위원회는 18일 '댐 위주 물정책 반대 국민행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댐 중심 물정책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댐 위주 물 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가 '대형댐의 역할과 한계',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물관리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각계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전환해 수량확보와 수질관리, 행정체계의 정비까지 포함하는 친환경적인 종합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교정인련 포교사팀 발족

재소자 교리교육등 활동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가 자체적인 포교사 팀을 발족했다.

포교사 팀은 연합회 회원으로 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2명의 회원을 주축으로 구성돼,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통도사에서 갖은 연합회 간부수련회에서 공개됐다. 이는 6월초 연합회 임원 간담회에서 '회원 중에서 포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중지가 모여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교도위원이 상주하지 못한 교정기관에서도 포교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연합회 산하 지회를 창립하지 못한 교정기관에서 연합회 입지를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교정인 포교사의 수가 해마다 5~6명 가량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발족한 포교사 팀의 조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교사 팀장을 맡은 유화영 씨는 "매월 모임을 여는 것을 물론 각 교정기관의 불교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정인 포교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직접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포교원이 19~20일 개최한 '의식집전 교육'에서 목탁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직장직능 불자회 임원들.

"법회진행 이젠 자신 있어요"

조계종 직장단체 임원 첫 의식집전 교육

45명 참가…예불 · 독경 · 목탁치는 법 배워

"염불은 호흡이고 목탁은 장단입니다. 예불 의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9일 오후 8시 포교원 4층 법당을 가득 매운 45명의 불자들은 목탁을 두드리며 삼귀의와 정근 쌍법을 시연하는 주경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시간은 일터에서 동료 불자들과 예불 의식을 진행하며 품었던 궁금증을 일거에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국립의료원, 농림부, 성북구청, 경찰청 등 30여 곳의 일터에서 불자회를 이끌고 있는 45명의 불자들은 19~20일 이틀간 열린 포교원의 제1회 '직장직능불교신행단체 임원 의식집전 교육'에 참석해 목탁을 치는 법, 염송이나 독경 정근을 하는 법, 예불을 올리며 법회를 봉행하는 법 등 일터에서 신행 활동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의식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불자들은 교육에 앞서 배포된 〈불교의식의 이해와 바람직한 집전방법〉라는 제목의 포교 지침서를 참조하며, 때론 스님의 말과 행동을 메모하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의식을 차근차근 배워 갔다.

농림부 불자회 총무 이영기 씨는 "불자회 대부분 지도법사가 없어, 임원들이 서툰 솜씨로 불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번 힘들게 진행했던 불자회 법회를 이제는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에서 전철을 타고 온 이 씨의 집은 경기도 안양이다.

종단 차원에서 직장직능불자회에게 실시된 첫 의식집전 교육은,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 불자회 임원들에게 법회 진행상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불자회의 활성과 안정적인 법회 봉행을 위해 2개월 간의 준비 과정 끝에 마련됐다.

덕혜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은 "지도법사나 스님이 없어도, 불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서울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교육범위를 확대할 생각이며 직능직장법사단을 구성해 직장직능 단체와 연계시킬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격무 시달리는 경찰관 마음 여유 찾았으면…"

법당개원 부산경찰청 고행섭 회장



"부산지방경찰청의 무궁화 법당을 기점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불자들 위한 포교 공간이 생겨나고 법회가 활성화 되도록 일심으로 정진할 계획입니다."

8월 4일 부산지방경찰청 청사 내에 무궁화법당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경불회 고행섭(51, 폭력계 경위 · 사진) 회장은, 8월 4일 현판식을 갖고 개원하게 되는 무궁화 법당이 경찰청 직원들의 신행과 정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정신적 중압감이 많은 경찰 업무 중에 언제라도 찾아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 회장은 "의경, 전투경찰들의 휴식처, 심신수양의 장으로 활용하면 경찰 포교의 기틀을 다지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8년 창립이후 매주 목요일 법회로 신심을 다지고 있는 경불회 회원들의 정성과 경승단 스님들의 지원으로 문을 열게 된 무궁화 법당은 앞으로 경찰서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 개방될 예정이다.

고 회장은 "경승단 스님들을 주축으로 스님이 상주하면서 불자들을 위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안산승무소 참선실수

철도청 안산승무사무소는 18일 오전 12시 30분 다보사에서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다보사 주지 도선 스님의 보현행현품을 주제로 한 법문과 강좌, 반야심경 봉독, 참선실수로 진행됐다.

한빛은 지도법사 법현스님

한빛은행 불자회는12일 오후 7시 30분 본점 4층 강당에서 지도법사로 법현스님(종단협 사무국장)을 추대했다.

회원들의 알차고 내실있는 마음공부를 위하여 마련된 추대 법회에는 법사 법현스님을 비롯해 30여 명의 한빛 불자회원들이 참석했다.

경희의료원 정기법회

경희의료원 불자회는 24일 서울 회기동 연화사에서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불가로 시작한 이날 법회에서 연화사 주지 묘정 스님은 '육체의 치료와 마음의 치료'를 주제로 법문했다. 경희의료원 불자회 8월 정기법회는 21일 저녁 6시 연화사에서 열린다.

법륜불자교수회 수련회

법륜불자교수회는 7월 21~22일 영주 부석사에서 제27차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50여 회원과 그 가족들은 21일 오후 1시 30분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교와 풍수지리'를 주제로 한 경산대 성동환 교수의 특강, 부석사 주지 근일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경찰불교회 활성화 논의

전국경찰불교회는 7일 서울경기지역 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정례모임을 운영하는 문제와 지도법사나 법당이 없는 경불회 활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경찰불교회 두 번째 모임은 8월 25일 오후 3시 본청에서 열린다.

게시판

알림

▲3세대 통합 여름캠프=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3일 가평 '약속의 섬'에서 '해뜨는 집-3세대 통합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가족단위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아동.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02)358-1351

▲진로 지도=양정청소년수련관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02년 2월까지 진행되는 진로지도는 진도의사결정(4회), 진로탐색(8회), 적성검사(3종류), 직업준비특강(3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051)868-0750

강좌

▲아동여름특강=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 단기특강을 마련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들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에는 창작미술, 동화구연, 아동생활체조, 인터넷 활동 등이 강의된다. (02)817-8052

모집

▲피아노 강사=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피아노 강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음악학과 관련 전공자로, 아동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다. 교육 시간은 월 · 금요일 오후 5시. (02)571-2988

▲불교합창단원=군산불교신도연합회는 음성공양으로 포교활동에 매진할 불교합창단원 약간명을 모집한다. 연습시간은 주 1회. (011)9642-7733

▲생활재활교사=승가원은 소쩍새마을 생활재활교사를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면 지원 가능하며, 시설 상주 근무. (033)762-9870

▲합창단 신입단원=수원 어울문화원은 어울우리노래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모집의 오디션은 28일 문화원에서 개최되며, 자유곡 1곡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031)256-6938

▲장애인 도우미=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정봉사자 및 차량지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가정봉사원은 주 1회 2시간 장애인 간병 및 가사를 돕고, 차량지원봉사자는 월 2회 3시간 밀반찬 배달 및 병원 동행 봉사를 한다. (054)633-6415

▲아동 방학과제 도우미=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동 방학과제를 도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방학과제, 수영장이용, 음식만들기, 공동작품만들기, 발표 등이며, 기간은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02)989-4215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 1, 전남 1, 서울, 경기 2, 충북 1, 충남 1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경북, 북부대리점
영주 054-635-9153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1-8871 792-8867~8

소쩍새 마을서 매주 찬불가 지도

신행현장

성불원 바라밀회 유영서 회장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18일 오후 1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 치악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소쩍새마을(원장 현각스님). 법당에서 풍금 소리와 함께 찬불가가 흘러나온다.

몸과 마음 어느 부분이 아픈 소쩍새마을 가족 50여명(전체 인원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와 함께 시작된 '찬불가 배우는 법회'는 사흥서원과 산회가가 끝날 때까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부르기 전에 노래 선생님 유영서(50) 보살은 브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러분, 찬불가를 부르는 이유는 부처님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해요. 알겠죠."

"네에, 선생님."

소쩍새 가족들은 비록 발음이 서툴고 틀린 부분이 많아도 열심히 손뼉을 치며 찬불가를 배운다. 전자 오르간의 반주는 하반신이 불편한 마을 식구 차철주 씨가 맡아 연주실력을 발휘한다.

선생님은 법회 의식문들을 비롯해 '부처님께 바칩니다' '불자 행진곡' 등 이제까지 배운 찬불가를 처음부터 하나씩 부르게 한다.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찬불가 중간중간엔 흥을 돋구기 위해 '송아지' '소양강 처녀' 등 동요와 가요를 양념으로 가르친다. 즐겁게 배우도록 해 빠지는 원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순수한 마음들과 만남 오히려 제가 배워요"

20년째 재소자 교화도

원주 성불원(주지 현각) 바라밀회 회장인 유영서 보살이 소쩍새마을에서 찬불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이 때부터 유 회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원주시내에서 운영하는 꽃집 문을 닫아둔 채 소쩍새마을로 달려온다.

"가족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 주어 오히려 신이 나요. 나를 따라주는 그들의 곱고 순수한 마음을 느낄 때면 제가 오히려 배우고 가요."

유 회장이 찬불가 지도에 나선 것은 소쩍새마을이 처음이 아니다. 98년 7월 바라밀회를 창립할 때부터 시작한 원주교도소 불자 재소자들을 위한 자매법회는 찬불가는 물론 경전 및 기초교리 공부, 발원문 읽기 등과 어우러진 법음(法音) 전파의 일환이었다.



◇유영서 바라밀회장(서있는 사람)은 매주 수요일 소쩍새마을에서 찬불가를 지도한다.

20여년간 원주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매진해 온 현각스님의 원력에 감화된 유 회장은 매달 첫째 월요일 종교집회, 첫째·넷째 금요일 자매법회를 회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금강경을 함께 읽고 불교교리도 지도할 정도로 알찬 신행을 펼치고 있다.

매주 사찰법회에서 합창단원으로서 음성공양을 하면서 보름마다 떠나는 사찰순례의 일정을 준비하는 한편 틈틈이 원주시립복지원에서 찬불가를 지도하는 유 회장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새벽예불과 2시간에 걸친 금강경, 지장경 독경에 이은 하루하루의 보살행, 그 원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남편과 두 아들의 헌신때문이라면서도 유 회장은 자신이 지도하는 재소자들이 불자로 거듭나는 모습에 더욱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오늘(18일) 생일을 맞아 한 재소자로부터 여섯 잎 클로버가 든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는데, 이럴 때면 그동안의 피곤함이 싹 가셔요. 이것이 보람이고 수행이 아닌가 생각돼요."

지난 봄에 이은 가을에 예정된 모범 재소자 사회견학, 오는 10월 원주교도소 찬불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소쩍새마을 가족들의 찬불가 지도에 정성을 다하는 유 회장. 봉사활동 때문에 바빠 꽃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도 법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은 더욱 소중하기만 하다. 소쩍새마을=(033)762-987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모든 고통은 내 안에서 자라난다

누군가 나를 꾸짖거나 비난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가만히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화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반발하는가. 아마도 후자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고 맞서는 순간,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회탕지옥이 된다. 반면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말을 귀감으로 삼을 줄 안다면 그 순간에 그도 부처, 나도 부처가 된다. 그는 내 중생심을 꾸짖으니 필경 부처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거울로 삼으니 뎌는 중생심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불심으로 돌아 선 것이 된다.

우리는 삶 속에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고에서 진정 벗어나려면 그 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살피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그런데 대개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쉽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만 한다.

만물은 나를 포함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부딪히는 경계란 끝이 없고 무수하다. 그것을 이루 다 어떻게 뽑아버리겠는가. 내 마음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변할 것이고 변해보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엔 번뇌도 고통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것을 부둥켜 안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번뇌가 좇아오고 고통이 깃든다.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은 번뇌의 씨앗이요 고통의 뿌리인 것을 모른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싹트고 안에서 자라난다. 그것은 바깥에서 내게로 부딪쳐 오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 못난 사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언행을 나의 거울로 삼고, 나를 공부시키는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에 번뇌와 고통이 어떻게 따르겠는가.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서로 아상 내세우니 불화 인욕바라밀 실천합시다"



령관스님
서울 무량정사 주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상을 내세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빨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함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진리에 대하여 아직 밝게 알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힘써 방편으로 왕성한 욕심을 일으켜 밝게 알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내가 저승갈 때 재물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재물 많이 쌓아놓아봤자 무엇하느냐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욕심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언젠가 설법을 나갔다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던지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돌아와서 부처님께 다시

108배·3천배·1만배 '나' 낮추는 수행방편

는 그 지역으로 법문을 하러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박해하면 어찌 하려느냐?" "또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곳에서도 박해하면?" 그제서야 라훌라는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욕행의 제일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입이 닳도록 강조하신 것이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8배, 3천배, 1만배 등 절을 많이 하는 것은 아상을 누르고 인욕심을 기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유교경〉에도 "참는 미덕에는 지계, 고행도 미치지 못한다. 능히 참음을 행하는 자는 이름하여 대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운이 오길 기대하고 늘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사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나 결정짓지 말고 자존심을 억제하고 욕심을 억제하고 짜증을 억제해 보십시오. 만사가 잘되고 언제나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늘 이기려고만 한다면 결국 부부간에 화목이 깨져 이혼이라는 파국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때의 울분과 한 때의 성냄을 참지 못하면 많은 실수가 있게 되고 그것은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참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원만해지고 그에 따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며 온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선을 하거나 기도정진하는 것도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참선과 기도를 하는중에 생기는 마를 이겨가는 것도 역시 인욕바라밀을 수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불교의 기본 행이며 인욕바라밀을 행하지 못하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시바라밀보다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욕은 힘든 수행중 하나입니다. 보시바라밀이 으뜸이라 하고 보시를 중요시 하나 인욕바라밀은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고 인욕을 하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화합이 잘 됩니다.

역대 조사 선사들께서도 모두 참고 인내하는 데서 도를 얻었고 불성의 자리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우바새계경〉에서는 "인내는 보리의 바른 인(因)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인내의 결실이다"고 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탓을 하지 않으며 또 탐욕심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욕바라밀을 뗏목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한다면 언젠가는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신행캘린더

7월 27일 (금)

■반세계화운동 특강=(사)좋은벗들은 오후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민주노총 박하순 씨를 초청 '2000년대 반세계화운동의 지향점과 논리' 주제 강연회를 마련한다. (02)587-8996

■영상창작캠프=양정청소년수련관은 29일까지 경남 합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01 청소년 영상창작캠프'를 개최한다. (051)868-0750

■영남불교대여름수련회=영남불교대학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감포 해황사에서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사경대법회, 구법행, 교리퀴즈, 서굴암 및 불국사 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53)474-8228

■여름불교학교=진주불교회관은 29일까지 고성 옥천사 보리수 쉼터에서 '부처님 마음달기'를 주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8회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055)747-0108

7월 28일 (토)

■시민 강좌=전북불교대학은 8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불교대학 큰 법당에서 '화엄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위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063)226-7878

■청소년불교학교=금강경독송회는 30일까지 경주 서라벌요에서 어린이 불교학교를, 포항 금강정사에서 청소년불교학교를 각각 개최한다. (02)742-0172

7월 29일 (일)

■강화 답사=터사랑은 강화지역 유적을 순례하는 답사를 떠난다. 당일 오전 7시 30분 양재에서 출발하는 이번 답사 코스는 동막해수욕장 갯벌탐사→부근리 고인돌→갑곶돈대→강화역사관. (02)725-1284

7월 30일 (월)

■우란분재 2재=능인선원은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우란분재 2재 입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9월 2일. (02)577-8500

■청소년여름캠프=정토회는 8월 5일까지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02)587-8990

8월 2일 (목)

■대불련 여름대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6일까지 충남 홍성 인근에서 '깨어있는 대학생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여름대회를 개최한다. (02)732-0239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박태원 교수의 45

불교로 보는 인생

몸과 몸 만남의 교육

눈빛으로 몇마디 대화로도 지식이나 기술 전수되는법

이미 입적해 버리신 그 분을 처음 뵙던 그 날의 그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선문(禪門)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인도해 주신 스승.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법은(法恩)이셨던 그 분을 만나러 가는 마음은 자못 긴장돼 있었다. 평소 깊고 자상하게 공부 길을 이끌어 주시던 분의 안내로, 서울에 잠시 들리신 그 분을 뵐 수 있었다. 대면의 순간, '아! 대단한 분이시구나. 확실하고 탄탄한 자기 살림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전율과도 같은 느낌이 왔다. 앞 뒤 분간도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 대학생의 눈이었건만, 단번에 신뢰가 가는 격(格)에서 풍겨 나오는 그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강하게 직감되었다. 넙죽 큰 절 올린 후 이어진 몇 마디 대화는 그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은 직접 만나야만 확인되는 느낌이 있다. 직접 대면이라야 정확하게 맛볼 수 있는 그 생생한 생명간의 감(感)이 있다. 그의 모든 이력이 담긴 눈빛, 말, 표정, 온몸에 배여 풍겨나는 독특한 분위기. - 한 생명이 연출하는 그만의 색깔, 그 생기의 개성은 몸과 몸이 마주하고 눈빛과 눈빛이 직접 교류해야 감(感)이 제대로 전달된다. 이런 저런 말로 분석하기 이전의 '곧장 다가오는 생생한 전체 느낌' 은 그렇게 직접 만나야 온전하게 확인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직접 만남' 에서 오는 교감' 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선생은 시시각각 변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강의를 진행한다. 선생의 강의 내용과 학생들의 이해 정도가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수업 분위기는 계속 변화한다.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읽어가면서 강의의 수위와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작품' 이 만들어진다.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몸과 몸의 직접 만남' 을 요구하는 것.

경험이 토대가 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에서는 이 '직접 만남' 이 필수적이다. 스승으로부터 도자기 굽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남김없이 배운 제자. 그가 자신 있게 만들어 내놓는 작품을 스승은 계속 아니라며 뭉개버린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제자에게 스승은 말한다. '알아야 할 지식은 전부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눈이 안 열렸다.' 제자의 작업을 계속 지켜보는 스승. 마침내 한 순간 어느 손놀림의 미묘 섬세한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이제 됐다. 비로소 눈이 열렸구나. 이제는 네 길을 가라.'

마음 공부의 사정은 더욱 그렇다. 마음의 이치가 어떻고, 무아(無我)며 공(空)의 도리가 어떻고, 사사무애(事事無碍)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연기법이 어떻고, 화두는 어떻게 드는 것이고 위빠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이론에 훤해도, 실제 선문(禪門)에 들어 스스로 공부를 지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아직 문 밖에서 다른 집 보물 헤아리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먼저 열린 사람은 후학의 발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언어 밖에서 안다. '말인 즉 그렇다마는--' 하며 내치고 있다가, 어느 때 남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엉뚱하다고도 할 어떤 계기에서 선학은 후학이 문안에 들었음을 문득 안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간접 만남' , 그 새로운 관계 맺기가 뚜렷한 문화 현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 새로운 만남의 방식은 교육 문화도 흔들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직접 대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사이버 교육이 힘차게 대두하는 중이다. 학교 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에 비교할 때, 사이버 교육은 그 지식 전달 방식이나 분량의 효율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계량적 효율성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대면(對面)교육 고유의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스승과 제자가 온 몸으로 교류하며 틔워 주었던 불문(佛門)의 사적(私的) 대면(對面) 교육의 공능은 교육의 본질과 닿아있다. 인간의 체취가 증발된 사이버 교육은 화려할지 몰라도 공허하기 쉽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수행일과

참불자의 길 울력



◇사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울력중의 하나가 모내기다.

울력은 사찰에서 대중들이 함께 모여 하는 육체노동을 말한다. 세간을 벗어난 사찰에서는 공양을 나르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짓는 일까지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힘을 합해 일을 하는 울력은 예전부터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으며, 사찰의 대소사는 모두 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울력은 예불, 참선 등과 함께 사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들의 수행 일과다.

울력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 도량의 앞마당을 깨끗히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길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 해우소의 인분을 치우는 일, 채소를 가꾸는 일, 모내기 하는 일, 볼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찰에서 울력이 많은 계절은 역시 늦가을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산사의 월동 준비를 위해 김장과 메주 담그기, 땔감 준비하기 등을 위해 대중들이 모여 팔을 걷어 부친다.

60세가 넘은 지금도 해마다 김장때면 울력에 캅가한다는 동봉 스님(충주 흥천사 주지)은 "겨우내 먹을 김치를 장만하기 위해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모여 시래기를 가리며 배추나 무우를 씻고 구덩이를 파는 등 힘을 합해 김장 울력을 한다"며 "승속을 떠나 새참도 먹어가면서 울력을 하다보면 어느새 우의가 돈독해짐을 느끼게 돼 좋다"고 말한다.

울력은 단지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의 방편만으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행의 한 일과(日課)로서 행해진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물론이고, 재가자들의 단기 출가 수련회에는 반드시 울력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함께 모여 땀흘리고 일하다보면 협동심도 길러지고 도반들간에 정도 쌓이게 된다.

울력의 정신을 잘 나타낸 것으로 중국 당나라때의 스님인 백장(百丈) 선사(749~814)가 남긴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을 꼽을 수 있다. 이 말은 백장 선사가 90세가 되어서도 다른 대중들처럼 울력을 하므로 제자들이 어느날 그의 농구(農具)를 감추었더니, 단식하며 그때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청소 · 농사 · 불사 등 도반간 情도 쌓여

원주 영천사 지상 스님은 "울력의 매력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럿이서 함께 하는데 있다"며 "혼자 해서는 힘들 것 같은 일도 여럿이 함께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라 손쉽게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울력의 전통은 많은 대중이 모여 있는 총림(叢林)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찰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재가불자들이 하는 봉사행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울력이라 볼 수 있겠다. 장애인 돌보기, 독거노인 무료 급식 봉사, 복지시설 수리 해주기 등 재가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하나의 울력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초동 정토회관 건립과정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열성적인 울력이다. 개원날까지 하루에 20~30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멘트와 목재 같은 건자재 운반, 현장청소 등을 도맡아 가며 1백50일 동안의 울력으로 회관을 세웠다. 울력의 힘이 아니었으면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불사다.

울력을 단순한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행의 연장선상으로 여기면서 대중들과 마음을 합쳐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불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㉓ 유통판에 대한 답서(2)

마음찾기는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일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이 도리(道理)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멀다 하여도 자기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보고 눈을 감아도 없어지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면 바로 말하고 입을 다물어도 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계합하려 한다면 벌써 십만 팔천리나 어긋나 버립니다. 그대가 마음을 쓸이 없는 바로 그곳이 가장 힘을 더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이 도를 배우는 자들은 대부분 힘을 써서 찾고자 하니, 찾을수록 더욱 잃게 되고 향할수록 더욱 어긋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도리(道理)는 마음의 실상(實相)이다. 마음의 실상은 실재(實在)이기는 하지만 상(相)이 없다. 실상이란 말은 허상(虛相)에 상대하여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반면에 우리가 상(相)으로 인식하는 모든 경계는 실재가 아니므로 허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相)을 쫓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실재를 알아야 한다.

마음의 실재란 무엇인가?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상이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마음이 움직이면 상을 만들어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도 없다.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마음은 있다.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세계상(世界相) · 중생상(衆生相) · 여래상(如來相)이 모두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말하고 · 침묵하고 · 보고 · 듣고 · 가고 · 앉고 · 눕는 행위들이 모두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진다.

마음은 이처럼 모든 행위와 작용을 하지만, 스스로는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파악함에 생각을 움직여서 파악하려 든다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상(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인데 다시 마음을 찾으려 하므로, 찾아보아야 그것은 마음에 관한 허상(虛相)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찾는 공부에서는 생각을 쉬어라고 하는 것이며,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함정이 있다. 생각을 쉬어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일어나는 족족 회피해버리고 문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텅빔을 추구하는 것을 공부라고 여기거나,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오직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여 그 대상에 의식을 잡아매고서 의식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공부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함정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므로, 생각을 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쉰다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알 수가 있는가? 지금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사람, 지금 마음을 찾고자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찾기는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노릇이다. 찾고 있는 자기가 바로 찾고자 하는 자기인데 또 무슨 자기를 찾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찾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모두 아무 일 없이 마음을 쉰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함정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공부의 어려운 점은 마음공부의 전 과정을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일이지만, 달로써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말이란 모두 상(相)이기 때문에, 상 아닌 실재를 상인 달로써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설명은 모두 방편일 뿐이고, 그 방편을 계기로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공부인의 몫이다. 그리고 이 몫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발심(發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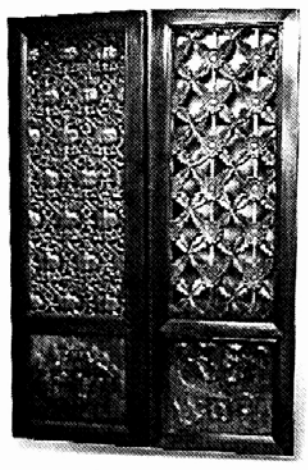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 입니다.

※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 의
033)263-1102
H·P 017)379-0590

* 영업사원모집 *

사찰문

용두

목불상

나한전

사천왕



최고의작품만을 최저의가격으로 공급하는 불자기업 성불조각원

이렇게 들었다

위폐반환

전범들과 함께 봉안 '치욕'

"어리석은 중생들은 법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 한량없는 악을 짓느니라"

<잡아함 맹귀경>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 고향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한국인 위패 2만1181기가 모셔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징용돼 끌려간 한국인들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한국인 징용자들은 죽어서도 '천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몸 바친 영령'으로 치부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혼모독이요, 민족의 수치이다.

정부가 17일 "징용자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위패의 반환을 공식 요청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를 일본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91년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 숨진 한국인 징용자들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이 알려진 뒤 10년만에 정부가 나선 것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해 온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정부의 강경 반환조치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 압박용이기 보다는 강제로 징병·징용 당해 이국에서 싸우다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유골과 의패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자는 인도주의적 고려가 본래의 목적이 돼야 한다. 일본 측이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법인이라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쟁 희생자인 한국인 위패를 전범자들과 함께 봉안한 모순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의 비도덕성을 공개하는 등의 작업과 함께 국제사회에 강제로 징용된 한국인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야스쿠니 신사에 위패가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관련 작업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1991년 이후 10년간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야 나섰지만 명확하게 위패반환 조치 등 한국민의 입장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희생자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일본정부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사과와 위패를 가족들에게 반환하는 참회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이르길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이다"고 말씀했다.

김원우 기자

여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불자 세상보기

여성권한 척도 '세계 61위'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정치-경제 참여하도록



김재인
한국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여성의 삶과 지위의 향상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모성보호법'이 제정됐고, 그 이전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과 '남녀고용평등법'(1997)이 개정됐다. 또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여성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유엔도 여성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성부가 설치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여성의 삶의 지위 향상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인간개발계획(UNDP)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29위, 인간개발지수는 31위이고, 여성권한척도는 61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그리고 남녀의 소득차이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한 것이다. 여성들의 보다 많은 사회진출이 필요하고, 정책결정직으로의 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각국의 정부와 여성 활동가들에게 "각종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유엔은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서의 젠더(gender)'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 여성 문제를 특수한 문제로 상정하고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웠던 전략(WID : Women in Development)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략(GAD : Gender and Development)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전환은 여성정책이 국가발전정책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은 행위자이며 여성은 수혜자로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GAD 전략은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주류화(Mainstreaming)'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주로 남성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왔던 정책을 의사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와 같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을 삽입하여 기획, 시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남녀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여성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을 위해 영유아 보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불교문화 배우고 느낄 번듯한 회관없는 서울

○…서울 어디에도 번듯한 불교문화회관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이웃 종교들은 수많은 회관 건물과 여러 개의 종합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이제 겨우 일산에 동국대가 종합병원 하나 세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비참한 현실인데, 어떻게 막대한 돈을 들여 세계 최대 불상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해인사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스님들의 폭력문제까지 나와 불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불교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불교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저 큰 절, 큰 불상만 좋아해 스님들로 하여금 대형불사를 능사로 여기게 한 죄를 참회하고, 스님들만 탓하는 죄 무엇보다 큰 죄임을 참회해야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 김대원>

해인사 대불조성 재고 중생 아픔아는 승가답다

○…해인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청동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대불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긴 가뭄에 이어 홍수가 나고, 노동자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노숙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중생의 아픔을 같이하는 것이 승가의 올바른 도리라면 지금 대불을 짓는다는 것은 부처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해인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생들의 것이다. 해인사의 진정한 주인은 스님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누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다행히 해인사가 대불 조성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반갑다. 부처와 중생이 한자리로 가는, 한 마음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 김정자>

특기 살리는 자원봉사 교계 연결장치 아쉽다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불자다. 얼마전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다니시는 복지관을 따라간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공분야를 살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에 복지관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자원봉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곳이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복지관에서는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어머니와 어머니 도반들의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 결심했었는데, 정작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적재적소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 이상희>

학교서 특정종교 교육 엄중 감시와 처벌 절실

○…며칠 전 교계 신문에서 종교편향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한 고발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데 이어 이에 대한 항고마저 다시 기각돼 그 지역 불교계가 재항고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으며,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의사와는 달리 특정 종교교육을 하였다면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하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특정종교를 주입시키는 것 역시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불자들이 엄중히 감시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서울 송파구 · 양환우>

기고

"묵언은 사람을 그윽하게"



맹란자
수필가

산문을 들어서면 벌써 냄새부터가 다르다. 향긋한 풀냄새, 싱그러운 나무냄새. 가슴속이 쏴아 한다. 복(伏)중인 지금 그래서 우리는 푸르른 산이나 초록빛 바다로 나아가 안긴다. 생명의 충전, 말 없는 교신이다. 자연은 말 없는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준다.

여름의 한마당, 나는 지금 산사에 있다. 금새 쏠린 듯 빗자국이 남아있는 깨끗한 마당을 지나 후원으로 돌아드니 거기 '묵언(默言)중' 이란 팻말과 눈이 마주친다. 발소리는 물론 숨소리조차 가다듬게 된다. 청량한 한줄기 바람이 가슴 위로 지나간다. 산문에 들어선 기쁨을 느끼게 해 준다. '묵언'이란 글자가 사람을 그윽하게 만든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돌 틈새로 낮게 피어난 작은 꽃들이 눈길을 끈다. 생명이 환희롭다. '아, 거기 꽃이 있었군.' 소리 없이 피고 지는 자연. '희언자연(希言自然)'을 생각하고 있는데 왁자한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다가온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라앉지 않는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 어쩌지? 여기는 지금 '묵언 중'인데. 나는 속으로 조바심이 났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묵언을 실천해보겠다고 벼르던 일이 떠올랐다. 안을 들여다보려는 수행의지도 아니요, 그저 소리 없는 고요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희언자연.' 소리 없는 것만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말 없는 가르침. 자연은 그냥 숨이나 쉬다 가라고 한다. 가슴속이 쏴아 하도록. 그리고 텅 비어있으라 한다. 말도 덜어내고 욕심도 덜어내고 결국에는 우리의 과실까지 덜어내게 된다. 묵언은 우리를 편안히 한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침묵의 세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말 수도 줄이고, 이제 욕망의 심지도 낮추고 또 낮추자. 인생은 조금 줄여서 사는 것이 곧 조금 초탈해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거질 대로 우거진 자연의 푸르름 속에, 그냥 심신을 한 번 푹 담구었다가 가라 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쭝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보(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사·부·대·중

매미 소리가 높다



노귀남
협성대 강사 · 국문학

언제부턴가 도시 매미가 야광 때문에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밤에도 운다. 밤 동안에 10룩스 이상의 불빛이 비치면, 벼도 스트레스를 받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도시는 날마다 24시간씩 돌리며 일을 하지만 아웅다웅 더 가지려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자연에 가하는 폭력과 스트레스로 어쩌면 그들도 집단 자살과 같은 '멸망 충동'으로 치달을지 알 수 없다. 아니, 실제로 해마다 수십 종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티베트의 초펠스님한테서 인과법의 수행을 간곡하게 들었다. 티베트 사람들은 세상에는 절대로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고 업과 공덕에 따른 과보가 분명하다는 믿음이 아주 깊다고 한다. 그래서 자비와 봉사로 중생을 위하고, 스스로는 중생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단다. 성불이 소원인 삶과 절에 가면 복을 빌기 바쁜 인생의 앞날이 각각 어떠하겠는가.

첨단 문명의 길을 가고 있는 현대인의 인과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축생도를 좇고 있는 듯하다. 여성의 x염색체끼리 결합해 딸만 낳을 수 있다는데, 이 일은 암수 한몸의 생물과 꼭 닮았다. 돼지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기이식은 인간과 축생이 몸을 서로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준다. 만물의 영장과 미물을 경계짓기 어려운 이런 일에서, 동체대비하는 생명의 가르침을 다시 밝혀보는 공부는 뒷전으로 미룬다. 늙지 않겠다고 모습에 더욱 집착하며, 무상하고 공한 인과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은 자신을 영원히 살 몸처럼 탐한다.

어리석음이다. 꿈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벽장에 보관해 두었다. 그걸 내일 행사 때 쓴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그랬던 것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모순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모른다.

자연대로의 목숨과 이치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7월의 매미소리를 들으며 되돌아본다.

목탁소리

내용없는 워크숍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이 14~15일 양일간 봉은사에서 '사찰에서의 공동육아와 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여성불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교여성개발원 설립 초기부터 추진해 오던 '사찰내 놀이방 설치 홍보'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다.

여성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찰내 유아시설 설치는 여성들의 신행생활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계획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현재 사찰내에 설치된 유아보호시설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여기서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탁아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세워 각 사찰에 홍보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두 명의 발제자로 나온 연사의 강의 내용이 근대 육아교육의 문제점과 사찰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만 초점을 맞췄다. 물론 육아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어린이집과 성격이 다른 사찰내 탁아시설에 대한 한두개의 사례 정도는 언급을 했어야 했다. 또 주최측에서라도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정확한 방향제시를 했어야 했다. 이 모두가 미진하다보니 분과토의에서 조차도 핵심을 벗어나 참석자들이 개인적인 궁금점을 묻는 것으로 어설프게 마무리 됐다.

각 사찰의 유아보호시설 설치는 여성들의 신행을 독려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어릴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내실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희귀 토종식물 695종 · 천연기념물 38종 서식
내원사 · 금봉암 등 12 수행도량 곳곳에 위치

파헤쳐진 천성산…무너지는 수행환경



◇내원사의 천성산 임도 원상복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 반응은 형식적인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양산시가 내원사 경내지 임도 복구를 위해 성의없이 심은 소나무들.

양산시 불법임도 복구 말뿐 공사강행
고층 습지 훼손·계곡 수질오염 가속
녹색연합 등 20여단체 대책위 결성

비구니스님들의 참선도량 내원사(주지 혜등)가 위치해 있는 천성산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수행환경 수호 차원에서 지역 스님들과 환경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관광지 개발등 지자체의 수익을 위한 개발논리에 맞서 줄기차게 대항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효사상 깃든 화엄벌

특히 대부분의 전통 사찰이 수려한 자연경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의 수호는 미래에 쿨러쥘 국민들의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일과도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 개설로 습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천성산 보호를 위해 전면에 나선 내원사 스님들의 결단은 책임있는 수행자의 본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16일 내원사와 20여개의 환경단체들은 내원사에서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 임도 개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공동대책위)' 결성식을 갖고 앞으로 천성산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행성지 천성산을 보호하고 참선도량 내원사의 수행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 사찰의 노력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자연생태계 보전지구

해발 821m의 천성산은 1300여년 전 원효스님께서 화엄경을 설했다는 유래가 있는 화엄벌을 비롯 국내 최고 생태계 보고인 화엄늪, 밀밭늪이 있는 산이다. 또한 원효스님에 의해 창건된 내원사를 비롯 금강대 금봉암 안적암 미타암 등 12곳에 이르는 수행도량에서 불법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불교성지다. 특히 내원사는 경봉, 향곡 스님 등 근대의 대 선지식들이 정진했던 곳으로 6.25 때 소실되었다가 50년대 중반 수옥스님에 의해 다시 세워져 현재 70여 비구니스님들이 참선삼매에 들고 있는, 대표적인 비구니참선도량이다. 천성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아름다움을 천가지 연꽃 형상과 같다고 묘사했으며 소금강산이라고 했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우며 골이 깊고 그윽해서 수행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성산 화엄늪과 밀밭늪 고층습지는 기존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한 대암산 용늪이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왕등재 고층습지에 비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뒤지지 않는 지역으로 695종의 희귀 토종식물과 천연기념물 38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 화엄늪 고층습지에는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진퍼리새, 잠자리난초 등의 희귀식물과 환경부 법적 보호종인 표범장지뱀, 한국특산종인 도룡용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참매, 황조롱 등의 천연기념물과 꼬마잠자리 장수풍뎅이 등 다수의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사 박물관이자 표본관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천성산 훼손과 내원사 수행환경 파괴의 중심에는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개설과 습지보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개발논리가 버티고 있다. 양산시는 임도를 내면서 화엄늪 습지 바로 아래까지 도로를 개설했는가 하면 내원사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침범하면서 불법적으로 임도를 개설했다. 곳곳에 개설된 임도는 폭이 3m, 5m 심지어는 15m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포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또 내원사 경내지에 개설된 임도는 총 4km에 달해 임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소음과 매연은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의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내원사 계곡의 수질 오염 및 수원 고갈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양산시의 임도 개설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해 개설한 임도에 내원사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부터. 경내지를 침범, 불법으로 임도를 개설하다 내원사의 강력한 반발로 임도개설을 중단한 것. 그러나 양산시는 임도개설 중단과 복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5월에는 시가 주도하기로 했던 철쭉제가 내원사의 항의로 무산되자 민간단체 주최의 철쭉제를 묵인, 고층습지 훼손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市 관광수입에 눈멀어

이처럼 천성산이 양산시의 관광화를 위한 임도개설로 파헤쳐지면서 훼손이 심화되고 가속화되자 내원사 스님들과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성산 보호를 위한 노력에 나섰고 16일에는 천성산공동대책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6일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 산감 지율스님, 양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한산악연맹, 녹색연합 등 20여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성식에서 천성산공동대책위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지율스님을 추대하고 결성선언문을 채택한 후 불법 임도개설과 습지 훼손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작성, 양산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 화엄늪을 발견 보고했던 정우규 박사는 "천성산은 8등급 이상의 자연림으로 개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임도 개설로 습지의 특징인 스펀지층이 사람들에 의해 다져져 있고 풀이 여기저기 베여져 훼손이 심각하다"며 양산시와 환경부의 습지 보전 노력을 촉구했다.

양산시는 "관광화를 위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습지 보전은 환경부의 일이라 지자체인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방침을 결정짓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양산시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천성산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불법 임도 원상복구 촉구와 개발저지 △불법 임도 개설에 대한 법적 고발 △습지보전지구 지정 유도 및 촉구 △임도 폐쇄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오는 30일 내원사 스님들과 각 지역 환경단체 등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양산시청앞에서 '불법적인 임도 전면 원상복구와 천성산 개발과 관광개발 백지화'를 위한 시위를 벌이는 등 천성산을 지키는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천성산 지키기 대중동참 기대"

대책위 공동위원장 지율 스님



"천성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임도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천성산을 50번도 더 오르내리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천성산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은 소극적이던 사중스님들이 마음을 내어 동참하게 된 것과 환경단체 등이 적극 힘을 보태어 주는 것 모두가 그 일심이 만들어낸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산을 보고 아픔을 느낀 사람이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한 지율스님은 "임도로 산을 연결해 관광지화하려는 양산시의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는 만큼 산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된 마음으로 천성산 보호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2004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⑱

다음은 보살이 중생과 함께 등사섭(同事攝)하기 위한 제7, 등수순일체중생회향(等隨順一切衆生廻向)의 게송이다.

"보살이 많은 중생 제도하려고 가장 좋은 회향들을 항상 닦아서 삼(三)계의 중생들을 안락케 하며 장래에는 위없는 과(果) 이루게 하고 / 이와 같이 진실한 모든 불자들 여래의 법으로서 화하여 난 것 모두가 능히 이렇게 잘 회향하면 세간의 모든 의혹 다 없어지리."

두 번째 게송의 '참된 불자는 여래의 정법과 교화를 받고 태어난다'는 내용은 대승경전의 기본사상이다. 〈법화경〉 방편품에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 참된 아들이니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며 법(法)으로 부터 화(化)하여 나서 불법의 부분을 얻은 줄 알겠나이다(今日 乃知眞是佛子 從佛口生 從法化生 得佛法分)"라 그 말씀한 것도 유명한 내용이다.

다음은 제8, 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의 내용이다.

"그지없는 삼(三)세와 모든 세계와 일체의 중생들과 여러 가지 법 그 속에 있지만, 있는 데 없어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더라. / 비유하면 진여의 본성품같이 보살이 이와 같이 큰마음 내니 진여의 있는 데는 모두 다 있어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더라."

다음은 제9, 무착무박해탈회향(無着無縛解脫廻向)의 내용이다. "한 몸 속에 온 법계의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여도 증생계는 증감이 없으며, 한 몸과 같이, 내지 법계에 가득한 모든 몸도 역시 그러하니라.

또 제10, 등법계무량(等法界無量廻向)에서는 이런 게송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회향에 머무를지니 이 불자들 보현이라 이름하리라 / 한 털로 허공 재어 끝낼 수 있고 온 세계의 티끌도 셀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신선인 여러 불자의 머무른 행과 원은 측량 못한다.

청량 스님은 소에서 밝히기를, 여기서 덕이 깊고 뛰어남을 밝힌 것은 먼저 등지이상(登地以上)의 보살행이기 때문이니 첫째, 원융한 가르침이며 둘째, 뛰어난 원력을 의지한 까닭이다(一, 圓融敎故 二, 約殊勝願力故)라고 하였다. 비록 십회향품에 설해진 내용이지만 원력이 수승한 보살이라야 가능하다는 내용이리라.

화엄경에서 십회향품은 경문에 그 사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신라대의 원효 대사는 분황사(芬皇寺)에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집필하다가 십회향품에서 절필(絶筆)하고 자신이 직접 보살행을 위해 중생 속에 뛰어들어 난행고행의 보살행을 실천하여 거지나 서민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명호를 알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우리는 불교의 회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회향을 잘 하면 모든 중생이 불법을 알도록 이끌 수 있지만 회향을 잘 못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절집 속담에 "참된 선지식인지 아닌지는 거화(擧火) 때에야 비로소 알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이렇게 하여 다섯 번째 도솔천궁 설법이 끝이 난다(曾住芬皇寺纂華嚴 至第四十廻向品 終乃絶筆〈삼국유사 권4〉 元曉不羈, 或制疏以講雜華 或摭琴以樂祠宇 或閭閻寓宿 或山水坐禪 任意隨機 都無定檢〈송고승전 권4 신라국황룡사원효전〉 참조)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회향 잘해야 세간의혹 벗어

원효 스님 속세 뛰어들어 보살행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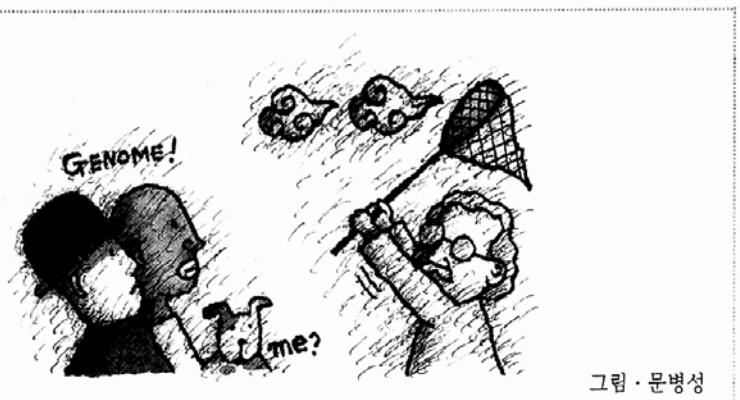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게놈 프로젝트 환상은 금물

불교와 과학 〈37〉

생명공학

유전자-질병 인과관계 복잡해 규명 어려워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 불리는 질병이 있다. 일종의 유전병으로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이 빈혈증은 어떤 유전자 혈액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돌연변이체는 혈액에서 산소를 날라다 주는 헤모글로빈의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돼지 않아 강한 빈혈 증세를 일으킨다. 어린이 뇌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졸증에 걸리고, 살아 남은 어른이라도 심장병이나 성장 저해 현상 등 인체 손상이 매우 큰 유전병이다.

이 유전병의 원인은 특정하고 단일한 어떤 유전자의 변형 때문이다. 이렇게 한 특정 유전자가 특정 형질을 유발시키는 유전의 현상을 "단순 형질의 유전"이라고 부른다. 단순 형질의 유전은 한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그 단백질은 한 가지 특정 형질을 발현시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단순 형질의 유전 이야기를 여기서 쓴 이유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결과가 뉴스 거리로 떠들썩하게 나온 요즘 뭐든지 한 가지 형질이나 질병의 원인이 특정 단일 유전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돈구름 잡는 식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환상이나 과학적 신화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특정 단일 유전자가 특정 형질이나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최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환상은 유전자 결정론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쇠, 비만 혹은 두뇌 아이큐나 심장병 등의 특정 형질을 유발하거나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가 존재하여 그 특정 유전자의 DNA 구조의 암호만 밝힐 수 있다면 모든 인간 생명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과학기술이 특정 형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유전자 결정론이다.

물론 이미 40년 전에 발견된 겸형 적혈구 빈혈증은 그 유전 메커니즘이 매우 간단한 "단순 형질의 유전"의 한 임상 사례로 일종의 유전자 결정론의 실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인간의 전체 형질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겸형 적혈구 빈혈증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히 유전자 결정론의 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 빈혈증은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이 지역은 원래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다. 아직도 말라리아는 전지구적으로 볼 때, 해마다 2억에서 3억 명 정도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겸형 적혈구 유전체를 지닌 사람들은 말라리아 병원충에 대하여 강한 저항력을 나타내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특정 유전 형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체를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 그 반쪽의 두 유전체가 모두 겸형 적혈구 유전체일 경우에만 빈혈증 유전병이 발병한다. 한쪽만 겸형 적혈구인 경우는 빈혈증 발병이 없고 그 대신 예방접종 없이도 그 무서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된다. 참으로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가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의 거센 풍토병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는 결코 현대 생명공학의 신화인 유전자 결정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순전히 과학이론으로만 따진다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유전체를 소유한 사람들이 강한 질병 증세 때문에 빨리 사망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유전체 소유 환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질병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없어진다면 아마도 말라리아 질병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고 끌내는 빈혈증이 아니라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 죽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살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유전자는 그렇게 결정론적이고 단순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형질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겸형 적혈구 빈혈증조차도 이럴 진데 다른 노쇠현상, 어떤 유전질병 등등 대부분의 형질을 나타내는 복합 유전체들은 유전체끼리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유전체와 외부 환경과의 섭동작용의 결과로 표현형질이 드러난다. 그 내적인 상호작용과 외적인 섭동작용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히 일의(一意)적인 과학적 인과작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의 게놈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명공학은 모든 유전자 암호를 다 풀 수 있다는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한 기술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아마도 불교의 인과관계를 몸으로 익히고 있는 과학자라면 혹은 그런 시민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고 일의적인 결정론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과학 뉴스 토픽의 속임수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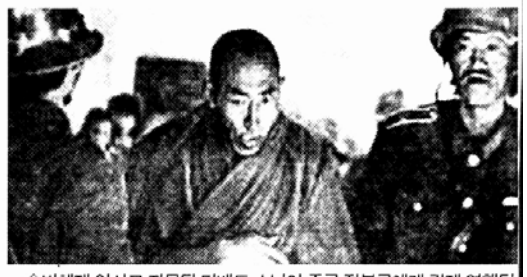
스님 1432명 사찰 추방 의문사 · 강제 낙태도

지구촌 불교 / 中 티베트 탄압

베이징(北京)이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티베트 망명정부나 서방 일부 국가와 인권단체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난하는 가운데, 15일 '중국의 티베트 및 달라이 라마 탄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다.

망명 정부 산하기관인 티베트인권민주센터(이하 TCHR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종교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인종차별, 아동 및 여성인권 침해 사례 등을 상세히 밝히고, "국제사회가 2008년 하계 올림픽의 베이징 개최를 묵인한 것은 경제 성장에만 눈이 팔려 중국정부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TCHRD의 보고서에 따르면, 티베트에 대한 중국 공산정권의 탄압의 정도는 지금까지 확인된 10건의 고문 관련 의문사 중에서 6건이 지난해에 발생할 만큼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또 작년 한해 모두 16건의 실종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형무소와구치소에서는 구타, 전기고문, 족쇄 채우기, 강제노동, 독방 감금, 치료 거부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티베트 스님이 중국 정부군에게 강제 연행당하는 모습.

망명 티베트인권단체 '보고서' 펴내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 벌이겠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무신론' 3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중국 본토와 티베트자치구 등에서의 종교 박해도 한층 강화돼 1,432명의 스님이 사원에서 추방된 점과 제11대 판첸라마를 포함한 615명의 정치범과 양심수 가운데 79%가 스님인 점 등을 소상히 전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티베트족을 소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티베트 현지 거주 중국인과 티베트 원주민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작년 한해 2,474명이 티베트를 등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하계 올림픽 베이징 개최 결정과 관련해 티베트 청년의회는 국제적인 불참 캠페인을 전개할 뜻을 밝혔고, 국제인권단체나 스웨덴, 프랑스 등은 중국 인권상황에 대해 면밀한 감시에 착수할 분위기다. 베이징 올림픽 불참 캠페인을 공언한 티베트 청년의회는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캠페인은 티베트인들의 의무일 뿐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의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울리카 메싱 체육장관은 "종교탄압은 물론 공개처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올림픽 개최지로 선택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공급 스폰서 업체들에게 중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토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불교세계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불상 만든 옛 장인의 마음읽기



시간 앞에서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그 무엇도 세월의 풍화를 견뎌내진 못한다. 몇 백 년이고 제자리를 지켜온 바위도 언젠가는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 나무로 만든 불상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벌레 먹고 썩어 망가진 불상을 되살리는 일을 50년 넘게 해온 이가 있다. 일본에서 1급 문화재 보존수리전문가로 불리는 재일동포 고준영(82 · 일본 이름 다까하시 도시오)씨다. 그가 올 3월 승보종찰 송광사에 우리 나라 최초로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성보보수교습원'을 열었다. 고국의 제자 6명과 함께 먹고 자며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장인의 마음이다.

국내 첫 성보보수교습원 고준영 원장

"얼마 전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을 수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상은 시대에 따라 재료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표정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 만든 사람의 불성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만 갖고는 좋은 불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도 견뎌내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인 셈이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진짜 장인'이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때문에 그의 교육은 철저함과 엄격함을 추구한다.

그가 95년 일본 시가현 오쓰시(大津市)에 있는 온조지(園城寺)에 전통기법교습소(98년 '존상수복원'으로 개칭)를 열었을 때 전국에서 몰려든 교습원생이 57명. 하지만 2년 반만에 35명으로, 다시 17명으로 줄더니 지금은 6명만이 남아 현장에서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해 백 년, 이 백 년 뒤까지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문화재를 맡긴다는 것은 훼손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송광사에 문을 연 성보보수교습원도 마찬가지다. 기초교육만 3년이다. 석고데생과 자기 손 그리기, 점토로 불상 빚기, 나무로 깎기를 1년씩 배우게 된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현장실습을 통해 수리기술을 배우게 된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데생 수업이 계속된다. 오전엔 자기 손을 그리고, 오후엔 석고 데생을 한다. "손은 인체 가운데 질감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고씨는 손 그림을 보고 누가 봐도 무슨 동작인지 알 정도로 질감을 살려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교습원이 키우려는 것은 최고의 장인이지 학자나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온조지에서 교습원생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그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장인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내 노력이 보상받는 일"이라고 잘랐을 정도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준영 씨는 그곳에서 공업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만주에서 회사를 다니다 일제가 패망하던 해 일본에 건너갔다. 문화학원 미술과를 졸업하고 도쿄예술대에서 미술해부학을 공부한 뒤 4년간 일본 전국 절을 떠돌며 불상을 연구했다. 그는 60년부터 87년까지 일본의 보물이 모여있는 교토 국립박물관 미술원 국보수리소에서 문화재복원 전문가로 일했다. 73년부터 13년간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교토 33칸당 1,000불 가운데 505구의 관세음보살상을 수리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문화재 되살리기 50년
손거쳐 간 불상 3천구
"日 국보급 불상 백제인작품"

송광사서 제자 6명에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기술과 장인정신 전수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작업은 특별나다. 수리할 불상을 하나하나 그려둔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어느 부분을 수리했는지 일일이 표시해 둔다. 후학들을 위한 배려다. 교토 33칸당 관세음보살상을 수리하면서 남겼던 그림은 나중에 대관 그림집으로 출간됐다.

그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33칸당 1,000불 수리 당시 그는 신분증을 잃어버려 경찰에 잡혀간 적이 있다. 그때 도쿄예술대 교수가 "그가 손을 놓으면 다른 기술자들도 쉽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보낸 탄원서를 그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도쿄예술대 니시다 마사하키 교수는 "수리뿐 아니라 조각, 미술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준영"이라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의 존재는 특별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가진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술에 앞서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최고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소중한 문화재를 다룰 수 있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들고 다니는 강의 노트 속에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고찰, 불교상에 대한 분류 및 특징 등 기술적 주제뿐 아니라 윤리학, 인간성 등에 관한 글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다. 제자들을 평가할 때도 실적, 능력과 함께 책임감과 신뢰성, 적극성, 성실성 등 인간성과 제작태도를 빠뜨리지 않는다.

70년께 일본인 다까하시 도시오로 귀화한 그의 손을 거쳐간 불상은 3,000구가 넘는다. 일본의 국보급 불상 가운데 그가 손을 안 댄 불상이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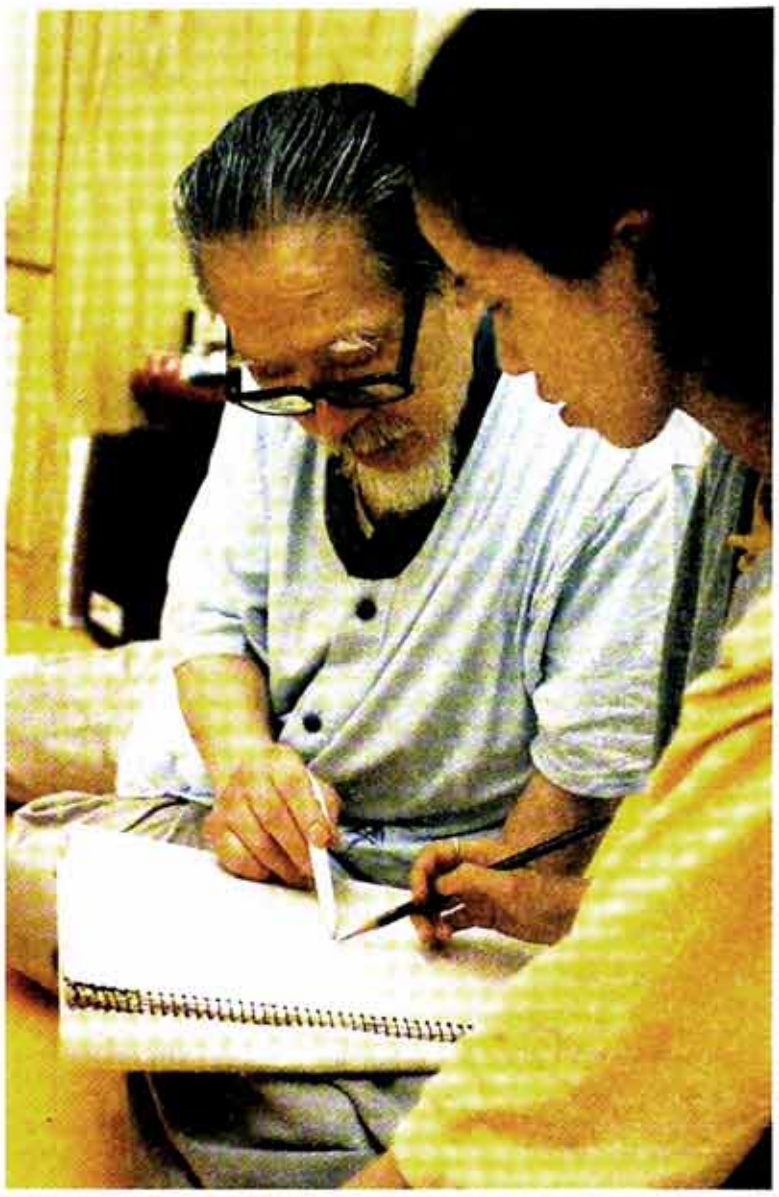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본에 남아 있는 국보급 불상의 대부분은 옛날 백제인이, 백제인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일본 문화재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백제인이 만든 불상을 되살린 것입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관심은 어딜 가나 문화재에 쏠린다. 이끼류가 끼어 시커멓게 변해 버린 석탑과 부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가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는 얼마 전 전남 보성 대원사를 다녀오는 길에 본 것이라며 모서리가 깨져 나간 석불 그림 하나를 내밀었다.

"문화재는 그 민족의 문화정도를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몇 백년 뒤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만한 문화수준과 그것을 지켜낼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훼손한 대로 놔둔다면 문화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문화재를 남긴 민족이라면 자기 선조가 만든 문화재를 잘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장인을 만들고 싶다"는 결심 하나로, 80 넘은 노구를 이끌고 모국에 성보보수교습원을 연 이유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문화재를 다룰 수 있다는 고준영씨. 때문에 그의 교육과정은 엄격하고 철저하다. 데생을 통해 누가 봐도 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고준영씨가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42호)을 수리하고 있는 모습. 천년전 불감을 만든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장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기술 못지않게 강조하는 건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 교육시간이 지나면 그에게서 친할아버지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교습원생들은 말한다.

성보보수 교습원은?

기본교육과정 3년
송광사 비용 지원

지난 3월 송광사에 문을 연 성보보수교습원은 우리 나라 최초로 목조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부처님이나 나한상을 조성하는 재료로 폭넓게 쓰여왔고, 상당수 유물이 전해오는 데 비해 이를 보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없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습원의 기본 교육과정은 3년이다. 데생, 점토로 불상 빚기, 나무로 불상 깎기를 각각 1년씩 배운 후 현장실습을 통해 본격적인 보존수리 기술을 배우게 된다. 수강료는 없고 점에서 모든 비용을 대준다. 이론학습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복원기능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곳은 우리보다 문화재 보존 정책이 앞선 일본에서도 드물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준영씨는 "문화재 보존수리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점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교습원생은 6명.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들은 고씨에게 직접 불교교리와 불교사, 불상의 특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기 손모양을 그린다.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는 석고데생이다.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1년이 지나도 질감을 표현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교습원은 송광사가 지난 해 재일교포 문화재 보존수리전문가 고준영씨를 초빙해 실시한 국보 제42호 보조국사 목조삼존불감 보존수리를 계기로 설립됐다. 수리를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드나들면 고씨가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후진양성에 바치고 싶다"고 밝혔고 이에 감격한 주지 현봉 스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주지 현봉 스님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는 내년 3월까지는 실습장소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문화재청 등에 교습원을 정식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절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모집기간은 지났지만 올 여름까지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습원생을 더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수박즙

7월 삼복의 뜨거운 날이었다. 명성황후가 첫아이의 명복을 빌고, 둘째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금강산과 지리산의 스님들께 기도를 올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계룡산 서쪽의 신원사에 직접 불공을 올리러 행차한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왕비의 모습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경오년 11월 태어난 원자는 봄행히도 쇄항(鎖肛 : 배변불능) 증상을 가진 불구자로 태어나 사흘만에 죽고 말았다. 첫아이를 잃고 나서 황후는 불면증과 손발이 통통 붓는 데다 가슴마저 답답하고 제대로 눕지도 자지도 못하던 터여서, 왕실의 금기마저 깨고 계룡산까지 몸소 불공을 들이러 나선 것이다.

길가의 수박밭 두둑 위로 파랗게 반들거리는 수박들은 마치 아이를 잉태한 산모의 둥그스럼한 배를 연상케 하는 정경이었다. 그 순간, 명성황후는 첫아기에 대한 복받치는 그리움으로 흔절하고 말았다.

어의는 황급하게 신원사로 명성황후를 모시고 비상약을 처방했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 노인이 수박즙을 올려보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읍소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의가 수박즙을 명성황후의 입안에 흘려보내자, 잠시 후 황후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고 맥도 살아났다. 그 후 명성황후와 고종은 여름이면 잠들기 전에 수박즙을, 겨울이면 동치미국물을 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수박은 4,000년 전의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는 13세기 경 홍다구(1224~1291)라는 사람이 개성에 심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94.5%가 수분인 수박에는 아미노산과 포도당,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 또, 이뇨작용이 뛰어나 신장질환에 좋다. 그 외에도 주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없애주며, 마음 속에 쌓인 홧병에 좋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갈증 없애주고 피로 회복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수박, 황설탕(꿀) 약간

요리법 잘 익은 수박 속을 대나무 숟가락으로 긁어낸 후, 체에 걸러 즙만을 그릇에 담아 낸다. 맛을 내려면 황설탕 약간을 넣어도 좋다.

수박의 파란 겉껍질을 도려내어 잘 말린 다음, 생수를 넣고 우려내면 수박차가 된다.

하얀 속껍질 부분을 생채로 무쳐서 먹어도 별미.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진각국사의 '佛覺華'

진각국사는 명종8년(1178)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최식(崔寔), 법명은 영을(永乙), 법휘는 혜심(慧諶), 법호는 무의자(無衣子), 시호가 진각(眞覺)이시다.

국사는 편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유년시절부터 불가에 출가하기를 원했으나 어머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국사는 항상 불경을 외웠으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24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갔으나 오래지 않아 모친의 병보(病報)를 받고 귀향하게 된다. 1년여 동안 병간호 끝에 모친이 세상을 뜨자 국사는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 바로 출가하게 된다. 그때 보조국사는 조계산에 수선사를 열어 그 도화(道化)가 한창이었고, 국사는 보조국사를 찾아가 불문에 귀의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출가를 한 국사는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피나는 고행을 하였다. 수참했던 곳은 지리산 금대암이었다. 3년간의 용맹정진은 글자 그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행이었다. 3년간의 고행정진을 마치고 억보산 백운암(白雲庵)에 머물고 있는 스승을 찾았다. 보조국사는 "그동안 수행은 어떠했는고. 불법은 무엇이고, 우주는 무엇인가." 이에 국사는 돈오(頓悟)하여, 화엄선(華嚴禪)의 대각(大覺)을 이루었다.

수선사 2세로 선종의 주춧돌을 놓아다가 천 칸집을 짓게끔 국사에게 인가를 한 것이다. 보조의 수행은 회광반조(廻光反照:진여자성인 인간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 진심(眞心)을 통한 불성을 말함), 돈오점수(頓悟漸修:홀연히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되 이를 부동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행정진을 하여야 된다는 뜻), 정혜쌍수(定慧雙修 : 적연부동(寂然不動)의 마음과 초월적 관조의 지혜를 일체화하여 무심의 경지에 이름을 말함), 간화경절(看話徑截 : 일체의 지혜를 떨쳐 버리고 오로지 조사들의 활구를 참구함으로서 무심합도(無心合道)의 깨침을 말함)이다.

오도송에서 볼 수 있듯이, 국사는 스승보다 좀더 실천적인 간화 중심의 수행을 견지하고 있다. 스승이 수행에 있어 병진수행주의(竝進修行主義), 심외무법 성외무법(心外無法 性外無法)을 말했다면, 국사는 색신(色身)으로 나를 보는 것도 사도(邪道)요, 보리와 열반이 원래 청

활구 참구 '간화경절문' 주창

"직관통한 자아발현이 깨침"

정하다 하여 실천수행이 없는 것도 사도라고 말했다. 또한 국사는 화두 참구에 있어 사구(死句)에 들지 말고 활구(活句)의 본바탕에 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승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으로 돈오후(頓悟後)의 정혜쌍수를 말하는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을 선(禪)에 흡수, 교(敎)에 의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으며, 이와 함께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일체의 앎음을 끊고 활구만을 참구하는 간화경절문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국사는 간화경절문만을 강조하였다. 언설이나 경전에 의한 수행보다는 간화에 의한 참선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정혜쌍수까지도 간화에 포함시켰다. 또한 논리적 과정을 차단한 직관에 의한 돈오를 강조한 것이다. 즉 일심수행주의의 강조이다. 일체의 집착을 놓아 버리고 심즉불(心卽佛)의 경지에 들 것을 무심(無心)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국사는 수행에 있어 선관(禪觀)은 자독청정(自獨淸淨)의 나한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망상을 여읜 무심(無心)이 곧 심이며 무심이 자기실존의 주체임을 강조 관념보다는 직관(直觀)을 통하여 내적 자아발현이 깨침이라고 하였다.

이에 보조국사는 "내 이미 너를 얻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씀하였다.

불각화(佛覺華 : 부처님의 꽃)

普光明殿是吾家(보광명전시오가)
三法一源初睡起(삼법일원초수기)
百十由旬一念收(백십유순일념수)
世間時刹都爲爾(세간시겁도위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곳(보광명전)은 그대로 나의 집이요,
삼법(敎法 · 行法 · 證法)의 한 근원에 첫잠이 깨다.
멀고도 너무 멀어서 생각하기 힘든 거리 한 생각에 거둬들이니,
세간의 시간이야 모두 헛된 것이구나.

가까이서 뵌 큰스님

원명스님

대구 관음사 조실

"집착 놓아버리면 절로 행복"

대구 관음사에 주석하고 계신 원명(元明)스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은 세찬 장마비가 그친 터라 산하에 푸르름이 선명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관음사는 도심사찰이다. 원래 송광사 대구 불일회 회원 3~4명이 관리하던 관음사는 68년 원명스님이 도심포교를 발원하면서 현재는 대구시 포교거점 사찰로 성장했다.

관음사에 들어서자 첫눈에 들어오는 아람드리 나무는 마치 스님의 지역포교 원력을 보여주는 듯 힘차고 듬직했다. 휴지 한 조각 보이지 않는 사찰경내도 깔끔하고 엄격하신 스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듯하다. 68년부터 관음사에 주석하시며, 매일 오전시간을 기도수행으로 살아온 탓일까.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운 한여름에도 간절한 염원으로 관음사 법당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있다.

스님을 친견하고 먼저 기자가 고교시절 순천 송광사에서 친견했던 구산 큰스님(九山, 전 송광사 방장) 얘기를 꺼내자 원명스님은 손을 내저으셨다. 스님은 상(相)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다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이르셨다.

스님은 "기도나 참선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심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복잡한 생각을 쉬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쉬어야 부처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기라. 수행정진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라 할수 있지요."

부처님 조사님 말씀이 모두 같고, 다양한 수행법과 기도법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편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공부하면 저절로 좋은 마음 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스님 말씀의 요지였다.

"부처님의 법을 배워 깨달음의 바탕위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면 깨닫는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그 법에는 당당하고 조금도 굴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진리의 고향이라. 그 묘한 자체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산하가 모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기라. 알겠어요."

스님은 지역감정, 집착, 아집과 상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회와 민족의 발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 때 그 것이 부처님 진리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며칠 전 종단에서 해인사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보내왔다며 서로 싸우지만 말고 참회하고 상의해서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병술년(1946년) 가을 가야산 해인사가 가야총림이 되면서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효봉스님을 해인사에서 5년간 시봉했다는 스님은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한국의 대표사찰입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뭐라 하긴 그렇지만 상의가 안되면 모든 일이 시끄러워 져요. 가야산은 배가 떠나는 형상이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가야산에 큰 짐을 실으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양보하고 상의해서 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라고 말했다.



◇원명스님은 16년전부터 지역화합을 강조하며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의 지속적인 화합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6월8일 산청 겁외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우측), 광주 무각사 광민스님의 인사를 받고있는 원명스님.(가운데)

"기도하고 참선하고 마음속 꿈틀대는 탐진치 쉬게해요"

폭력을 휘두른 해인사 수좌나 실상사 스님들이 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덧붙인 스님은 모든 잘못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마음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 집착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지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 보아도 매한가지입니다. 놓아버리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스님은 요즘 스님들이 청빈과 검약이 부족하다며 옛날 얘기 한 토막을 들려주셨다.

"옛날 범어사에 욕심 많은 명학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은 가진 것이 많아 인근 마을 사람들이 외출을 하면 그 스님 땅을 세 번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상좌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날 상좌가 스님에게 이르길 '스님 절 뒷산으로 등산이나 갑시다' 하는기라. 상좌가 등산을 가자고 하니 '그래 좋다'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니 벼랑에 구멍 세 개가 있어요. 상좌가 스님에게 말하길 '스님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인줄 아십니까?' 상좌가 다시 이르길 '이 구멍 중 하나는 스님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스님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와서 공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뱀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명학스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자' 하면서 다음날 스님이 상좌와 길을 떠나는데 통도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잠시 쉬게 됐어요. 그런데 스님이 상좌에게 말하길 '하나 정리 못하고 온 것이 있다. 금방 가서 정리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하는 것 이예요. 그래 상좌가 기다리는데 해가 넘어가도 스님은 오지 않았어요.

상좌는 혼자 길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가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 스님이 영원스님이었어요. 어느 날 영원스님이 금강산 토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범어사 명학동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그 놈 욕심이 많았으니 누런 보자기 쐬워라' 하는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수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3천 3백 3십 3배

(제 6회 철야 특별 기도 정진)

상근기도 못되면서 신심도 없으면서 자력수행 하는 것은
험난한 망망대해를 헤엄치며 건너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으니
3333배 금강의 배를 타고
9999회 감사의 노를 저어
제 7 말라야식인 에고의 업장을 깨버리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한 대자유 부처님 참마음으로 가봅시다.

<철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며 철을 500만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동안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을 2시간만 배우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108배하는 기본으로 가볍게 3333배 정진에 도전하십시오. 7~80세 노인도 어린이도 끝까지 정진한 불자가 많으며 설악산 봉정암을 하루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생깁니다.

※ 가슴이 열리고 단전히 뚫리고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일 시 2001. 7. 28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7시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木목醋초 수액원기 시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증 통
마비기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갑올때 당기거나 통증이 오는 어깨, 허리, 등, 허벅지 무릎등의 불쾌감이 없어져 몸이 가뿐합니다.

독소배출 자기눈으로 확인!!

삼보기업
02)2279-2715
011)397-2715

원명스님은?

대구지역 불교활성화 헌신

구산-효봉스님 모신 '효상좌'



원명스님은 30년간 대구에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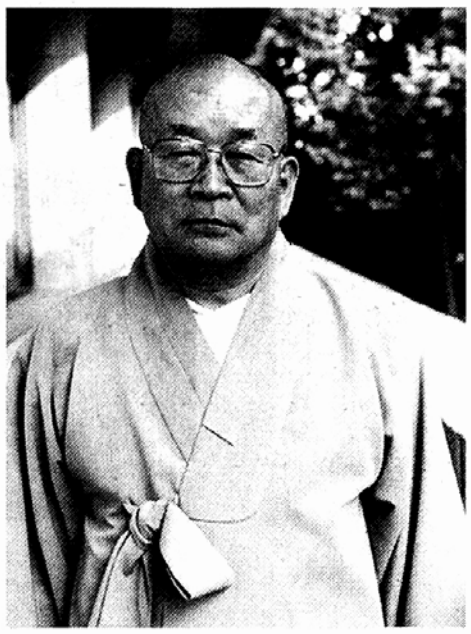
스님은 1981년 9교구 동화사 말사 이외의 조계종 사찰들의 모임인 대구사원주지연합회를 창립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1989년 불교대구교육원을 창립, 지역불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님은 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산하에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창립해 수성구 청소년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사암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영·호남 불자 5천여명이 참가하는 지역화합법회를 개최하는 등 망국적인 지역감정타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계율과 효사상을 항상 강조하는 원명스님은 한국불교계의 두 거봉이었던 구산스님과 효봉스님을 지극히 모신 '효상좌'로 이름이 높다.

스님은 송곳을 얼굴 앞에 놓고 용맹정진 수행했던 은사 구산스님과 절구통수좌로 불리웠던 효봉스님을 모시고 산 것이 큰 행복이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6·25전쟁을 거치면서 10여년간 입적하는 순간까지 효봉스님을 시봉했다.

스님은 193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하여, 1943년 금릉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2년 대구보현사 주지 1978년 중앙종회의원 1979년 순천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고, 지난해 10월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다.



◇30여년간 지역불교 발전과 민족의 숙제인 영·호남 화합을 위해 힘써온 원명스님. 스님은 빨래나 청소도 손수 하실정도로 철저한 수행생활을 하고 계신다.

"불법은 실천입니다 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진리의 고향

영원스님이 생각하길 '아하 우리 은사스님이 입적 하셨구나' 하고 금강산에서 범어사를 향해 걸었어요. 범어사에 도착하니 49재 날이 됐어요.

명학스님이 재산이 많으니 마을사람들에게 쌀 두가마니씩을 나눠줘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대한 49재가 열리고 있었지요.

49재가 무사히 끝나고 영원스님이 맏 사형에게 청하길 모든 대중을 명학스님의 창고 앞으로 모이게 해 주십시요' 라고 부탁해요.

사람들이 모이자 영원스님이 '명학동지 어서 나오시오' 하고 세 번 부르니 창고에서 뱀이 스르르 나와요.

그리고는 영원스님이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세 번 쳐서 죽여 버렸어요. 영원스님이 사형에게 말하길 '제가 스님 흔령을 모시고 갑니다' 하고 길을 떠났지요.

영원스님이 금강산으로 가서 자식없는 느부부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해 줄테니 10년후에는 반드시 나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단서를 주고 명학스님의 혼령을 부부에게 줬어요.

영원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스님이 아이를 데려와 방문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법당 앞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소가 법당 앞에 올라올 때까지 쳐다보게 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이가 스님에게 '소가 법당앞까지 왔는데요' 그래요. 그러니 그럼 눈을 구멍에서 떼고 돌아 보아라 하니 아이가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상좌였던 영원스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이가 말하길 '내 상좌이구나. 네가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원스님과 명학스님은 같이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처럼 출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가했으면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셨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은사이신 구산스님 얘기를 들려줬다.

"은사이신 구산스님은 수도암 토굴에서 정진하실 때 직접 밭을 일궈 양식을 조달할 정도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행을 보였습니다. '일 수좌'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가람불사나 울력에 솔선수범하셨지요. 그러다 보니 상좌들도 자연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고, 일하는 가운데서 하심(下心)을 배울 수 있었지요. 또한 은사스님은 송광사에서부터 해인사로 또 동화사로 스승인 효봉스님을 모시고 직접 수발을 들 정도로 효성이 지극해 '효(孝) 상좌'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스님은 요즘 젊은 스님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공부는 잘하지만 어른 모시는 것에는 인색하다며 예전에는 어른 모시고 사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요즘은 그러한 풍토가 사라져간다고 걱정하셨다.

"효는 백행의 근본인 만큼 효행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효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만큼 중요한 덕목이지요."

"출가자가 도를 이루는데도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인과를 깊이 믿어야합니다. 인연으로 인한 과보의 상응함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결정된 업은 실제로 피할수 없는 것임을 알고 막행막식하는 것을 삼가야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믿는 것은 연기의 도리를 밝혀 아는 전제가 되기도 하지요. 또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은 있지만 다만 망령된 생각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능히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항상 동요하고 있으며 생각 생각에 분별심을 내어 업장을 두텁게 하니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도리를 굳게 믿고 일체를 놓아 버려서 사사로운 정과 망념이 자기의 참된 본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수행방편을 결정해서 곧 바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화두선도 좋고 염불도 좋고 경학도 좋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두들기기만 한다면 결코 도를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며 금생에도 또 내생에도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 사람의 됨됨이 효심이 척도입니다"

스님은 관음사에 기도하러 오는 불자들에게 살면서 항상 참회하며 세세생생토록 보살이 되도록 발원하라고 한다며 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신다고 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됩니다. 항상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따라오지요. 마치 형태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스님은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 예불을 모시고, 오전에는 신도들과 기도정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 타파운동에도 몸소 나서 활동하고 계신다. 스님은 16년 전부터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지역을 상호방문하는 형태로 화합 교류법회를 봉행해 오고있다.

지난 6월 8일에도 성철스님 생가인 산청 겁외사에서 영호남 불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공사구별이 분명하다. 관음사에 들어오는 불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찰불사금은 모두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회향된다. 또 편지봉투도 뒤집어서 풀칠해 다시 사용할 정도로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스님은 지금도 웬만한 빨래와 경내 주위 청소도 손수 하실 정도로 철저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맏 상좌인 동진스님(칠곡 망월사 주지)은 "은사스님은 상좌들에게 항상 지계를 강조하신다."며 "은사스님이 철저한 지계로 수행을 해오신 것은 그대로가 상좌들에게 무언의 교훈이 되어오고 있다"면서 "은사스님이 지역 포교를 위해 30년간 바쁘게 일 하시면서도 매일 기도수행을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했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수보스님

수보스님을 아는 이들은 모두 그를 '하심(下心)보살'이라고 부른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누운 풀처럼 한결 같기 때문이다. 하심의 자세는 아만과 아집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어떤 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비굴한 태도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특히 그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으로 하심을 보여준다. 그를 알고 지낸 지난 10여년 동안 누구와 다투는 일을 좀처럼 보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면 분명 화를 낼 상황인데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경계를 잘 다스리는 힘이 그에게는 있다.

바다는 잔잔하지만 바람을 만나면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 역시 어떤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일상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상황을 만나면 통제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대부분이다.

수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경계는 알고보면 일종의 '거짓 감정' 같은 것이다. 상황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이러한 경계는 자신의 수행을 시험해보는 복병과 같은 것이다. 수보스님이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쉽게 끌리지 않고 평상의 마음을 잘 볼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지런-절약-깨끗-절구통 한결같은 수행자의 참모습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할 때의 일이다.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는 여름날 먼 곳에서 수보스님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20대의 여인이었는데 빗속을 걸어 힘들게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우중의 그 손님을 일주문 앞에서 돌려보내고 선실로 돌아왔다. 어둑어둑하던 그 시각에 다시 산길을 내려가게 만든 그의 인정이 너무 매몰찬 것 같았다. 한참 후에 안 일지만, 그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말을 듣고 인간적인 그의 고뇌를 알 수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색정의 마장을 그는 그렇게 수행자의 비정한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수보 스님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기가 질릴 만큼 부지런하다.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무슨 일이건 두닥거린다. 그가 머무는 부산의 절에 가보면 방은 물론이고 마당 곳곳에도 티끌 하나 없다.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하는데 마당이 깨끗한데도 비질을 한다.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독살이 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도량의 가풍은 늘 긴장이 살아있는 총림의 대중살이 같다. 그리고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 전등 하나라도 환하게 밝히지 않고 꼭 필요한 등만 켠다. 가끔 늦은 밤 그의 절을 방문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다. 법당 앞 석등의 불빛이 칠흑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지만 이 또한 보름달이 환한 날이면 켜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그가 마치 꼬장꼬장한 노스님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수행자세는 아마도 몇 년 전 입적하신 그의 은사 문성 노스님의 덕화 때문일 것이다. 100세를 사시면서 하루도 예불과 울력을 거르지 않았던 노(老) 스승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한인 시절 어쩌다 그의 절에 걸망을 푸는 날이면 노스님의 경 읽는 소리에 새벽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단 하루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노스님의 일과에 견주면 수보스님의 이런 행동은 게으른 일상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이 절에서는 목침을 쓰고 있다. 편안한 베개를 쓰면 꿈이 많아지고 마(魔)가 치성한다는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옛부터 절집에서는 딱딱한 목침이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솜 베개가 많아지는 세태다. 목침을 베고 잠든 그를 보면 한 스승이 남기는 사상과 가풍이 후학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수행의 근원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수보스님이 목욕을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깔끔한 성격이다. 밥을 먹다 음식물이라도 옷에 묻으면 곧바로 빨래를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목욕도 자주 한다. 목욕 시설이 좋은 선방에서 살게 되면 하루에 몇 번씩 몸을 씻는다. 그래서 그가 안보이면 욕실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그의 때밀이 실력은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같이 정진하는 스님들은 그래서 그와 함께 목욕하는 걸 좋아한다. 아주 시원하게 때를 밀어준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목욕시키듯 정성을 다하는 그에게 한번씩 등을 맡기고 있으면 인간적인 정을 듬뿍 느끼게 된다.

수보 스님은 안거철마다 빼놓지 않고 선방에 나가 공부한다. 평소의 그 부지런함이 선방에 앉으면 화두에 매진하는 일로 바뀐다. 절구통처럼 앉아있는 그를 생각하면 수행하는 일이 따로 정해진 일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밥먹는 일부터 목욕하는 일까지 그에게는 온통 수행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체육복을 입더라도 수행자다. 무엇을 하더라도 수행자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가 바로 수보스님이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류시화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사자의 서》!

티벳 밀교 요가 (신간!)

라마 키지 다와삼둡 번역 | 에반스 웬츠 편집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벳 성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마르파·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벳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의!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야 했는가?
8세기경, 티벳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티벳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웬츠의 티벳 라이브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웬츠는 인도로 가서 라마 키지 다와삼둡의 제자가 되었고, 티벳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복원해냈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해탈의 서》, 《티벳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벳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벳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에이지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신세계원 회원이 되시어 강좌·물품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02)733-3135(401·407)/ 팩스: (02)747-7034/ 인터넷 신청: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은행·우체국·농협 지로번호: 3006577, 홈뱅킹: 009-21-1159-604(국민은행, 예금주 송순현)

정신세계사·월간 정신세계·해탈 정신세계·정신세계원 | www.mindvision.org
전화 747-7033 / 팩스 747-7034



◇산이 있고, 절이 있는 자연휴양림을 찾아 심신의 휴식도 취하고, 불심도 가다듬어 보자.

이런 피서 어때요!

자연휴양림서 세상사 잠시 휴식

본격적인 여름 휴가(休暇)철이다.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산이 있고, 숲이 있고, 고찰이 있는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찾아가자. 전국 80여 자연휴양림 가운데 상당수가 사찰과 인접해 있어, 몸과 마음의 휴식도 취하고 불심도 닦으려는 불자들에게는 최적의 여름 휴양지다.

가족과 함께 풋풋한 나무 내음과 흙냄새 가득한 숲 속을 거닐며, 나뭇잎 속삭이는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한발 한발 오솔길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세상사를 떠나 자연과 하나되어 숨쉬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게 될 것이다.

7km 원시림 계곡 장관

미천골 휴양림 오대산 북쪽에 자리잡은 골 깊은 청정계곡 미천골에는 아름다운 계곡과 폭사지를 품고 있는 미천골 자연휴양림이 있다. 계곡의 폭이 그리 넓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맑은 계곡이 길게 이어지는데, 매표소에서 시작해 장장 7km에 이르는 원시림 계곡이 장관이다. 이 미천골 자연휴양림 내에는 신라의 고찰터인 선림원지가 있다. 선림원은 804년경에 창건된 사찰로 크게 번창했으나 10세기 경 큰 홍수와 산사태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미천골(米川谷)이란 이름도 선림원이 한창 번창할 때 스님들에게 공양할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면 쌀뜨물이 무려 20리나 흘러내려 갔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건물 초석과 삼층석탑, 석등 그리고 부도와 탑비의 잔해가 남아있다. 휴양림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해수관세음으로 유명한 낙산사가 있다.(033)673-1806

신라고찰 유가사 참배

비슬산 휴양림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조화봉(1,058m)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견봉(1,084m), 관기봉(989m)을 거느리고 있다. 집채만한 바위가 산기슭에 군락을 이루듯 펼쳐진 500-3,000평 크기의 수백 개 바위마당과 계곡 곳곳에 숨은 듯 자리 잡은 기암괴석은 보는 이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비슬산 대견봉 아래 신라 흥덕왕 2년 도성선사가 창건한 유가사가 있고, 휴양림 입구에 신라 고찰로 고려 공민왕 7년 진보법사가 중창한 소재사가 자리했다.(053)614-5481

석남사·표충사 등 인접

신불산 휴양림 울산 울주군 신불산은 주봉이 1,209m로 봉도사가 위치한 취서산과 가지산 중간지점의 고봉이다. 계곡은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천연림으로 어우러져 아름답고, 청정수가 흐르는 계곡의 중간 지점에 유명한 파래소 폭포가 있다. 통도사(휴양림에서 30km), 표충사(22km), 석남사(10km)와 인접해 있다.(055)383-6493

등산-산림욕 일석이조

운문산 휴양림 대구-경남 언양간 지방도(985호선)변에 위치한 운문산 자연휴양림은 영남 7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운문산(일명 호거산 1,188m) 기슭에 자리잡았다. 등산과 삼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인근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인 운문사가 있다. (054)371-1323

지리산 속으로 여행

중산 휴양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리산 지역의 등산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중산 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기에 적당한 곳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내 등반과 병행할 수 있는 중산 계곡과 자연학습원, 법계사, 대원사가 인접되어 있으며, 하동의 쌍계사, 구례의 화엄사 및 지리산 온천 등이 휴양림과 연계돼 있다.(055)972-0675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극단 예우…8월 17일까지 바탕골소극장

무대서 맛보는 '황금사과'



극단 예우는 89년 동양문학상 수상작품인 극작가 우봉규씨의 '황금사과'를 무대에 올린다.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사과를 통해 민초들을 우롱하는 위정자들의 거짓과 욕망, 그리고 위선에 쌓인 인간들의 모습 등을 실감나게 보여 줌으로써 인간의 순수성을 찾고자 하는 작품이다. 황금사과가 나오는 마을을 중심으로 오로지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촌장의 꼭두각시 뭉수리와 할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촌장의 명으로 살인을 일삼는 뭉수리와 죽은자들의 시신을 치우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할멈,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의 문제, 문명의 폐해 등을 건드린다. 8월 17일까지 서울 대학로 바탕골소극장에서 공연된다.(02)762-8846

'돌꽃이 피는 자리'

금강 스님 탁본전시회

8월 11일부터, 서귀포



땅끝마을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돌꽃문양 탁본전시회 '돌꽃이 피는 자리'가 8월 11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청재 섬헌의 다비치 리 갤러리에서 열린다.

미황사와 구산선문 등 고찰의 갖가지 문양들을 탁본에 담는 작업을 해 온 금강스님이 이번에는 고찰의 돌문양만을 모아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돌에 핀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연잎과 연꽃, 항아리에 담긴 이름 모를 꽃 등 눈여겨보지 않으면 살피지 못했을 사찰의 돌꽃문양을 통해 우리 꽃들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다.(064)732-2020

이용배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일대기'

8월 15일 속초문화회관



우리 소리에 불교의 가르침 담기에 힘써온 원로 국악인 이용배씨가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일대기' 공연을 8월 15일 오후 8시 강원도 속초문화회관에서 갖는다.

이씨가 직접 작창한 사명대사 일대기는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승과급제, 깨달음, 순수행, 서산대사와의 만남, 일본과의 강화조약, 열반 등을 구성진 판소리로 전달한다.

74세의 고령인 이씨는 "승군장인 사명대사의 구국행(救國行)과 지극한 붕심을 광복절을 맞아 되새기고자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판소리 마지막 부분에 출연자와 관객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회향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사명대사 일대기는 지난 97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바 있다.(033)632-9800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김성동의 소설 〈꿈〉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능현은 28세의 수좌로 은즉사(銀竹寺)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날 그 앞에 명문여대 미대생인 정희남이 나타나자 마음이 흔들린다. 애틋한 짧은 만남 끝에 서울로 돌아간 희남은 능현에게 소포를 보내오는데, 그 속에는 릴케의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에게〉라는 책이 들어있었고 속표지 여백에는 "스님께서 꼭 이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보던 책을 보내드리오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셔요"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그 날 이후 수좌 능현의 화두는 자신도 모르게 '이뭣꼬?'에서 '이 책을 보내온 뜻은 무엇인가(如何是 送冊 的的大意닛꼬)?'로 바뀐다. 마침내 그 뜻을 깨쳤으니(?), 바로 '문학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우연히 종교소설 현상모집 광고를 본 능현은 마감 직전 하루 낮 하루 밤만에 소설 '목탁조(木鐸鳥)'를 완성하고 원고를 보낸다. 그 글은 새해 1월 1일자 신문에 '종교의 현대적 고민을 드러내 보였다'는 평과 함께 당선작으로 게재된다. 그러나 얼마 후 능현은 '방황하는 승려를 주인공 삼아 절 집안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킨 죄'로 감찰원의 출두통지서를 받고, 결국 제적당하고 만다.

김성동 '꿈'(3)

수좌와 여대생 애틋한 만남 꿈깨고 나니…

여대생 희남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 전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던 능현은 첫 만남 3년 뒤 마침내 그녀와 재회하게 된다. 능현은 희남에게 '반야'라는 법명을 지어주고, 그녀는 능현의 문학적 재능을 살리기 위해 공양주가 되어 주기로 자청하고 함께 방장산 불가독굴로 떠난다. 꿈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능현이 버섯을 따러 나갔다 돌아온 사이에 반야는 떠나고 없었다. 두고 간 종이엔 연필로 그려진 능현의 얼굴과 여백의 글씨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어디서 무엇이 되어/다시 만나리"

여하시 홀연잠적이냣고? 반야보살 하처재(何處在)오? 미친 듯이 온산을 헤매는 능현. 그렇게 또 허무한 세월이 흐르나 싶더니 마침내 멀리 반야를 발견한다. 능현은 그녀를 잡으려고 뛰어가다 그만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돌에 이마를 찧고 만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것은 장엄 염불 한 자락을 마친 다음 했던 한 망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꾸었던 꿈이었다. 능현은 잠결에 쇠북에 이마를 부딪쳤던 것이다. 그렇게 목 타는 그리움으로 숨막히는 청춘의 한 세월이 흘러 가버린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능현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있었다. 이름 모르는 그 여대생을 다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서원을 세우고 관음기도에 들어갔던 능현은 꿈에서 깨어난 직후 홀연히 은죽사를 떠난다. 그가 간 곳은 아무도 몰랐다.

한편, 이 소설은 두 가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끝에 '사족'을 달고 있는 것이다. 능현은 서울로 올라와 사람 찾는 광고를 내었다. 세 번째 광고를 내었을 때, 희남이 약속장소에 나왔다. "스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드리기엔 전 너무 세속적인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결혼해서 빠리로 간다고 말한다. 불가득굴로 돌아온 능현은 종이 위에 '꿈'이라고 쓰고, 반야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한다. (계속)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3배.
두통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시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중국 선불교의 진수 국내불자에 소개"

선(禪)에 대한 학문적 규명을 시도하여 선불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불교학계의 대표적 저작인 '선학총서'를 우리말로 옮기고 있는 김진무 씨(40)를 만났다.

그가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번역 출간한 책은 〈선과 노장〉, 〈선학과 현학〉, 〈불교와 유학〉, 〈조사선〉 5권. 조만간 출간될 〈분등선〉, 〈여래선〉 등을 포함 선학총서는 모두 10권으로 운주사에서 완간된다.



96년부터 중국 남경대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을 전공 최근 '불학과 현학의 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석사 학위 논문 '등산법문과 그 선사상연구'를 쓰면서 '중국사상을 공부하지 않고는 선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북경에서 중국어학공부를 할 때 우연히 읽게 된 책이 바로 선학총서 시리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선학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그 열풍은 일본 불교학자 스즈끼 다이세쓰의 저작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많은 선학서적들이 중국에 번역되어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중국불교학자들은 '그것은 서양문화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중국 본래의 선이 아니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이러한 시기에 선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중국 학자들은 선학서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선학총서는 그 책들 가운데 선불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저작이다."

중국출판계에서는 학술서의 경우 3천부 이상이 판매되면 수준 높은 학술서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선학총서 시리즈는 10권 모두 2만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호응이 높다. 남경대학 현직 교수들이 집필한 이 시리즈는 남경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선학총서를 읽고 남경대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한 그는 "중국선학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세밀하게 연구하는 중국불교학계의 학풍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우리나라에 번역하게 됐다"고 번역의 이유를 밝혔다.

6년간의 중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경기도 일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는 요즘도 선학총서 번역에 한창이다. 학문연구와 번역을 함께한 그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 출간된 중국불교관련 번역서들 가운데 번역서를 다시 번역한 책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어려운 부분은 아예 빼놓을 정도다"고 번역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에 귀국하자마자 세운 서원이 하나 있다. '중국원전번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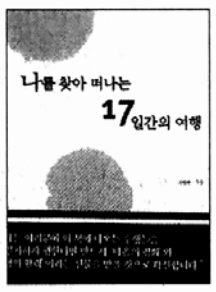
책과 삶

중국불서 '선학총서' 옮기는

김 진 무 씨

중국 원전번역회 설립

올바른 번역서 퍼낼터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조연현 지음

마음찾는 구도의 길 안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 곁을 맴도는 화두들이다. 속도 지상주의로 치닫으며 인간 소외를 부추기는 최근의 흐름에서는 특히 그렇다. 최근 종교 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문을 서로 나누고 해법을 찾아 가는 수행반편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 휴가철 복잡한 피서지를 피해 사찰로 단기출가를 떠나려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간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한겨레신문사)은 불교·기독교 등 여러종교의 17개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한 장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은영입니다." "박은영이라는 글씨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몸입니다."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과 수십 년 후의 몸이 모두 다른데, 어느 것이 진짜 당신입니까." "…."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음입니다." "어제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 "박은영 씨." "…." "박은영 씨." "…."

이러한 집중적인 문답 속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향해 "정말 나는 누구일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이름도, 지위도, 종교도, 학력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이다. 이렇듯 '나를 찾는 여행'은 모든 것을 밖에서만 갈구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 여행이다.

이 책에 소개된 수행처는 정토수련원의 '깨달음의 장'에서부터 인천 용화선원의 참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불교 전통의 동사섭, 천주교의 영수련, 티베트의 명상 수행, 노동과 영성이 어우러진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삶에 이르기까지 수행현장 17곳에서의 체험을 담고 있다.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수련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행에 앞서 모든 짐을 내놓고 있는 모습.

참선·동사섭·영신수련 등

깨달음의 현장 17곳 탐방

이러한 마음 여행 방법은 종교나 종파 그리고 수행의 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다가가는 곳이 있는 가하면, 한바탕 춤판이나 죽음 묵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도 한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먼저인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행법의 공통적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한겨레신문사 문화부 조연현 기자. 그는 수행에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바로 옆에서 전한다. 지은이가 취재자로서 수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은이는 17일간의 마음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수행은 본래의 나로 건너기 위한 나룻배이다. 나룻배 자체에 집착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문제는 수행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남의 수행법을 시비하기에 앞서 바로 자신을 시비할 것이다. 독자들이 밖에 대한 시비를 떠나 비로소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이 책도 짐이 될 뿐이라고.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소리를 듣지말고 마음을 들어라"

'듣기의 달인이 되는 법칙'

이규조 옮김



사람들은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말하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상대의 말을 듣는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 예로부터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손이 허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속이 차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듣기란 무엇인가.

신간 〈듣기의 달인이 되는 법칙〉(히가야마 히로히사 지음, 이규조 옮김, 모색)은 말하기의 기술과 전략을 뒤집으면 모두 듣기의 기술과 전략이 된다고 강조한다. 다만, 듣기의 달인이 되려면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의 철학이 몸에 배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듣기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수양을 먼저 강조한다.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상대의 말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훈련과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최인호 창작집 '달콤한 인생'



최인호 씨가 창작집 〈달콤한 인생〉(문학동네)를 냈다. 지난 82년 출간된 〈위대한 유산〉 이후 20년 만의 창작집으로 '달콤한 인생', '이별 없는 이별', '산문', '몽유도원도'를 비롯해 82년 발표된 '깊고 푸른 밤' 등 6편이 실려 있다.

이번 창작집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지은이의 의지가 종교와의 결합을 통해 종교적 구도의 길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감성과 역사가 만난 실크로드

'돈황 가는 길' 정찬주 지음



진리를 찾아 막막한 죽음의 실크로드를 건넜던 수많은 구도승들의 정신을 아직도 느낄 수 있는 곳. 천년에 걸쳐 조성된 석굴들의 대화랑, 그 속에서 만나는 동서문화 교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돈황 가는 길〉(김영사)이 나왔다. 지은이는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등 기행문과 소설을 발표하고 있는 작가 정찬주 씨.

책은 돈황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여러 역사의 현장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에 대한 사색을 통해 명상적인 견문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현종과 양귀비의 화청궁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며 무안색(無顔色)이라는 고사를, 진시황릉에 올라 분서갱유(焚書坑儒)와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고사성어를 그려낸다. 이처럼 돈황 가는 여정은 단지 이국적 풍경의 낯섬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뿌리내린 감성의 얼개를 통해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돈황 막고굴 220굴의 조우관을 고구려식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새로 발견한 237굴의 관모는 통일신라식이 아닐까 하고 추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값 9천9백원.

김중근 기자

일심·화회·무애로 본 원효

'원효탐색' 고영섭 지음



원효 스님의 사상의 길은 일심-화회-무애로 표현된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 되게 하고자 했던 원효는 그의 학문적 화두를 이 세 기호가 하나로 어우러진 지평에서 풀어가고 있다.

신간 〈원효탐색〉(연기사)은 원효 스님의 역정을 일심학-화회론-무애행의 축으로 탐색한다. 지은이는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씨. 책은 먼저 '원효의 화회론'은 귀일심원 요익중생이라는 그의 화두를 실현시키는 매개체인 화회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원효의 일심학'에서는 원효 스님의 사상적 코드인 일심의 지형도가 어떠한 구도 위에서 그려졌는지를 공부론, 장애론, 정토론, 화엄학의 축을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원효의 무애행'에서는 그의 사상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깨달음의 길	진우기 신진욱	부디스트웹 닷컴
2	영가현도	우 룡	효 림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티벳 밀교 요가	유 기 천	정신세계사
5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6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할미디어
7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8	명상으로 얻은 깨달음	달라이 라마	가 림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우 지현	민 족 사

도서 안내:(02)737-0695

담무갈

작가 남지심이 14년의 침묵 속에서 빚어낸 《우담바라》의 완결편!

이제야 알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위해 목숨 바치는 과정임을……

고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그렇게 전투를 하듯 바둥거리며 또 하루를 힘겹게 마감하고…….
묵직한 소포꾸러미가 제게 배달된 것은 그러던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직접 전해줘도 될 것을, 굳이 우편으로 보낸 당신의 마음을 내내 헤아리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담무갈》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이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오롯이 바칠 만큼 소중한 대상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만이 진창 같은 현실 속에서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맑고 평안해집니다. 다시 세상을 마주보고 밝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당신, 두고 두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전4권 | 각권 값 8,000원

《담무갈》의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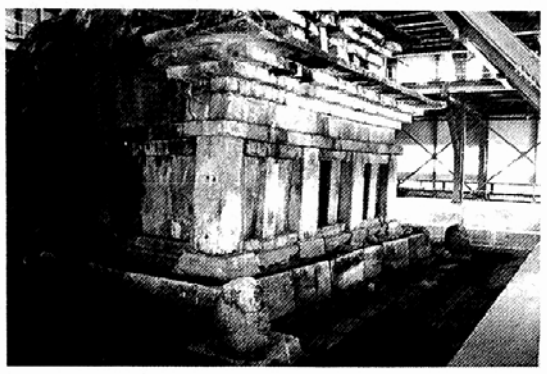
전3회에 걸쳐 독자들의 글을 받게 될 이번 행사의
첫 번째 테마는 '내 마음속의 길동이' 입니다.

소설 《담무갈》에서 대종사의 성불을 위해 자신의 한 생을 올곧게 바친 길동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응모 방법 : 2백 자 원고지 10~20매 분량의 원고를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70번지 푸른숲 문학팀),
또는 담당자 이메일(jpnim@prunsoop.co.kr)로 투고해주십시오.
원고 마감 : 2001년 8월 20일
행사 문의 : 02-362-4468
시상 내역 : 대 상 1명 (상금 50만 원)
우수상 1명 (상금 20만 원)
가 작 3명 (상금 10만 원)
입 선 50명 (3만 원 상당의 본사 출간 도서 증정)

푸른숲

전화 364-7871~3 팩스 364-7874 http://www.prunsoop.co.kr



미륵사지석탑 새단장 '시작'

가설 덧집 장치 등 끝내
2007년 보수 마무리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제11호)의 해체 복원 작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를 위해 사업소측은 현재 석탑의 외부에 가설덧집 장치와 안전진단 결과에 근거한 각종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보수공사는 그간의 부분정비와는 달리 완전해체 복원되는 것으로 1915년 일본이 시멘트를 사용해 정비한 흔적을 석탑 부재의 손상없이 말끔히 없애는 작업이 가장 관심을 끈다.

사업소측은 "콘크리트는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할 방침이며 탑의 부재 가운데 약화된 것은 강화처리를, 이끼 등에 의해 부식 된 것은 살균 소독 등의 보존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제30대 무왕 때 9층으로 건립된 목탑양식을 석탑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탑이다. 현재는 6층까지의 잔해 부분이 남아 있으며 1998년 안전진단 결과 매우 불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 전면적인 보수정비공사가 시작됐다. 이번 공사는 2007년에 마무리 될 계획이다.

익산=김두식 기자

여주 원향사지서 목탑지 발견

기전문화재硏 2차 조사
벽화조각 등 유물 출토



◇여주 원향사지 목탑 추정지 주변서 나온 '연화사' 명 기와.

지난 해 1차 발굴조사에서 강원도 영월 흥녕사 징효대사탑비(보물 제612호)에 기록으로만 전하던 원향사지임이 밝혀진 경기도 여주 원향사지에서 목탑지가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3월 26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한 결과 "동쪽 묘목지에서 안성 봉업사지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목탑지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목탑은 불이 잘 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상당한 규모의 절이 아니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원향사지의 사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라고 설명했다. 6동의 건물지가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모두 18동의 건물지가 발견된 것도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한다.

이밖에 흙으로 만든 소형 탑과 나발, 앙련, 벽화조각, 명문기와 등 다수의 유물이 목탑추정지 주변에서 발견됐다. 소상영 조사1팀장은 "이들 유물은 고려시대 지방사찰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며 "건물지별로 출토된 기와 문양을 분석하면 고려시대 기와의 편년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학문 – 신앙 일치해야 하나?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서 찬반논쟁

김성철 · 허일범 · 안옥선 씨 등
"신심없는 불교연구 성취도 미약"

김재성 · 정병삼 · 문을기 씨 등
"인문학적 불교학 – 신행 서로 달라"

학문과 신앙은 일치되어야 하는가, 분리되어도 괜찮은가?

14~15일 '학문과 신앙'을 주제로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는 이 같은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먼저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불교학과 불교신앙의 만남'이란 주제발표에서 "서구에서 시작된 현대 불교학은 문헌학적 연구를 강조하다보니 사상사적 연구, 즉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이 결여됐었다"며 "앞으로 불교학자는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수미일관한 하나의 신앙체계를 구성해 불자들의 신행에 지침이 되는 불교학, 즉 체계불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는 동양인이 기독교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촉발된 학문적 욕구를 갖고 기독교에 접근할 경우 기독교라는 종교의 정체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며 "다른 종교를 가진 불교학자 역시 불자들에게 삶의 좌표를 제시해 주는 불교학의 구성은 결코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문과 신앙(밀교경전을 중심으로)'을 발표한 허일범 교수(진각대)는 "밀교경전은 믿음과 학습과 행이 겸비되지 않으면 학문도 신앙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학과 믿음과 행을 겸비하지 않은 사람이 밀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전적이며, 남말을 이어 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찬반양론이 맞섰다. 정태영 문사수법회 법사는 "학문이 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재성 고려대장경 상임연구원은 "신학으로서의 불교학을 말할 때는 신앙이 꼭 필요하지만 불교학자가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불교를 믿는 역사학도로서 '학문을 하려면 장·단점을 함께 봐야 하는데 불교를 믿으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학문과 신앙의 일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불교학연구회장 해주 스님은 "불교학의 역할은 무엇이며 불교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14~15일 열린 불교학 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는 '학문과 신앙'을 주제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사찰문화재 보존'

8월 2일 정책토론회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찰문화재의 도난과 훼손,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8월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문광위원회, 각 정당불자회,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우 스님(문화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현고스님(기획실장)이 '사찰문화재 보존·관리실태' 박용대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법률·제도적 대안' 문명대 교수(동국대)가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정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토진종 조선포교 日정부 적극 종용"

채상식 교수 논문 발표



구한말 일제침략기의 불교사 가운데 일본불교의 침투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불교가 식민지 침략과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된 배경과 사상적 토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불교의 침략적 속성을 고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채상식 교수(부산대 사학과·사진)는 최근 〈한국민족문화〉 16집에 발표한 '일본 명치년간 정토진종의 추이와 그 특성'을 통해 당시 일본불교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명치정부의 침략정책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정토진종의 성격을 '권력화의 예속과 침략주의'로 규정했다.

막부시대가 끝나고 명치유신으로 등장한 신정부가 불교억압정책을 추진하자 정토진종은 국가권력과의 타협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고, 그 결과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정토진종의 조선 포교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종용과 의뢰에 의해서 진행됐고,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토진종은 '왕법위본 충군애국'의 기치 아래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외침략 정책에 동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민족문화〉 16집에는 해방이전까지 일본학자에 의한 한국불교의 연구현황을 담은 '해방이전 일본에 있어서 한국불교연구 현황'도 실렸다.

高僧 다시보기

경흥 스님의 불교관

경흥(憬興)스님은 종래 신라 신문왕(681~692) 이후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620년 경 백제의 웅천주에서 태어나 통일 후 700년 무렵까지 활동하였던 고승이다. 스님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스님의 성은 수씨이며 18세에 출가하여 삼장에 통달하였고 신문왕이 즉위하자 신라의 국로가 되어 삼랑사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부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삼국통일의 위업을 마무리한 문무왕이 두 가지 유언을 하였다. 자기의 몸을 화장하여 바다에 묻어달라는 것과 스님을 국사로 책봉하라는 것이었다. 문무왕은 불교식 화장을 하여 불교홍포에 모범을 보였고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경북 월성군 동해바다의 수중릉인 대왕암이다. 그리고 백제에서 최고의 고승이었던 스님을 통일신라의 국가원로인 국로(國老)로 모셔서 삼국의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이는 진흥왕이 고구려의 혜량스님을 신라 최초의 국통으로 모셔 통일의 초석을 닦은 것과 비교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스님은 신라의 고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에 출입하여 국사의 빈번한 자문에 응하면서 통일직후 국가의 초석을 닦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두 편의 일화가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삼장회통 교학체계화 노력
백제출신 통일신라 國老 추대

어느 날 호사스런 말을 타고 왕궁에 가던 길에 마른 생선을 담은 광주리를 메고 있는 걸승을 보자 스님이 "그대는 승려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금하고 있는 것을 등에 지고 다니는가"하고 나무라자 걸승이 반문하기를 "두 다리에 살아 있는 고기(말을 일컬음)를 끼고 다니는 것보다 시장의 마른 생선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우냐"고 하였다. 이에 스님은 크게 뉘우치고 평생 말을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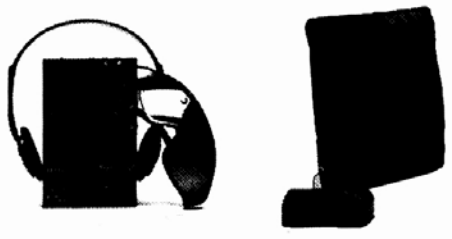
다른 한편의 일화는, 스님이 빈번한 국사의 자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낫지 않았다. 어느날 11면의 가면을 쓴 여승의 춤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껏 웃고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승려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의 화현이었다고 하니, 스님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 것을 은유한 것이리라.

스님은 국로로 활동하면서도 원효 스님과 태현 스님과 더불어 신라의 3대 저술가로 승앙받을 만큼 삼장에 회통하여 원효 스님처럼 다양한 불교교학을 종합 체계화하려 하였다. 예컨대 당시 대부분의 스님들이 당나라 현장스님의 제자인 신라의 원측스님의 학설만을 추종하였으나, 스님은 현장 스님의 중국 제자였던 자은 스님의 학설까지 포용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원효 스님처럼 미륵·미타 등의 정토신앙을 중시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에너자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 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 등/미국 마이크로펄사)

* 오라진동쿠션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미국 마이크로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사)

메가플러스 명상기 효과 및 특징

*차크라, 소주천 명상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메가플러스와 오라진동쿠션이 하 중 상단전 순서대로 氣를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빛과 소리, 진동 느낌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행법을 하지 않고도 빛과 소리, 진동을 느끼면서 위빠사나 명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가플러스의 빠른 릴렉세이션 효과는 명상 이외 학습과 창의력, 깊은 휴식,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완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을 15분에서 120분까지 5분 단위로 변화시켜 21개 프로그램을 총440개의 형태로 압축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5개로 구성된 톤은 메가플러스 프로그램을 45개로 확장시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메가플러스는 사용자프로그램이 있어 자신에게 맞는 맞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구입시 쿤달리니 프로그램을 입력해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뇌파연구와 깨달음> 소책자와 카다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888-2142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No 약초!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같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빛의 생명에너지」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 반도 의 운명〉

이 책에는 佛제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놀라운 사실들이 확실한 근거와 함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 부처님을 낳은 석가(Shaka, Shakya, Sakya)족은 우리들과 같은 몽골인종의 우랄·알타이족의 한 갈래이며, 따라서 석가모니는 틀림없이 아세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Vincent A. Smith, Percival Spear)
- 자비의 종교 불교가 사랑의 종교 기독교의 뿌리이었고, 불교의 이성(理性)적 철학이 그리스 철학의 뿌리이었다. (Fritjof Capra)
- 불교의 윤회사상을 기독교에서도 인정했었다. 그러나 서기 6세기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Synod of Constantinople) 이후 바이블에서 윤회에 관한 구절이 모두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철학자 F. Voltaire, 미국의 자동차 왕 Henry Ford, 발명왕 Thomas Edison 등은 윤회의 법칙을 믿고 있었다. (Ruth Montgomery)
- 불교의 유심(唯心)철학의 진리성을 20세기 양자물리학의 천재들 - Max Planck, Niels Bohr, Max Born, Louis de Broglie, Wenrner Heisenberg, Erwin Schroedinger - 등이 입증했다. (Fritjof Capra)
- 불교사상을 독일어로 옮겨 놓은 것이 Martin Heidegger의 실존주의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철학적 용어도 거의 똑같다. 예컨대 : 자비, Sorge; 번뇌, Angst; 깨달음, Entschlossenheit; 깨달음을 얻은 자, eigentliches Dasein; 중생, die Seiende; 생자필멸, Sein zum Tode; 사파세계, Alltaeglichkeit ...
- 불교와 브라만·힌두교, 불교와 도교, 불교와 주자학의 관계, 불교가 인도반도에서 밀려나게 된 까닭, 그리고 불교가 한반도에서 꽃피우게 된 까닭 등도 佛제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다.

(신윤부 지음, 375면, 9,800원)
서울 교보문고 영풍문고 판매중

"恩愛 탐하고 名利 다투어선 안된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㊶

(40) 신광의 십계(十戒)

신광은 비록 꿈을 꾸고 있을지언정 전혀 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달마에 대한 궁금증으로 목이 말랐다. 염군에게 빌다시피 하면서 물었다.

"어째서 달마 대사만은 명부의 사자도 손길을 미칠 수 없는지 가르쳐 줄 수 없겠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오. 그 사람은 천명(天命)을 받았기 때문이오."

"천명이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천명이란 상천(上天)의 특명을 받들어 도맥(道脈)을 이으며, 시대를 주름잡고 사람들의 심안(心眼)을 뜨게 하는 것을 이름하는 것이오. 천명을 받은 사람은 구수심인(口授心印)으로 사람들을 삶과 죽음에서 해탈시키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는 법을 전수할 수 있소."

"그 법을 전수받으면 누구든지 생사(生死)에서 벗어나고 지옥의 사자인 당신들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한사람에게만 전수

"그렇소. 하지만 그 법은 아무에게나 전수되는 것이 아니오. 지금까지 단전독수(單傳獨授)로 전해졌고 앞으로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전수될 것이오. 그 법을 얻은 사람은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이루었으므로 사람의 몸이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오. 무릇 설법만 일삼는 수행자는 단지 구두삼매(口頭三昧)로 염불을 하고 맹목적인 수련에 매달릴 뿐 심전(心傳)의 진법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오. 흔히 수행자들은 입으로 해탈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해탈은커녕 우리들의 손길마저도 벗어날 수 없소."

이런 설명을 들은 신광은 참담한 느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무엇이라고 대꾸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때 열 사람의 염군 가운데 한 사람이 신광의 목덜미를 잡아끌면서 포박하려고 했다.

"자, 시각이 되었소. 우리를 따라 저승으로 갑시다."

신광은 이승의 인연이 이것으로 끝나는가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엉엉 울면서 땅바닥에 부복해 애걸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당장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건 안 될 일이오."

"하지만 저의 한 가지 소원만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마 대사를 찾아 가서 용서를 받고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인연이란 다 때가 있는 것이오. 때가 무르익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확연하게 다르오. 더군다나 당신은 스스로 인연을 차버린 사람이 아니오. 더 이상 시간을 줄 순 없소."

"그러지 마시고 제발 사흘만 말미를 주옵소서. 그때가 지나면 명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열 사람의 염군은 무서운 얼굴을 조금 누그러뜨리더니 무엇인가 상의했다. 이윽고 염군 한 사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소. 당신이 49년 동안 행한 설법과 불자를 인도한 공덕을 참작하여 3일간의 유예를 주겠소."

신광은 너무나 감격했다. 약속대로 달마 대사에게 갈 것을 다짐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신광이 눈물을 닦고 눈을 떠보니 열 사람의 염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신광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아무래도 꿈 같지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신광은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크게 반성했다. 비록 꿈에서 한 다짐이지만 그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다. 신광의 수상쩍은 행동에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다.

"스승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저희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고정하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신광은 끝내 결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수많은 제자들이 울부짖으며 붙잡으려고 애썼으나 막무가내였다.

"나는 생사를 초탈하고 길을 얻기 위해 반드시 달마 대사를 찾아뵈어야 한다."

"아니, 스승님 같으신 분이 그 늙은 중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정 가시겠다면 얼굴만 보고 즉시 돌아오시도록 하시지요."

꿈에서 다짐 그대로 실천

"자네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게. 나는 지금 한마음으로 참법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뿐일세. 여태까지 나는 종일토록 설법해 왔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정법을 얻지 못했네. 자기의 생사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고액(苦厄)을 진멸할 수 있겠는가. 훗날 정과(正果)를 성취하게 되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네들을 제도하고 열반을 증( ) 할 것이니 그리 알게. 우리가 맺은 사제의 정을 내가 어찌 모르는 척하고 팽개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아닐세. 만약 그 정에 얽매여 뿌리치지 못하면 지옥에 빠질 뿐이네."

신광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비감하다못해 절절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할 말을 잊었다. 스승 앞에 엎드려 이별의 슬픔을 곰씹을 뿐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절안이 온통 적막으로 뒤덮인 듯 고요했다. 이윽고 신광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대들에게 특별히 당부할 것이 있네. 그대들은 나의 당부를 실행해 주기 바라네. 오늘 내가 떠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나가 한 말을 마음에 담고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수행에 임해야 하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테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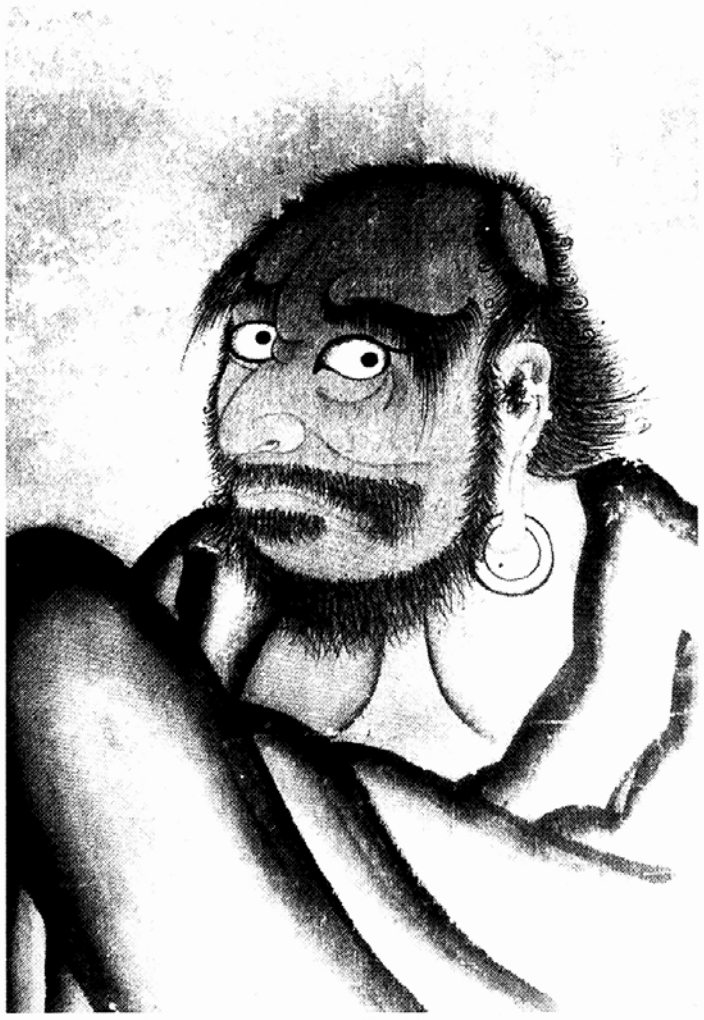
제자들은 일제히 머리 숙여 다짐의 뜻을 표했다. 신광은 근엄한 목소리로 10가지 사항을 교시하며 당부했다.

佛規 엄수하고 청정
욕념 일으키지 말라
망어 경계하라

첫째, 부처님께 귀의함에 있어 오로지 진심으로 해야 한다. 은애(恩愛)를 탐하든가 명리(名利)를 다투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과 더불어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하라. 하루 네 차례 즉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의 시각에 신향(信香)을 올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무명(無明)에서 헤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대들은 번뇌를 감내하고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굳게 두기 바란다.

둘째, 법에 귀의함에 있어 불규(佛規)를 엄수해야 한다. 공부에 전념하되 법에 의하여 행하라. 불규는 수행자의 큰 지팡이임을 알라. 잡념을 일으켜 함부로 어지럽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신기(神氣)가 소모된 때문이었다. 그대들은 내 말을 명심하고 존심양성(存心養性)하라.

셋째, 승(僧)에 귀의함에 있어 청정(淸靜)을 배워야 한다. 불문(佛門)에 들어온 이상 청규(淸規)를 지키고 따로 방문(房門)을 열지 않도록 하라. 유위법(有爲法)은 몽환포영(夢幻泡影)이니 절대로 배우지 않도록 하라. 정좌(靜坐)할 때나 관공(觀空)할 때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성명(性明)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형상있는 것을 마음 속에서 날려 보낼 것을 다짐하라.



◇작자 미상(조선 중 · 말기로 추정, 340×280cm, 에밀레박물관 소장).

넷째, 살생을 경계하고 인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서천(西天)의 부처님은 오로지 자비로우시며 크게 어지시니라. 수행하는 사람은 생령(生靈)과 원한을 맺지 않도록 하라.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륜(轉輪)으로 가기는 어렵다.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원얼(冤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명심하여 생명을 헤치지 말고 방생하도록 하라.

다섯째, 도둑질을 경계하고 의(義)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한 포기의 풀이든 한 오라기의 실이든 주인이 있느니라. 남이 와서 나를 각박하게 한다고 해서 참지 못한 것은 너무 심하게 남을 각박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내 말을 명심하여 후덕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

여섯째, 사음(邪淫)을 경계하고 명예와 절조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수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화락을 기하고 음란하지 않아야 한다. 여인의 미모가 아무리 빼어나다고 할지라도 짐승이나 벌레로 생각하라. 절대로 욕념(欲念)을 일으켜 본성을 잃지 않도록 하라.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욕념에서 헤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대들은 색(色)이 곧 공(空)임을 마음 속 깊이 새겨 두라.

일곱째, 술과 고기를 금하고 청탁(淸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술은 성정을 어지럽히고 고기는 성정을 탁하게 한다. 불성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언제나 경(經)을 염(念)하거나 정좌(靜坐)하도록 하라. 진정으로 욕념을 끊고 명심견성(明心見性)하도록 하라.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항상 담백한 것을 먹도록 하라.

여덟째, 망어(妄語)를 경계하고 말에 신(信)이 있어야 한다. 오계(五戒)를 지키고 오상(五常)과 오행(五行)을 실천하라. 제행만물(諸行萬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화(運化)됨을 알라. 말은 충신(忠信)으로 본을 삼고 행동은 돈독과 공경으로 본을 삼아 교만과 나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내가 염군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잘난 체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혈기를 낮추고 아울러 몸도 낮추도록 하라.

아홉째, 홍복과 부귀를 닦는 자들이여, 지금부터는 팔덕(八德)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서 오륜(五倫)을 닦도록 하라. 어떤 떡을 먹느냐는 그대들의 마음에 달렸음을 알라. 남보다 뛰어난 지혜, 광명을 닦도록 하라.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 달마 대사를 따라가고자 하는 까닭은 오직 성명(性命) 때문이다. 그대들은 중생을 널리 제도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도록 하라.

신광과 제자들 눈물이별

열째, 모든 선인(善人)들은 반드시 덕행(德行)을 강구해야 한다. 대선(大善)을 행하고 소선(小善)도 행하고 힘닿는 데까지 행하라.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희사하고 보시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라. 재물이 없는 사람은 방편을 강구하여 오로지 공행(空行)을 다하도록 하라. 내가 달마 대사를 따라가는 까닭은 심인(心印)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대들에게 바라는 것은 각자가 공을 세워 모두가 피안(彼岸)에 이르는 것이다. 부디 공을 이루기를 바란다.

말을 마친 신광의 두 눈에서는 또 다시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제자들도 역시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신광은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제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차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성 석재 예술원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 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청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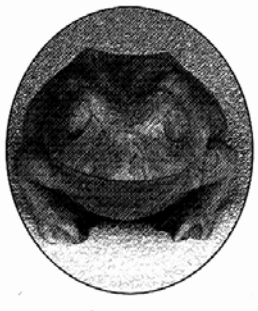
백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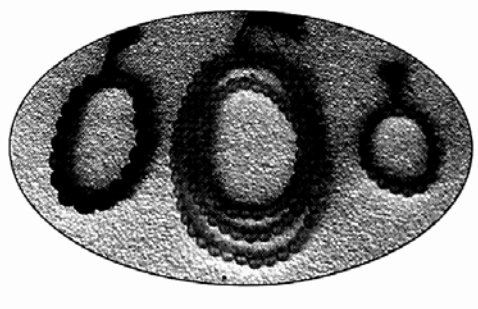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두꺼비(청옥·화옥)



단주 · 16송염주 · 합장주

종립학교를 가다

(7)해동고등학교

부산불교를 지켜갈 알찬 씨앗이 뿌려지고 실팍한 줄기가 자라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해동고등학교이다. 해방직후인 1946년 개교한 이래 62년동안 2만 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해동고등학교는 부산시내 남자 사립학교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명문이다. 부산에서 유일한 종립고등학교이기도 한 해동고는 통도사 서운암의 성파스님을 이사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 우주만유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중심에는 새벽 시간부터 불이 밝혀지는 해동고의 법당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고 널리 펴는 것이 학교 설립의 근본 취지이며 운영의 핵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염불·향 그윽한 교정 … "학교폭력 몰라요"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경을 듣고 향내음을 맡으며 해동인들은 아침을 연다. 이처럼 해동고를 살아 있는 부처님 도량으로 만드는 법당에는 매일 이른 시간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배가 줄을 잇는다. 법당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은 종교적인 의미에 앞서 하루를 계획하고 일상의 감사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5분 명상은 맑은 심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함께 교사들도 삼귀의례로 시작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자고 서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무리 큰 배라도 방향타만 잘 잡으면 항해는 순조롭기 마련. 요즘의 해동고가 그렇다. 종립학교의 기본이며 핵심인 교법사가 우뚝서야 학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교법사를 존중하는 것을 오랜 전통으로 이어왔다. 학교장이 앞장서 교법사를 존중함으로써 모든 해동인들은 교법사를 통해 전달되는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큰 방향타를 갖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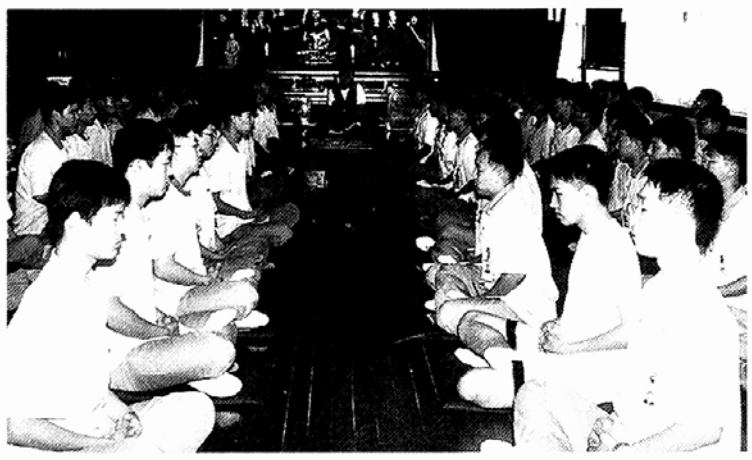
설립 초기와는 달리 시설면에서 낙후되었던 해동고는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불자들의 지원을 받아 최신 설비를 갖춘 강당과 교실을 증축한다. 11월 중순 착공해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그동안 교무실 옆에 위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어려운 법당도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법당공간을 일반인들을 위한 교리강좌나 문화강좌에 활용함으로써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학부모회를 구성해 '모든 경영에 학부모, 교직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교육을 실현한 해동고는 1998년 교내 네트워크 및 초고속 국가망을 갖추어 개별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같은 교육환경 조성의 결실로 1980년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비롯 지난해 9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내는 등 부산 최고의 대학 합격률을 자랑하는 해동고는 교실붕괴나 학교 폭력이 없는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교법사를 중심으로 법당은 곧바로 학교 생활관의 기능을 발휘, 자발적인 참회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www.haedong.hs.kr) 공간에 해동건의함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고민에 대해 교사, 교감, 교장이 직접 나서 적절한 답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동인은 누구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문제발생의 뿌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가상공간의 의사소통은 학교 특색 사업인 편지쓰기에서 되살아나 보은의 마음을 해동인에게 심어주고 있다. 또한 4백여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인터넷 법당(http://www.cafe.daum.net)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가상공간을 통한 법회와 신행을 이어가며 사이버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인터넷 법당에서 해동인의 자긍심과 애교심을 키워가고 있다.

'실력'과 '심성 함양'이라는 두 열매를 알차게 맺은 수령 6십을 넘은 거목 해동고는 자비(남을 도우자) 지기(나를 알자) 실행(몸소 행하자)이라는 교훈을 체득한 인재들을 배출, 세상 곳곳에 불심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1946년 개교한 해동고등학교는 이사장 성파 스님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안정수 교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교법사 존중 풍토 자랑 | 교내 초고속 통신망 구축
11월 최신식 건물 증축 | 인터넷 법당 신행도 활발

참나 찾기 청소년 팔관재 모임

29일부터 팔공산·감포서
선수련·문화재 답사 등

한국불교청년회(이사장 도각스님)와 마음의 전화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구 팔공산과 감포 문무왕릉 일대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 밝은 미래를 열자'란 주제로 참나찾기 청소년 팔관재 큰모임을 연다. 문화관광부와 태고종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선 심리상담과 선수련 △팔관계 수계 △문화재 답사 △자연과 함께하는 호연지기 △태고보우 원증국사의 효사상 강의 △청정환경가꾸기 △부처님그리기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사장 도각 스님은 "팔관재 큰모임이란 태고보우 원증국사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계승시켜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행사"라며 "수행과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만큼 청소년들이 신심을 고취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마감은 23일까지이며 참가 청소년들에게는 24시간 봉사활동 확인서가 지급된다. (02)326-0248

청소년 단신

위덕대 신라탐방단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위덕대(총장 손재석)가 대구·경북 지역 중고생 2백여명을 초청해 신라문화탐방단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신라문화탐방단은 26일부터 3일간 불국사를 비롯한 분황사, 황룡사, 기림사 등 경주지역의 불교문화 유적을 답사한다. 이외에도 신라문화탐방 프로그램에서는 신라역사과학관과 남산일대의 불교유적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054)760-1062

양정수련관 영상캠프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7일부터 2박3일간 경남 합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01 청소년 자원봉사 영상창작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영화제작과 관련된 실기와 이론을 배우고 직접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캠프에서 실습용으로 제작된 영화는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상영, 네티즌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영상캠프에서는 수련원 인근의 산과 계곡을 돌아다니며 오물수거를 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펼쳐진다. (051)868-0750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⑨

• 스트레칭 •



1. 어머니의 자궁안에 있는 태아같이 무릎을 끌어당겨 손으로 안으면서 한쪽 옆으로 구르듯이 눕는다.
2. '이' 소리를 내며 옆으로 누운채 두 팔과 두 다리를 쭉 편다.



무릎 끌어당겨
복근근육 강화

3. 두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단전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숨을 들이마시듯이 천천히 구르듯 눕는다.
4. '뭐' 소리를 내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눕고, '꼬' 소리를 내며 처음 방향으로 반복한다.



이 스트레칭 동작의 핵심은 무릎을 끌어당길때 고개와 닿을 정도로 최대한 당기고, 또 두 팔과 두다리를 펼때도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스트레칭의 반복으로 배근육이 당기면서 강화되고, 척추와 골반이 늘어지면서 반대로 복근 근육을 조여준다.

"부지런하면 통한다" 교육철학

해동고 김명배 교장



해동고 출신인 김명배(사진) 교장은 학교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6시 50분 출근부터 밤 8시 퇴근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학교 구석 구석을 가꾸기 때문이다. 휴지를 줍고 학생들 휴식공간인 화단을 돌보는 김교장의 바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매일 어김없이 법당 부처님을 뵙고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김교장은 말없는 행으로 "부지런하면 통한다"는 평소 소신을 펴고 있다. 또한 김교장은 "종립학교에서 교법사는 전쟁터의 지휘자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며 "건학 이념을 살려 부처님 법이 살아 있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립학교 스스로 불법과 교법사의 귀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불법의 향기로 아이들의 심성이 맑아지고 불교철학이 아이들의 인생철학이 되는 것을 볼 때 종립학교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는 김교장은 아이들의 언행, 일상 등 삶 중심에 부처님 법이 살아 있도록 하는 교육을 향해 궂은 심부름을 마다 않는다.

모교사랑에 33년을 찰나처럼 보내온 김교장은 "남은 임기동안 후배들이자 제자인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법사실에서 — 안정수 교법사

말보다 행·마음으로 포교



"'나'라는 상을 깨고 말보다는 행과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친근하고 다정한 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해동고 교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수 법사는 말없이 교사나 학생들을 맞이하는 법당의 부처님을 닮고 싶다.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보여 언제나 조심스러운 안법사는 그러나 해동고 법당 운영에 활기를 되찾게 한 장본인. 가장 먼저 법당문을 열고 해동인들의 시작을 준비하는 안법사는 해동고의 법당에 꺼지지 않는 촛불을 밝히고 있어 그 정성과 원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불법이 특별한 데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안 법사는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또 개선하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안법사의 또 다른 원력 하나는 법당 이전. 현재의 법당이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로 법당을 이전하고 학부모, 지역민 모두에게 개방해 교리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인 말벗 봉사·진료보조 '눈길'

동아리탐방

불교학생회



악대반, 유도반, 방송반 등 해동고의 특활부서중 해동고가 제 색깔을 내도록 앞장서고 있는 특활반이 불교학생회(회장 김종명). 현재 62기가 활동중인 불교학생회는 학교와 역사를 같이하며 오랜 전통과 깊은 신심을 자랑하는 모임으로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매일 봉행되는 아침예불, 저녁예불 준비와 매주 토요일 학생법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가하면 매달 1.3주 일요일 두 송복지관 봉사활동, 인터넷 해동고 법당 운영 등 악방의 감초처럼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동폭은 넓다. 특히 불교학생회가 직접 연잎을 빚어 만든 연등은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쉼터인 법당을 장엄하는가 하면 초파일이면 학교 전체를 천개의 등으로 장엄해 '학교가 부처님 도량같다'는 찬사를 받게 하는 주역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들은 이미 부산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들의 뒤를 이어 부산불교의 기틀이 될 인재들임을 확신케 한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수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실천하지 못하는 공부는 허탕

우리가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더더욱 과학을 연구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실천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모든 게 허탕한 일이니까요. 컴퓨터 학교를 만든다든가 또 대학에 한 팀이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거고, 하여튼 여러분께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구석구석, 살아나가면서 하나 하나 어떠한 문제라든가 그 컨걸 위해서 진실을 서로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정의로서 반듯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만약에 에너지가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허공에서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공서 끌어오는 에너지

예전에 어느 스님이 5층 층층대를 올라가는데 올라와서는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올 때 애썼다고 하고 또 내려와서도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뒤뚱거리고 애를 썼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깐 요만하면 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은 얕고 이상해서 그런 생각을 잘 한다 이런 소립니다.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야 어려움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모를 모시는 데도 어떤 집에서는 항상 똥을 누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노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하죠. 이전에는 집집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지금은 병원으로 가서 저거 하지만 예전엔 집에서 모시는데 벽에다가도 똥을 발라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시는 것도 즐창 모신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지루하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지금 모시고선 고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모시거든요. 그러니깐 지루하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한다는 게 없이 했더랍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할 게 없습니까?

▲질문자1: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본래 부산에 있다가 대구로 와서 처음으로 대구 지원 법형제에 소속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구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스님께서 법문 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아직 궁금한 점이 많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구가 아니고 다른 별에 대한 살림살이들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항상 법문을 하시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스님: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자1: 그 부분을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세계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스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제는 옷을 벗고 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바깥에서 보물을 구하러 도둑이 들었더랍니다. 도둑이 한 대여섯 명이 들었는데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그냥 다섯으로 화해서 전부, 쭉 그 스님 앞에 하얀 가사 장삼을 수하고선 두런두런 앉아 계시거든요, 주장자 하나씩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다가 너무나 놀라서, 그냥 빈방인 줄로만 알았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쭉 앉아 계시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놀라서 가만가만히 그냥 되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못하고 나갔대요. 그런 연에 스님은 가셨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한번 큰 색경을 놓고선 여러분 자신을 비춰 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마주 보일 테죠. 그런데 하나만 마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이가 열 개가 앞에 딱 놓여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 스스로서 이해가 가서 알게 되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가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귀하기도 하고 아주 천박하기도 하죠. 얘기 못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번연히 아는 것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를 해서 안 되는 일, 얘기를 해서 되는 일, 식구들이 모두 싸움이 일어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둘러서 말을 잘 해서 무마시키려니까 참 힘이 드는데 지혜가 있으면 힘들지 않고 원만히 잘 넘길 수 있다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을 동시에 둘로 보지말고 하나로 보고서 우리가 닦아 나가면은 그대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다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자불이라고 하면 자기 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위로 섬기게 돼서 가깝게 생각하지 않을 까봐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내려보지도 말고 올려보지도 말고 항상 둘이 아니게 친근하게 같이 할 수 있다면 설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친구처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일이 생겨도 "너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을 때에 그게 다 무마가 되고 막아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림 · 최주현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없어야 편안

불성 둘로보지 않고 닦을 때 알수 있어

당장 밥을 굶게 되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깐 아주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질문자1: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대법회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질문은 한 서너 명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들을 스님께서 점을 찍으시고 따로 챙겨 주시는 부분이 계신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챙겨주고 안 챙겨 주고가 없이 챙겨져요 그냥. (대중웃음) 하하하.

질문자1: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법형제 법회가 토론회가 돼서 스님과 더불어 이와 같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질문자2: 저는 간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스님을 친견한 한 대구지원법형제 회원입니다. 조상님께서 절 앞에 묘를 썼던 이야기도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간이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은 논에 양수기 모터에 감전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강산도 푸르고 하얗구나!"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꿈에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얘기죠.

▲질문자2: 예. "금강산도 푸르고 하얗구나!" 하셨습니다.

색경놓고 자기 비춰 보라

▲스님: 예. 푸르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삶의 생명체고 흰 거는 벗어났구나 하는 소립니다.

▲질문자2: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스님: 그걸 따지고 보면 아버님은 아주 공부하시면서 가신 모양이네요.

▲질문자2: 오늘은 산혈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스님께 여쭙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예천군에 있습니다. 내성천이란 강이 내려오다가 다시 강물이 위로 2~3천 미터 올라가다가 구비 쳐서 낙동강으로 합류합니다. 그 형상이 용이 머리를 들고 위로 승천하는 형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두부 자르듯 잘려 있습니다. 황토 물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잘리는 순간에 그 황토 물이 석 달을 흘렀다고 하여 용의 피가 석 달을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임진왜란 때 이여송이라는 중국 장수가 조선 땅 산천을 보니 인재가 많이 난다고 하여 명산에 혈을 끊고 높은 산은 쇠말뚝을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산혈을 끊고 쇠말뚝 박은 거와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나는 거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법문 청하옵니다.

▲스님: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런 문제가 많았죠. 조선의 산에는 어느 산이든지 좋은 산은 다 쇠를 박았답니다. 쇠를 박았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뽑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뽑을 수 없는 거를 함이 없이 뽑으면 되지 않나? 하구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문자2: 예. 그렇게 산혈을 끊어버리고 혈을 끊은 건 어떻게 됩니까?

▲스님: 산혈을 끊으면 요 다음에, 산혈이 끊어졌으면 생산처가 안 되죠. 사람이 나질 않죠.

▲질문자2: 강물이 쫙 내려오다가 용을 틀고 다시 쫙 올라갔는데 중간을 끊어 가지고 그 해 황토 물이 석 달을 흘렀다고 하여 피가 석 달을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장수가 삼각산의 혈을 찌르러 가다가 삼각산 초입 동이한테 혼이 나서 중국으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스님: 글쎄 그거는 우리가 생산처에서, 그게 끊어지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일제 시대 때고 임진왜란이고 어느 때든지 구석구석에 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질문자2: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됐어도 그 시대에만 그렇지 되살아서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어져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3: 제가 3월 달부터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석 달이 됩니다. 스님의 법문은 아직 너무나 어렵고 저 같은 중생은 언제 깨우칠지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 두분 오다가 관두고 너무나 높은 법문에 이해가 빨리 안되고 마음은 바쁘고 이래서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이 초심자가 어렵지 않고 힘은 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스님: 지금 저 앞서 질문하고 가신 분도 그렇고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면 듣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그냥,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쉽고 어렵지 않게 다 일러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걱정 없이 살라고요.

▲질문자3: 스님께서는 모든 걸 주인공한테 놓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 라고 말씀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와 닿는 것은 멀기만 한 얘깁니다. 이런 높은 법문을 좀더 쉽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자가 가는 길이 어느 정도까지는 고행과 힘이 들더라도 참고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이 사회에 너무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퇴폐하게 각 가정마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젊은 지성인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회풍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은 그 자체가 공부하는 절, 다른 신도들이나 타 절의 스님들께서 한마음선원에 다닌다 하면은 상당히 공부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공부하는 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음선원을 앞으로 스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일반 학교처럼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을 양성하고 앞으로 이 한마음공부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에 불성도 있어

▲스님: 그래서 이렇게 내 몸 아닌 내 몸들이 이렇게, 스님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곡하면은, 자기 마음이 어지럽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극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지극하고 진짜로 못 믿는다면,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지극하지가 못 하죠.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회사를 하는데도 쉿덩어리지만 쉿덩어리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 쉿덩어리더러 그랬답니다. "너도 남이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서 고칠 수도 없이 만들면 어떻게 하니?" 하고 아주 사정을 했답니다. 사정을 하니깐 그 이튿날부터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질문자3: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너무나 수준이 안 맞는 낮은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한마음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나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 질문을 아니 올릴 수 없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으신 저희 모친은 스님께 누가 안 되는 질문을 하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집사람은 차 타고 오는데도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나중에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은 이 질문을 올림으로써 제가 한마음공부에 한층 매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님의 판단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투놀이 때문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모임이 끝나면 이 놀이를 하는데 이거만 쥐면은 시간가는 줄을 모릅니다. 세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밤샘을 여사로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문지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은 안하고, 장관들도 하고, 장군들도 하고, 대학교수들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하고, 가정주부들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유원지에 가면은 식당 방마다 서너 명만 모이면 하고, 휴가철에 좋은 골짜기에 가면 다 그늘에서 하고, 대한민국에 70~80%는 여기에 전부 정신을 팔고 있습니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인공 내게 있으니 걱정없이 살라

☞ 19면에서 계속

다.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고 이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라면은 적당한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따도 별로 상대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겪어보니 안 좋고 내가 잃으면은 안 할걸 하고 후회되고, 안 했으면 좋을 건데 하고 반복해서 걱정이고 해보면은 끊어야 되나 안 끊어야 되나 항상 의문이고 저 보다도 우리 보살은 또 더 좋아합니다. (대중웃음)

▲스님: 하하하

▲질문자3: 오늘은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스님의 가르침에 "무자르듯이 탁 끊어라." 하면은 평생을 안 쥘 각오는 돼있습니다.(대중웃음) 그러나 이것은 놀이로써 하되 중심을 잡고 서서히 끊어라. 뭐 어떤 가르침을 주시든 저는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지극해져

▲스님: 그거는 하라 하지 마시라 하고 내 자유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하면은 잃거든요. (대중웃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텐데 어떡하다가 하면은 그냥 또 모두 잃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증권 있죠? 어떤 분이 증권을 하다가 몇 천 만원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한번만 딱 해주시면 (대중웃음)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울면서.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깐 자기가 산 것만이 올라가더랍니다. 자기가 산 것만 올라가고 딴 데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얼른 또 욕심부려서 그거 망할까봐 빨리 팔아서는 빚 다 갚고 다 해결했다고 와서 그러더군요. 그랬으니 망정이지 또 욕심을 잔뜩 부려 가지곤 더 올라가라고 그냥 뒀다가는 큰일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신들이 잘 생각하세요. 나보다 덜 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렵다는 건 다 아시죠? 어렵다는 걸 아시면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북하면 노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돈 잃어 버려도 찾을 길이 없고 또 찾는다고 해봤자 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장난으로 저거 하면은 선생님 말마따나 장난으로 그저 두어 서너 번 치고 그만 두었으면 좋으련만 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돈이 그대로 있나요?

▲질문자3: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대중웃음) 요번 여름 휴가철에는 한마음요전을 가지고 화투하고는 멀리하고 또 한마음 정진에 매진하도록 스님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대중박수) 감사합니다.

▲질문자4: 은혜 감사합니다. 무지한 중생을 한마음 법과 인연 맺게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마음선원과 인연 맺은 지 5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인연 맺고 난 이후 하루 하루가 너무 즐겁고 희망찹니다. 스님 가까이서 뵙고 싶어 가지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4: 법문 넓히는데 큰 일꾼 되기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질문자4: 그리고 초심자들 공부하는 길에 가르침 하나 부탁말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앞서 질문자가 말씀드려서 그만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가 공부가 안되느니 되느니 하지만은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는다면요,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막을 수 있게끔 자기 형상 아닌 형상이 되어서 벌써 맡고 있거든요. 모두 그거를 모르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렇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지 믿지 않는다면은 누가 심부름을 진짜로 해 주겠습니까?

그러고 아까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그렇고, 그거를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나 건재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잘 가르치면은 크게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부모 조상님들이 잘못돼서 자손이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무데나 갖다가 묻어놔도 물 지옥이 있고 나무 뿌리 지옥이 있고 돌 지옥이 있고 이렇게 지옥이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데 들어가도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다면 조상도 참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이 편안해야 자손들도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에, 자기 주인공에 조상님들도 우리 자손들을 돌보시려면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고 관리하시게 하고 정히 어려우면 그렇게 라도 하시고 또 항상 진짜로 믿는다면은, 진짜로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제3자를 믿어서 대신 살아줍니까? 그러니깐 자기 아닌 자기를 믿어 야죠. 길게 내려오면서 자기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해도 자기이니까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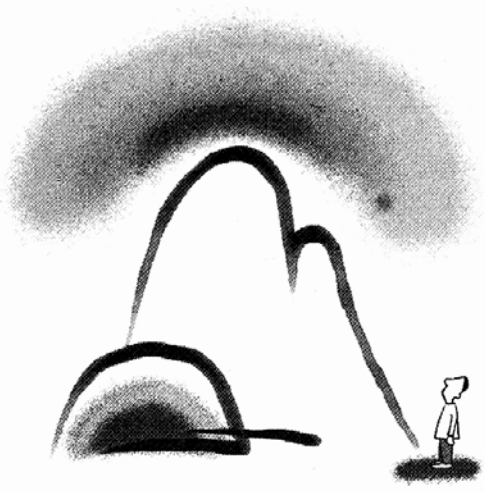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 보이는 근본자기 진짜로 믿고 '너만이 할 수 있다' 고 맡겨 놓으니 거기서 모든 걸 다하게 되는거죠

조상 편안하면 자손 편안

진짜로 믿어야, 옛날에 도술을 익히는데도 그런 공부가 아니라면 도술을 익힐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모두 어느 산으로 어떤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스물도 더 되고 서른도 더 되고 점점 늘어나서 많으니깐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니깐 잡지를 못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산에서 칼싸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깐 그 사람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겼더랍니다. 그러고 한사람이 말을 하는데 열 사람 스물 사람이 다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잡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갔답니다. 그러니깐 이 도술이 아니라면 도심이 아니라면, 믿지를 못하면 안되죠.

지금 어떠한 물건이 도저히 에너지가 없다 이런다면은, 모든 국민이 에너지가 있어야 살텐데 에너지가 없으면 죽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믿어야지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통신처가 막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네가 너를 믿지 않고 어떻게 살려느냐 그러더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로 믿고 그랬더니 살 길이 생겼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연구하는 것이 며칠 안 있으면 발표를 하게 된답니다. 그냥 에너지 전기가 나오는 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다 써도 남을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밥을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들도 못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급한 게 무엇이냐? 한다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널리 해 보면 제일 급한 게 뭐냐고 할 때 생각이 날텐데 말입니다. 제일 급한 게 뭔지 생각이 나세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요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자라는 애들도 살벌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살벌하고, 문제가 아주 요상하게 생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말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만이 또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걸 말로 할 수가 없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무의 세계의 그 오고감이 없이 오고가는 문제들은 요만큼도 잊지 않고 요만큼도 잊어버리는 이치가 없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신계와 물질계, 이 몸이나 정신계나 둘 아니게 같이 움죽거릴 수 있다면, 그렇게 움죽거리게끔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자기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진짜로 믿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니깐,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거기다가 다 맡기고 놓으니깐 거기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게 진짜 나이지 살다가 죽는 거는 진짜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전체 생각을,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질 않아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애들도 잘 배워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두루 하신다면 산에서 야호 하면 야호 하고, 악을 쓰면서 야호 하면 야호 하는 게 다시 들어와서 악 쓰듯 들리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치기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치기를 믿고 잘 하신다면 사방에 그 공이 떨어져서 모두 통신이 된다고요. 무의 세계는 모든 통신이 된다고요. 잘못되게 하는 일들이 없거든요, 무의 세계에서는. 산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죽은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한 친구니까, 둘로 보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왜 언짢게 하겠습니까? 둘로 보고 팽개치는 일들이 있으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깐 생각을 한번 하더라도, 전에 얘기입니다만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추를 다 따가고 남은 찌꺼기 요만한 거를 배가 고파서 땄더니 네 배를 채우려고 어떻게 남의 고추를 따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고추가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어디쯤을 가다가 보니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위를 꺾으려니까 너무 아파할 것 같고 밑에를 꺾으니깐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래도 그건 밑을 먹어야지 어떻게 위 순을 짤라 먹습니까? 남의 생명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러고서는 밑을 꺾어서 껍데기를 벗기고 먹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었느냐? 진짜로 믿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지 않는 다면은, 누가 생각하다가 아휴!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꼭 해 줘야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속으로만 생각할 때에 누가 그거를 얼른 받아서 합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러고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보물이고 정말 좋은 보배죠.

사람 마음은 인정 있어야

하루 종일 내가 나가서 저거 한데도 너는 하루종일 굶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뭘 먹든지 먹게끔 하거든요. 그건 뭐든지 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잘 나고 똑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가서 돌아 다녀 보세요. 잘 나고 똑똑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좀 자고 가자고 그러니깐 산에도 거지가 있나? 이러고선 뒷덜미를 잡아서 저리로다 갖다 놓는 거 있죠, 하하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인정이 있고 없고 간에 인정이 있어야 되겠다 한거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해를 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죠. 할 수 없는데도, 그 방면에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그릇을 더 크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다면은 통신처가 영 없어집니다. 그러고 자기 주인공이 없습니다.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꼭 그렇게 해서 자손들도 고생 안 하고 살게끔 다 가르치시고요.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의 주인공은 너한테 보디가 드처럼 항상 따르고 있다. 그러니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공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너의 주인공을 항상 지니고 있으니 진실로 믿고 그렇게 해라.' 이런다면은 자손들도 공부를 잘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다 버리고도 여러분이 잘들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2001년 7월 1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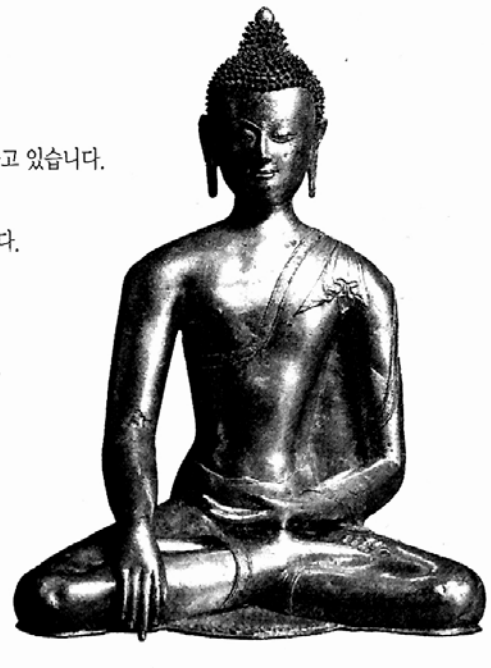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기념 특별전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티베트 불교유물특별전' 의 일환으로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하여 만다라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대표하며 신비에 쌓여 있는 만다라는
우주의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함축하고 있어 최근 전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오시면
여러 종류의 만다라가 제작되는 과정을 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티베트 특유의 밀교의식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 2001. 6. 25~9. 17(3개월간)
매주 화요일 휴관(단, 7. 25~8. 15까지는 휴관 없음)
전시장소 : 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 티베트의 탕카, 불상 등 불교유물과 의상 등 민속품 300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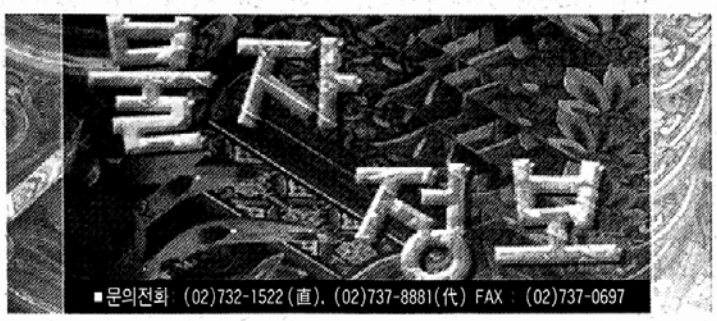
특 · 별 · 행 · 사

■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제작
기 간 : 2001. 7. 8~8. 5(1개월간)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일 정 : 오전 10:00~11:30 / 일반 만다라
오후 1:30~4:30 / 모래 만다라
7월 14 · 15 · 21 · 22 · 29일 오후 1:00~2:30 / 진색의식(총5회)
※ 진색의식 : 축원문 및 곡식을 태우면서 자신의 액운 등을 날려보내는 의식으로 수명장수, 부귀, 액운소멸 등을 기원

■ 티베트 스님 초청강연
일 시 : 2001. 7. 27(금) 오후 1시
장 소 : 박물관 문화센터

통도사장 범 하 합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384-0010
http://www.tongdomuseum.or.kr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매실액 판매
지리산 매실로 만든
청정 매실액
녹차 발효차도 판매
055)883-9321
영목 다전

최 준 작명
아기 이름전문
상호 · 아호 · 회사명 · 개명
◇ 이름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 좋은이름은 좋은 운을 부른다
■ 1호점 : 종로점(인사동 조계사 건너편)
■ 2호점 : 강서점(미즈메디 병원옆)
TEL. 02) 730-4522
02) 661-4550
H·P 011) 9005-4550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음
주) 지정 황토산업 전화 032)427-6644~5
PCS 016)360-2236

명상 수련 안내
苦 - 삶이 괴롭고 고달픈 것은 나로 인한 것이며
集 -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잘못된 생각의 기록물(업)로 인한 것임을 알고
滅 - 이것을 자기 스스로 소멸시키도록 안내하면서
道 -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인지, 결국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되어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명상의 집 SATSANG 전화 031)768-7180

효 심
본래로 가는 공세계 병고액난은 업장이고 믿음이 지극하면 소멸합니다.
02)392-5801(야간)
02)392-5809

동진기획 불교달력
www.BuddhaComputer.com
불기2546 임오년 Calendar Catalogue
불교카렌다 불교출판물
법보시책자 홍보물제작
부산 금정구 남산동 120-30번지
동진기획 & 도서출판 동진 대표 : 강태규
TEL 051-515-2988 H/P 011-554-2988
FAX 051-515-3611 TUNHWANG.COM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원조 농산 (어성초·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생즙 출시」(8월달까지)
어성초 · 삼백초 건강치와 동시상담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 증가, 뇌졸증예방, 종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등
서울지사 02) 957-8342
508-0867
011)479-0633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천도재는 3월 9월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신고바랍니다

사기 피의자 한인숙(550926-2177414)은 사찰로 전전하면서 불자행세를 하며 스님과 불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사기 피의자이니 주의를 요하며 보신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561-6644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거사님, 보살님은 연락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56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공부하면서 기도정진하고 절을 운영관리해 주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안심선원 주지 정암 합장
032)554-2029
011)9730-5690

불교사상 및 동양철학 무료강좌
I. 주역을 통한 한방역학 및 사주명리학 특강
I. 체질학 대비 오행침법 및 식이요법(뜸, 부황)강의
선지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던 스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직시 분별의 장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직관에 의한 깨달음의 상승법"을 통해 열어드립니다.
■ 강주 : 석진성
■ 연락처 : 031)256-56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62-1142
02)962-6186

공양주 모십니다
산속 토굴 기도처
▷ 충남 공주시 유구
041)841-7904
017)357-7904
017)261-79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평생 함께 생활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 행자도 구합니다
▷ 천안 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서해 바닷가 사찰
▷ 사무원, 보살 구함
(초보자 가능함)
041)673-2333

거제도 노자산 혜양사
재무보살 구함
055)633-2178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근교
• 대지 : 약 120여평(등기상 80평)
• 건평 : 인법당 30평 부속건물 10여평 방 4칸 현대식 주방
• 가액 : 4,500만원
※ 절도량까지 차량 진입
019)290-0108
055)585-9417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내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공주시 근접
• 부 지 : 1,600평
• 법당 겸 요사 : 50평
※ 천년의 계곡이 있으며 깊은 산속에 위치한 기도 정진 도량임
• 양도가 : 1억 3천
• 위 치 : 충남 홍성군 소재
• 부 지 : 4,000평
• 법 당 : 30평
• 명부전 : 20평
• 요 사 : 40평
※ 산세가 아주 좋은 포교 도량임
• 양도가 : 1억 9천(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지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평해 소재
• 부 지 : 500평
• 법당 겸 요사 : 30평
※ 목재 황토 건축한 선방이며, 맥반석 온돌 구들 및 찜질방, 대방, 누각, 암반 생수 있음
• 양도가 : 1억 8천만원
• 위 치 : 충남 증평 소재
• 부 지 : 4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2동)
※ 교통의 요지이며, 국보급 문화재 있음
• 양도가 : 3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 대지 : 2,500평 (종교용지 및 임야)
• 시설 : 대웅전 28평(5폭, 9폭, 금단청) 요사 합계 70평, 산신각, 종각
• 특징 : 70년된 전통사찰, 사찰위치 최고, 주차시설 다량 확보, 법당 인등 1,000개 이상
• 가액 : 6억 5,000만원 (장난 일체 사절)
011)9318-3230

포교당 안내
• 위치 : 잠실 본동 신천역 10분 거리
• 평수 : 35평, 방 3개, 욕실, 주차장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5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 특징 :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02)2203-1118
016)9280-117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시내 소재)
• 건물 3층 법당(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철성부처님(크기 3자), 문수 원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4천
※ 신세좋고 계곡있으며 도심 가까운 알급 사찰 도량임
• 위치 : 전남 완도
• 법당 : 34평
• 요사 : 5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3천 5백 (전세:비구니스님)
• 위치 : 성남 분당
• 부지 : 920평
- 차량 진입가
- 도심 근접하며 조용한 알급 사찰 도량 임
• 가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 임야 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사 찰 안 내(포교당)
• 위치:경기도 가평군 소재(청평)
• 부지: 약 200평
• 법당:35평(목조,단청)
• 요사:2동 60평 • 가액:3억원
• 특징:도심사철로 서울에서 40분거리 있으며 스님 심정관계로 급히 양도코저 함
• 위치:충남 괴산군 소재
• 부지: 약 700평(종교부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2동60평 • 가액:3억 5천만원
• 특징:영산철보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통법당내에 보물급 부처님 모시고 있음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전국에 소지한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암자토굴 별장용도
• 위치 : 진주에서 32Km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0-5171
※ 현지 답사 하실 분만 연락요망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 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창고겸 화장실 7평
답사 후 가격절충
011)455-6198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건물 4층 방 2 주방 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찰암자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대지 : 250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각, 약사여래분상
• 요사 : 3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자세한 문의
016)9788-3144
033)378-3144

포교당 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 찰 안 내
• 위치 : 미국 뉴욕시 한인거주 지역
• 건평 : 60평 2층 건물
• 가액 : 미화 46만불 (5억 7천만원)
※ 종교이민 영주권 상담해 드림
0011) 212-244-1443
한국시간 PM 11:00 ~ AM 7:00
미국핸드폰 718-986-8826
212-244-144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대지 : 300평, 자연석간수 뒤가 소나무산
• 건평 : 30평, 창고
• 가액 : 8500만원
042)624-5712
011)209-3622

이민관계로 급히 처분
평택시 청북면 어소리 준농림 2500 坪
투자 최적지 1~2年 사이 100%
급등 地 (현 3차선 곧 완공 예정 300m전방)
사찰부지나 선산으로 명당, 가든, 별장
(금계 포란형) 고급식당, 안가
坪堂 10만원
※ 부동산 업자는 사양합니다.
※ 실제 매입 희망자만 연락바람.
※ 일산신도시 주엽역 최고상권 女의류 보세점
8평 보500 월30 단골 다수확보, 권리금 有
(이민 관계로 처분)
031) 912-7118, 7114
011-264-4109 (임수동)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연못, 총 2583평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성 • 부지 : 1000평
• 법당 : 25평 • 산신각 : 3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 해변
• 평수 : 60평, 방 3개, 주방 1개 욕실 1개(대단위 무료주차장 완비)
• 전세 : 5천만원
• 시설비 : 절충 가능
• 특징 : 최정상급 포교원으로 모든시설 완벽, 주변경관 수려
052)298-9960
017)521-9952

사찰 안내
• 위치 : 백호산 밑 마을 위치
• 땅 : 140평 • 건물 : 방 3개
• 특징 : 비구니 스님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는 비구니스님분들께 적합
• 가액 : 2천만원
063)626-8458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인법당(20평)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1)495-7754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3-11번지 원각사 등강병원에서 울산 예식장 중간 지점
• 건평 : 22평 • 법당 : 방 2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절충
052)245-5920
011)895-2919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현곡면 남사 2리
• 대지 : 162평, 입법당, 산신각, 요사방 4개, 공양실 1개
• 가액 : 답사 후 결정
"기존 사찰스님 직접운영"
054)745-6966

명당의 주인은 미래의 주인입니다
▷ 금시 발복할 우리나라 제일의 명당이 주인을 찾습니다
0502)123-4936
地 觀

사찰 안내
• 위치 : 전라북도 지역 94년도 건물
• 대지 : 129평
• 건물 : 100평
• 청심한 스님이면 대환영 가격 절충 가능 1억 8천만원
063)291-9832
019)655-983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옥류 2리 103번지 회향암
• 평수 : 432평
• 건물 30평, 임법당
• 기도 도량 최적지
• 가액 : 3천 8백만원
054)733-81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 대지 : 35평 3층 건물 (2층) 방 2개 주방 1
• 가액 : 보증금 2,6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무
017)517-1690

해인사·팔만대장경 6·25 전란서 수호

김영환 장군 공적비 세운다


◇故 김영환 장군

폭격명령 거부 공훈기려
대장경 경판 본뜬 황등석
가야산서 9월중 제막식

6·25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에 대한 폭격을 거부, 잿더미로 변할 뻔한 해인사 도량과 고려대장경을 지켜낸 김영환 장군의 '팔만대장경 수호공적비'가 오는 9월 해인사에 건립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8일 "97년 공적비 건립을 추진했다가 경제난 등으로 지연된 김영환 장군공적비 건립이 해인사의 수용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공군본부와 협의해 9월중순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로 250cm, 세로 215cm 크기의 공적비는 대장경 경판 모양을 본떠 황등석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문 문안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이 맡았다.

김 장군은 51년 9월 18일 당시 제1 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던 중 해인사가 공비 1개 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들은 미 제5 공군비행고문단의 해인사 폭격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해인사와 고려대장경의 소실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 해인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뒤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 1천 여명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벌였기 때문. 소탕작전에 들어 간 국군은 1951년 12월 18일 해인사를 폭격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지원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출격한 뒤 명령에 불복, 불시착을 감행하면서까지 해인사를 구해냈다.

이로 인해 김대령은 군사재판에까지 회부됐으나 전쟁에서의 공훈이 인정돼 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1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 대령은 6.25 때 최초의 국내인 전투조종사로 많은 공을 세워 조종사의 상징이 된 영화 '빨간 마후라'의 실재 주인공이기도 하다.

1954년 1월 준장으로 진급했으나 두 달 뒤 34세의 나이로 F-51 전투기를 몰고 강릉기지로 향하던 중 악천후로 인해 추락, 순직한 그는 공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을지, 충무 무공훈장과 미 비행훈장, 공로훈장 등을 받았다.

한편 해인사 폭격 명령 불복종에는 생존해 있는 전 공군 참모총장 장지량 중장도 동참했다는 주장이 있어, 그의 공덕비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국보(32호)는 물론 세계문화 유산으로까지 지정된 팔만대장 경판 및 장경각은 6.25전쟁 전에도 2차례나 결정적인 멸실 위기를 만났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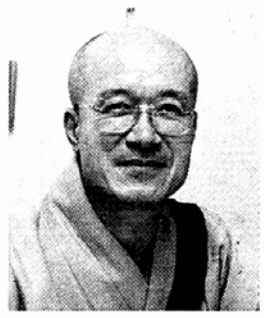
첫번째는 조선 초기부터 180여 회에 걸쳤던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조정이 자칫 이를 내어 줄 뻔한 일. 두번째는 임란 때로, 왜구는 성주까지 점령해 경판 약탈 직전이었으나 소암대사의 승병과 곽재우 장군 등의 의병들이 가야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입을 막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화장문화 널리 알릴터"

서울 동작구불교련 혜철스님



서울 동작구 불교연합회는 단합이 잘 되기로 유명하다. 지역 사찰 스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전통을 1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동작구 불교련은 다른 사암련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동작구 불교연합회 회장 혜철스님(청련사 주지)은 "화장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연합회도 올 하반기부터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선 불교연합회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 뒤 반응이 좋으면 구민들로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국립묘지 호국위령재 추진
소년가장·불우시설등 위문

동작구 불교연합회가 추진하는 독특한 사업 하나가 또 있다. 혜철스님은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충효사상을 재정립하고 호국불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불교의식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수륙대법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1980년 창립된 동작구 불교연합회는 67개 사찰로 출발해 지금은 80여개 사찰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 사찰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으며, 동작구 내 모든 사찰이 연합회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동작구 불교연합회는 90년대 중반부터 사회활동에 눈을 돌렸다. 매월 두 차례 각 사찰에서 쌀을 걷어 관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해오고 있고,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영정사진 찍어주기 활동도 벌여오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교도소나 불우시설을 위문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연합회는 회원사찰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질 함양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몇 년간 불교의식 강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교양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의는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뤄지며, 참여율이 대단히 높다.

혜철스님은 "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은 종단은 서로 다르지만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규모를 더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를 더 높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서산 가야산 불교문화촌 건립

충남도 보원사지 복원 · 전시관 · 상가 등 짓기로

충남 서산 가야산 일대에 '불교문화촌'이 들어설 전망이다.

충남도는 18일 내포(內浦)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명찰 수덕사가 있는 서산 가야산 일대에 민자 150억원을 포함, 모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불교문화촌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불교문화촌에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및 정비사업으로 불교 역사문화 전시관, 불교문화 체험관, 수도관, 불교관련 기념품점 및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민속자원 개발를 위해 전통옹기 시연장,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회관, 궁중요리 전시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세기경 해상활동을 통한 국제문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고려초에 창건된 당간지주를 비롯한 여러점의 보물로 유명한 보원사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연내에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불교문화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도시생활에 찌든 일반인들이 심신수련과정을 직접 겪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선원사 박대통령 천도재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8월 4일 4천일기도 500일재를 맞이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 천도재 및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천도재는 오전 10시 사시불공을 시작으로 11시 30분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초청 법회, 12시 30분 고 박정희 대통령 내외 천도재 순으로 진행된다.

선원사는 고 육영수 여사가 1976년 선원사지를 지정하는 등 선원사 복원에 공헌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번 천도재를 계획했다.

고려대장경 판각성지인 선원사는 현재 4차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선원사 복원을 위해 천일지장기도와 4천일 기도를 매일 봉행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작년 전국도보순례 日 이와다 스님

올해도 "과거사 참회" 고행

"한국은 한자를 전해준 왕인 박사를 비롯, 불교 유교 등 일본에 많은 도움을 준 은인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승복 차림으로 '사죄'와 '사은(謝恩)'이라고 적힌 가방을 메고 우리나라 전국을 걸어서 순례해 주목을 받았던 이와다 류조 스님이 1년 만에 다시 '일본 과거사 사죄'를 의해 고행에 나섰다.

한달여의 일정으로 전국 순례길에 오른 이와다 스님은 첫날인 18일, 지난 1월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남자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고 이수현씨가 잠들어 있는 부산시립공원묘지를 찾아 일본 불교식 재를 올렸다.



올해 66세인 이와다 스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하루 15㎞ 이상씩 걸어 전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염불과 함께 과거사 반성, 사죄의 의식을 행할 예정이며, 내달 15일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에서 3일간 재를 올릴 계획이다. 내년에도 순례에 나서겠다는 이와다 스님은 도쿄 시부야의 일련교 일본산묘법사 소속이다.

김재경 기자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경남도 27곳에 33명

경남도는 16일 해인사 등 27곳의 유명 관광지나 문화 유적지에 3주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문화유산 해설사' 3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해설사들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주부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들로, 그동안 진주전문대에서 가야권 문화와 사찰 및 불교문화, 임진왜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배치된 곳은 합천 해인사와 밀양 표충사, 양산 통도사, 남해 충렬사, 남명 조식선생 사적지 등이다. 김재경 기자

관음사 불교문화대 개강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중원스님)는 오는 9월 5일 개강하는 제주불교문화대학 제4기(야간반) 입교생을 모집한다.

교육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불교교육관에서 열린다.

입교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064)702-2828.

전주교도소 봉불식

전주교도소 봉불 대법회가 5일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전주 연화사(주지 원경) 후원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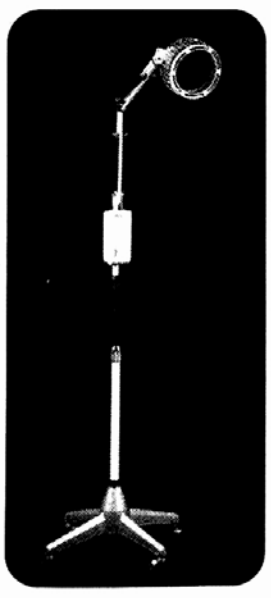
태고종 전북종무원 상임부원장 승천스님과 김제분회원장 혜환, 익산 도덕사 주지 청림, 전주 연화사 주지 원경, 재소자 불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부처님 점안식에 이어 재소자 불자 유남철씨 등 17명의 육법공양, 혜환·청림스님의 천수바라춤 및 나비춤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재열씨외 19명의 불자들은 이달의 불자상을 수상했으며, 일광사·연화사 신도들은 선풍기 2대와 떡·과일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승천스님은 설법을 통해 "재소자 불자들은 오늘 부처님을 모시는데 그치지 말고 나의 마음속에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항상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업장소멸과 무명 해탈을 위해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권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행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증상별)
1.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2. 피부증상(악성 제균성 피부질환, 지루성 피부염, 습진, 무좀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혀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뇨 장애자 신장
5.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6.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7.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8.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자궁 내막염)
9. 고질적인 치질·치루·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F.D.A에서 특정 자기파 (T.D.P) 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한국 95년도 보건 복지부 인정 수입
※ 각종자료 - 무료 우송함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무료전화 : 주,야 080)522-2464 / H.P : 019)614-2550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쉽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조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만 경쳐 보면 손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부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왔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아, 미리 그 내용을 지적하므로써 상대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판단上 행사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부는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 치료가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따라서지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吉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방향을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혹은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은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은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流出되지 않도록 陰陽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올컬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19호 임실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려

육임 세밀정단법 출시중
· 출판사등록번호 강남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1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회득 된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甄卜子 韓果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쪽으로 100M쯤의 기원정사 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門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

보림회 28년간 토요 철야정진



◇故 백봉 김기추 거사

백봉 김기추거사 제자들
청년들도 동참…회원 120명
여름-겨울 일주일 용맹정진



◇매주 주말마다 철야정진을 갖는 보림회 회원들. 이들이 있기에 재가불교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14일 오후 5시 서울 정릉 산자락에 위치한 보림사 선방.

30여명의 재가 불자들이 故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법문을 1시간 가량 들은 후 입정에 들었다. 백봉 거사의 유일한 출가 제자인 보림사 회주 묵산스님의 지도하에 참선정진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된다. 40대의 장년층 거사와 보살에서부터 70대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50분 정진, 10분 휴식으로 진행되는 좌선의 깊은 몸동작은 흐트러짐이 없다.

백봉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회장 이수열)가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주말 철야정진을 해온 지는 어언 28년. 여름,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역시 무려 55회 째를 맞이해 재가 수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30여년간 매주 철야정진을 해 온 전근홍 총무는 "'너와 내가 비었는데 말하는 자는 무엇이며 듣는 자는 무엇인가? 만약 오늘 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 때 사람을 잊으리'라는 스승님의 보림삼관(寶林三關)의 빗장을 하나하나 열어나가면 닫힌 마음이 열리고 눈에서 분별의 비늘이 떨어지며 망상을 놓아 참다운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림회는 이러한 오랜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27일 오후 8시부터 내달 2일 오전 7시까지 제 55회 철야 용맹정진을 갖고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120명의 보림회 회원들은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릉 보림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각각 정진하는 한편 백봉 거사의 거사풍(居士風)을 전하고 있다. 백봉, 유마 거사의 가르침에 따라 힘없고 병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집과 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의 길에 친절한 안내인이 되고자 말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백봉 거사는 외로이 독립운동을 하던 암울한 시대를 뒤로한 56세에 불법을 만나 '무자(無字)' 화두로 정진하던 중 6개월만에(1963년 1월) 새벽 종치는 소리를 듣고 활연대오(豁然大悟)한 우리시대의 도인이었다.

1965년 서울에서 '보림회'를 결사한 후 각계 각층의 재가불자들에게 금강경을 설법함으로써 우리나라 불교계에 거사풍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며, 1969년에는 충남 대덕군 죽동에 '보림선원'을 개창한 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마경을 설하는 등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대중 강론과 집필 활동에 주력, 한국불교 재가운동의 큰 산맥을 이루었다.

백봉 거사의 법을 따르는 보림회의 또다른 특징은 간화선을 근기에 맞게 수행하면서도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화두가 되는 생활선을 강조한다는 것. 묵산스님은 "일할 때는 일을 충실히 하고, 운전할 때는 앞차 뒤차 잘 살펴야해요. 거기서 화두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일과를 정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보고 듣는가', 이렇게 궁리를 하다보면 때가 옵니다."며 불자들의 발심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추진 반대"

조계종 환경위-봉선사
도로공사 "7천억원 절감"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봉산쪽에 거대한 터널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국립공원을 침범하지 않고 10㎞ 이상을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일면스님)가 터널 반대운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가운데 송추~의정부 구간 공사를 남겨두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측은 도봉산쪽 사패산 아래에 길이 4.6㎞, 왕복 8차선의 터널을 뚫어 순환도로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계종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20여개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이 갖는 상징성 자체가 중요하고 국립공원 생태계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며 "국립공원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공사 측은 "도로가 우회할 경우 7천억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보상 등으로 인해 공사가 더 늦어진다"며 "국립공원 훼손은 피할 수 있지만 전체 산림훼손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터널을 짓되 터널 양쪽 입구 6백m~1㎞는 도로 건설 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을 것을 도공측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경관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이 방안도 약 1천억원이 더 필요해 도공측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의 중재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봉선사를 비롯 회룡사, 망월사, 원각사 등 관통도로 인근사찰, 비롯 환경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특정종교의 전도사업으로 오인받고 있는 19번 국도변의 십자가 표지판.

십자가 도로표지판
영동-무주간 국도변

영동경찰서가 영동-무주구간 19번 국도변에 설치한 '교통사고 사망지점' 표지판 7개에 붉은 십자가가 대형으로 그려져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성양원(원장 김영렬)과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양산)가 최근 "영동경찰서가 특정종교의 전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영동경찰서는 "특정종교를 위한 전도의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영동군청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수재민 돕기나선 은평복지관

무료세탁 서비스

은평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이 14일 서울 전역에 몰아친 폭우로 수재를 당한 은평구 구민 돕기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이 16일 불광 1, 2동 등 은평구 수재지역에 자원봉사자를 급파하고, 흙탕물에 뒤범벅된 옷이나 이불 등을 수거해 무료세탁 서비스를 실시한 것. 특히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노숙자쉼터 '희망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3명이 무보수로 일해 훈훈한 인정미를 더했다. 이들은 복지관 지하실에 마련된 '홍길동 빨래방 센터'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의 세탁물을 세탁하며 재활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수재민의 애환을 깨끗이 정화하는 무료세탁 서비스에 기꺼이 동참한 것이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세탁 서비스는 은평구청의 요청에 따라 각 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오종욱 기자

교계 화장비율 기독교보다 낮다

서울시 1494명 조사
10명중 6명 화장선호

서울시가 6월 한 달간 전국 시립화장 시설을 이용한 유가족 1천49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화장된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가 3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교(27.6%), 천주교(12.2%)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에서 '풍수지리를 믿는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기독교인은 33.8%인 반면 불자는 69%인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의 실제 화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불교계에 화장 홍보를 전담하는 단체가 없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나눔실천회가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화장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장기기증 캠페인에 더욱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에서는 화장 장려를 전담하는 '기독교 화장장려 운동본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는 본인 유언에 따른 화장이 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생활형편(13.2%), 종교(10.8%), 사고사(4.1%) 순이었다. 스스로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94년 29.0%, 97년 53.2%, 99년 39.4%, 2000년 43.2%인데 이어 올해에도 7% 가량 증가해, 화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매장과 화장을 택일하는 물음에서도 응답자 62.2%가 '화장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해 매장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7.8%가 많아,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납골당 안치가 94년 11.1%에서 6년 만에 6배 규모로 급증한 것이다.

오종욱 기자



◇지방경찰청에서는 처음으로 경남지방경찰청이 19일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문화재지킴이' 발족

12일 서울에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성락식)이 19일 경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지방 경찰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성락식 경남지방경찰청장,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쌍계사 주지 통광스님 회철국 경상남도 문화관광국장 조영제 국립경상대 박물관장을 비롯 경찰청 및 도내에서 선발된 279명의 문화재 지킴이 요원 등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조영제 박물관장을 비롯한 3명을 경남지방경찰청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문화재 지킴이는 문화재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다원적 수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전통 사찰 89개소와 관할 파출소간 방범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하고 활동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목아박물관에 도둑
사리 · 불감등 19점 훔쳐가

교계 대표적 사립박물관인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에 지난 달 29일과 30일 새벽 사이 도둑이 침입, 도자기류와 부처님 진신사리 등 19종 19점의 유물과 전시품을 훔쳐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 유물은 청화상감국화문유병, 청화대접 등 고려시대 도자기류 16점과 부처님 진신사리 11과, 수원관음도 모사본 등이다. 이들 유물은 박찬수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모두 1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형진 기자

탑골공원 성역화 '취소'

원각사지 확장 조사도 불투명

서울시는 최근 "시가 추진하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는 사업 변경 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성역화 사업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성역화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성역화 사업 대신 최소한의 공원 재정비 사업안을 새로 마련해 문화재청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초석과 유구 등 원각사지 유물이 남아있는 토층에 대한 추가발굴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확장 시굴조사도 함께 취소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사업 취소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확장 시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서울시의 사업포기에 따라 원각사지에 대한 확장 조사도 취소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판매가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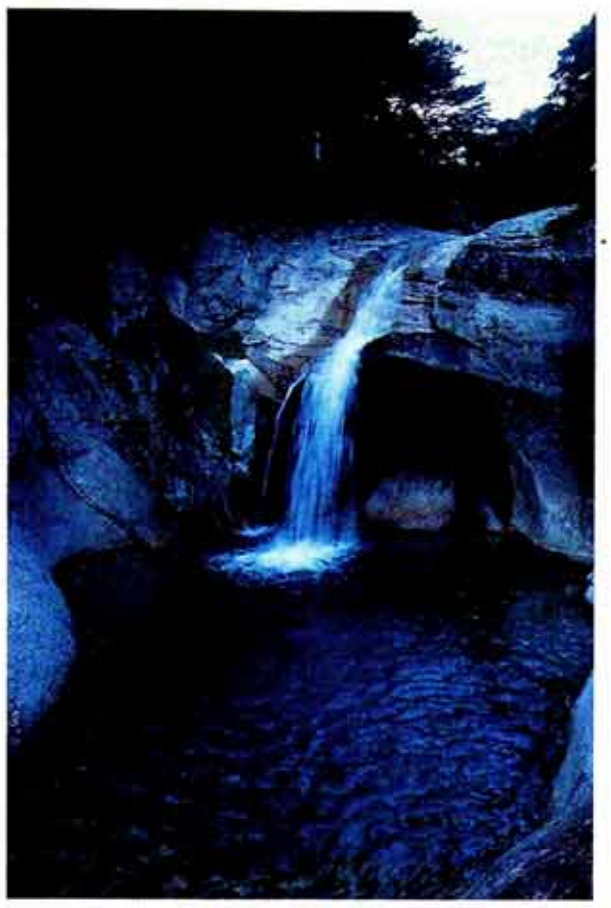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장 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 랑			30,000

※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011-9850~440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주전골의 대표적 영승인 용소폭포.

하늘다람쥐·산양 뛰노는 '생태의 보고'

백두대간 속으로 〈39〉

단목령→점봉산→한계령

새벽 산길을 걷는 일은 산행의 즐거움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슬 머금은 수풀 사이로 곱게 걸린 산안개 속으로 부챗살처럼 햇살이 스며들 때는, 몸과 마음의 매무새를 단정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름날의 신새벽 숲은 가장 내밀한 산의 모습을 보여 준다. 타성에 젖은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신비가 언뜻 맨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슬방울을 매단 거미줄도 이때만큼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보다 빼어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산길을 걷노라면 무수히 많은 거미줄들을 무심히 걷고 지나게 된다. 엄격히 따지면 '거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과연 인간에게 그럴 권리가 있을까. 설사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안한 마음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하여 허투루 여기면서 반개발을 목청높여 외치는 일은 아무래도 공허하다.

금강산의 바위 벼랑에 새겨진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 읊었다는 고려 때의 선승인 백운 스님(1299~1375)의 게송 한 자락이 생각난다.

"공연한 짓 벼랑깎아 법신(法身) 상했네."

있는 그대로 부처의 현현이거늘 공연히 형상을 만들 일이 있겠느냐는 통쾌한 일갈이다. 산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마땅히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백두대간 종주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인식되었다. 백두대간 종주 여부를 산행 관록의 척도로 삼기도 했고, 우리 국토에 대한 최고의 애정 표현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두대간 종주를 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백두대간 마루금에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말도 자조로 들린다. '산 좋아하는 놈이 산 망친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한빛은행 직원들의 대규모 백두대간 종주는 무분별한 산행의 가장 볼썽사나운 사례로 기억될 것 같다. 8200여명의 직원들이 200~300명 단위로 무리지어 이어달리기식 종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산이 느낄 스트레스와 훼손이 적지 않을 것임은 상식 수준에서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 말고도 못난 산행 문화는 이미 보편화된 것 같다. 쓰레기 되가져가지 않기, 기록 경기하듯이 좌우 돌아볼 겨를도 없이 후닥닥 뛰어다니기, 봉우리에만 올라서면 고함지르기 등. 무슨 일이든 경쟁적으로, 아니면 하기 싫은 숙제하듯 하는 산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불편한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점봉산을 오른다.



◇점봉산 오름길. 수많은 들꽃과 우거진 수풀이 원시적 생명의 기운을 내뿜는다.



주전골 성곡사터 삼층탑만 덩그런히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진동리 및 양양군 서면 오가리 사이에 위치한 점봉산(1424.2m)은, 설악산 군봉의 하나로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며 남설악으로도 불린다.

점봉산은 우선 때묻지 않은 원시의 숲이 뿜어내는 기운이 단연 한국 최고라 해도 그리 흠잡히지 않을 산이다. 설악산의 유명세에 가려진 덕분으로 사람의 발길이 비교적 적은 점도 훼손을 줄여 주었다. 동두텁한 육산과 우람한 바위의 조화도 점봉산의 자랑이다. 생물종 다양성에 있어서도 점봉산은 국내 최고다. 한계령풀, 모데미풀, 등대시호 등 30여종의 법정보호식물과 하늘다람쥐, 산양, 수달 등 31종의 천연기념물이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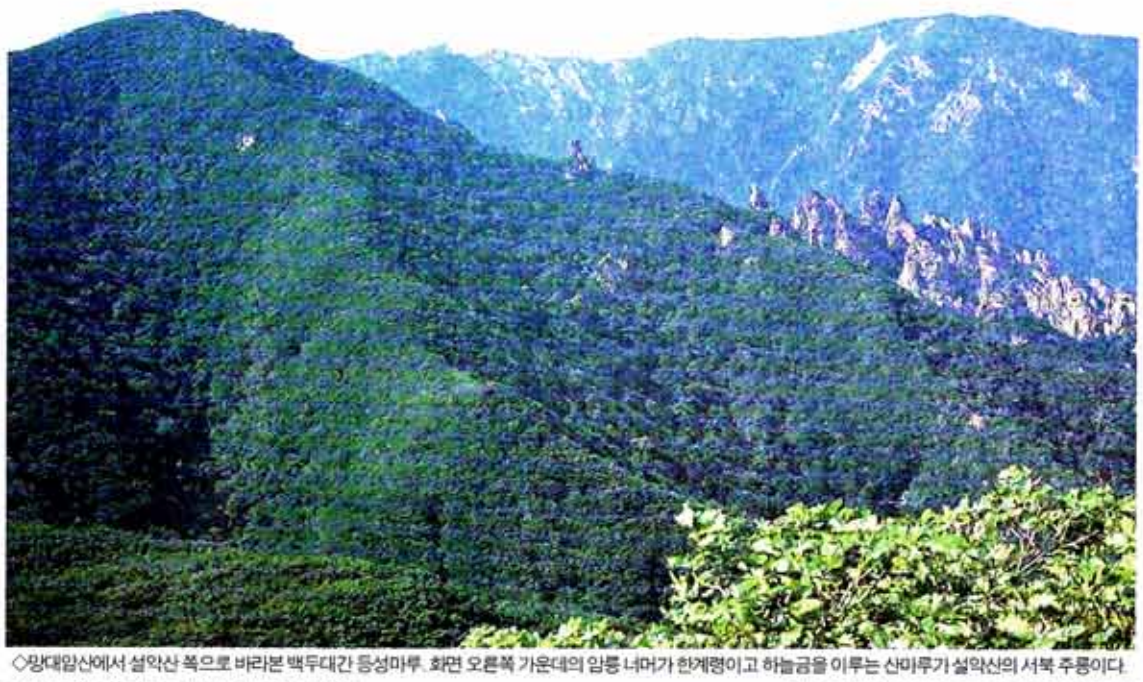
점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자태도 아주 빼어나다. 귀때기청봉을 비롯한 서북 주릉에서 대청을 향해 오르는 장쾌한 능선은 보기만 해도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설악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음(知音)인 셈이다.

단목령에서 점봉산 정상까지는 반나절 거리다. 단목령을 지나 습지로 이루어진 구릉을 지나 포수막터 못 미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상을 향해 키를 올린다. 우측으로 난 길을 따르면 오색온천에 닿을 수 있다. 해발 600미터에 위치한 오색온천은 우리 나라의 온천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유황성분이 많아 피부병이나 신경통, 부인병 등에 좋다고 한다.

점봉산 정상은 간신히 들고 지나야 하는 수풀 우거진 능선과 달리 제법 넓은 평지와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점봉산에서 한계령으로 내려서는 대간은 망대암산(1236m)이라는 제법 우뚝한 산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 옛날 도둑들이 망을 보던 곳이라 하여 비롯된 이름답게 조망이 뛰어나다.

망대암산을 지나면서부터 등산로는 선명하나 만물상 바위능선은 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기분좋은 긴장을 만들어내는 바윗길는 평범한 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망대암산에서 설악산 쪽으로 바라본 백두대간 등성마루. 화면 오른쪽 가운데의 암릉 너머가 한계령이고 하늘금을 이루는 산마루가 설악산의 서북 주릉이다.

아름다운 한계령 멀리 동해까지 조망

바윗길을 지나기 전에 북동쪽으로 빠지면 주전골을 둘러볼 수 있다. 옛날 몰래 위조 엽전을 만들던 사람이 이곳을 지나는 관찰사에게 들켰다는 전설을 간직한 골짜기로, 기기묘묘한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졌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 오색약수에서 한시간 이내로 주전골의 상징인 용소폭포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한다. 주전골에는 또 신라의 고찰인 성국사터가 있는데, 지금은 보물 497호로 지정된 삼층석탑만이 남아 어렴풋이 옛날을 증언하고 있다.

바위 능선을 지나 두어 시간 남짓이면 한계령에 닿는다. 우리 나라 고갯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첫손 꼽히기도 하는 고개다. 가을이면 단풍으로 넋을 빼앗고 여름이면 잦은 안개로 신비감을 더해 주는 고갯길. 혹 시계가 좋은 행운을 만날 수 있다면 멀리 동해 바다에 풍덩 빠질 수도 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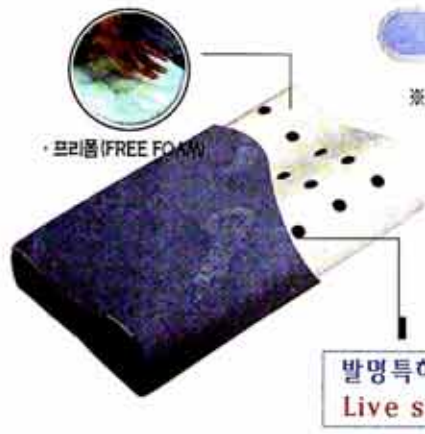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전통적인 경상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이음새 부분은 홈을 파서 제작!!

전문가의 솜결이 느껴지는 섬세한 조각!!

- 특징 : 이음새 부분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홈을 파서 제작하였습니다.
- 재질 : 알마시카
- 규격 : 가로 74Cm × 세로 33Cm × 높이 30.5Cm
- 가격 : 130,000원



· 프리폼(FREE FOAM)

37°氣 베개

※ 프리폼(FREE FOAM)이란?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한 저탄성/고밀도 충격 흡수 소재입니다.

-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압력을 분산시켜 편안한 수면을 도와드립니다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잦은 두통 · 불면증 · 어깨결림 · 심한 코골이에 시달리시는 분
- 재질 : 프리폼(FREE FOAM) + 커버(면 100%)
- 색상 : 아이보리, 하늘색 ● 가격 : 69,000원

발명특허 제0188231호
Live soul기(氣) 암석

LIFE SOUL은 40° 이상의 전열을 가하여야만 원적외선이 방사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체온만으로도 원적외선이 방사됩니다.

37°氣 방석세트

- 특징 : 지압효과 · 보온/방습효과 · 항균작용 미끄럼 방지 · 개성있는 디자인
- 효과 : 생리통, 냉대하, 두통, 낭습, 신장기능저하, 신진대사불량에 좋습니다.
-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회사원, 운전자,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 재질 : 발포체(폴리우레탄) ● 색상 : 연보라, 베이지
- 구성 : 방석 + 등받이(의자용) ● 가격 : 40,000원



www.mahamall.co.kr 주문 및 문의전화 : 02)732-1522